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416-9202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2월 26일(음력 11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659 호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 '對 불교계 현안'은?

종교편향 등 해결과제 산적

제17대 대통령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12월 19일 열린 대통령 선거 결과 이 당선자는 전체 투표율은 62.9% 중 47%라는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불교계와의 '관계회복' 혹은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 봉헌' 등의 발언으로 종교계로부터 '종교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경부운하' 역시 불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자신은 "본인의 종교문제로 인해 불교계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종교편향 발언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해명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교편향적인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당선자의 행보에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부인 김윤옥 여사가 '연화심'이라는 법명을 받은 것을 문제 삼는 개신교 모임에서 이 당선자는 "절에서 하는 법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스님이 부인에게



얼굴이 연꽃 같다고 말한 것이 와전이 된 것"이라고 해명해 불교계의 빈축을 샀다. 또한 불교계가 마련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도 행사 당일 오전에 불참을 선언해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한 '종교간 화해와 상생을 위한 서약서'에도 그는 회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말로는 '종교화합' '이웃 종교 배려'를 외치면서도 이 당선자의 이 같은 행보가 계속되는 것은 여전히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부족'과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경부운하' 역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경부운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로부터 '환경 및 불교문화재 파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조계종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지준)와 금강회(회장 보선)는 11월 6일 '경부운하 건설 공약'이 불교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부대운하구간 중 조령수로터널은 백두대간의 월악산국립공원과 문경도립공원 일대를 관통하는데, 이 지역에는 보물급 불교문화재 68점을 비롯해 169점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존재한다"며 "터널 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 지반 변위 등 산지 파괴는 물론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월 23일 열린 '경부운하 공약 철회 촉구 사회인사 2500인 선언식'에서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경부운하 건설 계획대로라면 여주 신륵사는 그대로 물바다가 되고 수많은 국가지정문화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수차례 불교계를 찾아 종교편향 근절, 불교관련 각종 법령 개정, 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 불교 문화 · 문화재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지켜나갈지 불교계는 형형한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인식이 높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2월 20일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민화합과 경제회복,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는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당선자로서 무엇보다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고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처님이 지도자의 열 가지 덕목 중 하나로 제시한 '불상위(不相違)'를 예로 들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어떠한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밝혔다. 〈관련기사2·27면〉

여수령 기자

책 주문은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여시아문'
온라인 불서전문점 온라인 여시아문(www.yosiamun.com) 과 전화 주문(02-737-0695) 관리가 전문화 되었습니다. 책방 온라인 여시아문은 국내최대 불서 전문 총판 운주사와 협약을 맺어 주문과 배송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성탄절을 1주일 앞둔 12월 18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
지관 스님 메시지 발표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예수님 오신날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불자들을 대표하여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사랑과 나눔을 통한 화합과 평화이며, 화합과 평화는 진실한 사랑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주상 보시를 통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수님 오신날을 맞아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나눔을 통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며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대상이 되고, 어둠의 분단을 뛰어넘는 민족통일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올해로 8년째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해오고 있다.

여수령 기자

社 告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교재: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5000원)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엠씨)

"나눔의 가르침 실천하고 싶어"

신장 기증 하는 부석사 일휴 스님



"내가 가진 것을 나눠 한 생명이 새 삶을 얻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묵묵히 소임 살던 한 스님의 장기기증 사연이 알려져 매서운 겨울 추위에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12월 20일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생면부지의 한 젊은이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 준 이는 일휴 스님. 현재 서산 부석사에서 부전 소임을 맡고 있다.

"입적하신 법장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과 주경 스님(부석사 주지)의 생명존중과 나눔의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자신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스님의 선행은 한 신도의 제보로 알려졌다.

"법장 스님의 '중생들의 모든 나쁜 것은 내 걸망에 담고, 내 걸망에 담긴 좋은 것은 나눠준다'는 말씀에 감화 받아 나눔을 실천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왔다"고 스님은 말했다.

일휴 스님은 이미 오래 전 전체장기기증을 서약했다. 장기기증 서약 이후 약속 지킬 날만 기다리던 스님은 참다못해 올해 3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 계속된 조직검사에 몸은 지쳤어도 좋은 인연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스님의 발원이 전해진 것일까. 신장을 기증받을 환자가 나타났다.

"내 법명 일휴(日休)는 날마다 쉬는 스님이 되라는 뜻이다. 쉬면 모든 것이 무(無)이고 그것은 곧 무소유를 뜻한다"라는 스님은 "상(相)을 내지 않고 마음(心)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편안할 것"이라고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길 발원했다.

조동섭 기자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를 맞이하여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51(2007)년 12월 26일 (음 11. 17) 수요일

● 제 1부 : 사리탑 제막식 (오전 9시 30분)
● 제 2부 : 추 모 법 회 (오전 10시)
● 문 의 : 055)934-3000 (해인사 종무소), 055)932-7308 (원당암)
● 장 소 : 해인사 비림(부도전)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혜암대종사 문도대표 성법



실마리 안보이는 '진각종 갈등'

전·현직 통리원장 법정소송으로 극한대립 치달아

전 · 현직 통리원장의 갈등과 대립이 소송으로 번지는 등 올해로 창종 60주년을 맞은 진각종의 내홍이 해를 넘기고 있다.

진각종은 12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前 통리원장 효암정사를 서울 상월곡동 총인원내 성취관 사택으로 대기발령 했다. 이는 효암정사가 회정 현 통리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 신청한 징계 및 인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지난 10일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

전·현직 통리원장의 갈등은 효암정사가 통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 도량 건립을 위해 사들인 강원도 홍천의 토지가 빌미가 됐다. 현 통리원 집행부가 이곳은 효율성이 없다며 홍천의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효암 前 원장은 통리원 재무담당 종무원인 김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2차 항고까지 무혐의 처리됐다. 이것이 전 · 현직 통리원장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급기야 현 집행부측인 사감원이 칼을 뽑아들고 종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종단 기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효암 前 원장에 대해 품수 7급 강등, 공권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7급은 초임 스승에게 부여되는 급수로 효암 前 원장의 이력으로 볼 때 사실상 승적 박탈이나 다름없는 불명예 강등이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효암 前 원장을 10월 11일자로 탑주심인당에서 구미 보광심인당으로 인사 발령했다. 그러나 효암 前 원장은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한 인사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회정 통리원장은 12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이 혐의 없음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 적법한 집행 절차가 방해받는 사태에 대해서는 승속을 불문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효암 前 원장은 "12월 17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접수했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문제 해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진각종의 한 교도는 "창종 60주년을 맞은 올해 제2의 창종을 한다는 마음으로 승풍 진작과 종도들의 화합에 힘써야 할 시기에 갈등과 대립만 보여주고 있는 종단의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돼 진각종의 숙원 사업인 '진각종문화전승관' 불사를 시작으로 하루빨리 종단이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진각종 통리원은 최근 3개월여간 네 차례에 걸쳐 스승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현 통리원장에 반기를 든 효암 前 원장과 진산정사를 포함해 이에 동조한 이들에 대한 문책이라는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주일 기자

"사찰규제 법 개정·문화재 예산 늘릴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불교공약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유세기간 동안 전통사찰 규제 법률을 개정하고, 불교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한 정부예산 증액, 연등축제의 국가 전통문화 축제 지정, 10 · 27 법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올 한해 논란이 계속되어 온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문제이고 문화유산관리 및 예산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당선자는 ▲북한 문화재 조사 및 복원사업 ▲권역별 불교문화권 개발 ▲해외반출문화유산 반환추진 ▲문화재위원 불교계인사 비중 확대 ▲폐사지 관리 및 복원시스템 구축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당선자가 11월 13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초청 간담회에서 밝힌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불교정책공약'을 7대 과제로 요약 · 정리했다.

여수령 기자

▲불교관련 각종 법령 제 · 개정=불합리한 각종 불교관련 규제법규를 개정하고 불교사찰에 관한 법률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해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을 강화.

▲불교문화와 유적의 계승 발전=불교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을 상향조정. 권역별 불교문화권 개발 사업 추진 및 불교전통문화예술을 위해 관련학과 신설, 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검증을 위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추천제를 시행.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 불교문화행사 지원=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연등축제를 국가전통문화축제로 지정해 지원육성한다.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 있는 종교정책=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추진, 대통령비서실에 전통문화담당 비서관 신설 및 불교인을 임명.

▲남북불교교류와 북한불교 문화재 복원사업 지원=남북 불교문화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북한의 주요 전통 사찰 복원사업 지원 확대.

▲지속적 공약실천을 위한 (가칭)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불교정책공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출연으로 (가칭)불교전통문화연구소를 설립한다.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문화유산은 불교계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제도개선.

투표소에서 선교행위 '웬말'

전체 12%가 교회에 설치…유권자들에 소식지 등 배포

교회 내에 마련된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선교 행위가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7대 대선에서 총 투표소 1만3178개소 중 약 1100여개소를 교회에 설치했다. 12%에 가까운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 투표소에서 공공연한 선교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당일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회 투표소에서는 교회 신자들이 유권자들에게 "00교회에서 나왔다"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뿐 아니라 '00교회에서 만드는 지역신문'도 유권자들의 손에 쥐어줬다.

투표소가 마련된 교회 곳곳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의 성탄예배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투표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이 포스터 위에 붙어 있다. 해당 교회 측은 "선관위의 요청에 의한 것일 뿐 교회가 나서서 투표소 설치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투표소 공개가 시작된 12월 13일 이후 300여 건에 가까운 항의 글이 게시됐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가서 투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불교계 내에서도 종교시설 투표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 2일 전인 12월 17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광주광역시 선관위를 방문해 "특정종교 시설물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은 국가기관이 종교편향을 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1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기준을 공개하고 ▲종교간 형평성에 맞는 투표소 설치 ▲투표소에서의 직 · 간접적 선교행위 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처럼 종교시설 대신 공공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장소 임대가 쉽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 교회가 선정된 것일 뿐"이라며 개선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선거 때 마다 교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교행위가 이뤄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서울 영등포의 한 교회 투표소 모습.

"먼저 스스로 목탁들고 기도하겠다"

관음사 주지 취임 원종스님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에 원종 스님이 취임했다.

관음사는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12월 15일 '제8회 한라산 영산대재 및 제주 관음사 진산식'을 봉행했다.

신임주지 원종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관음사는 그동안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이 큰 고통과 시련을 치유하겠다"며 "내가 먼저 스스로 목탁을 들고 기도하겠으며,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음사를 찾아오고 싶어 하는 템플스테이 도량으로 꾸미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관음사 주변의 낙후된 시설과 환경을 쇄신하는 한편, 안봉려관 스님이 이곳에 터를 잡고 수행한지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불사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산식에는 법화사 회주 시몽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김주일 기자

월정사 주지 후보 정념 스님

12월 15일 열린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후보 선출에서 정념 스님이 94표를 얻어 3표를 얻은 정수 스님을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월정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개최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151인의 선거인 중 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소청심사위 원장 청우 스님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청우 스님(강릉 낙가사 주지)이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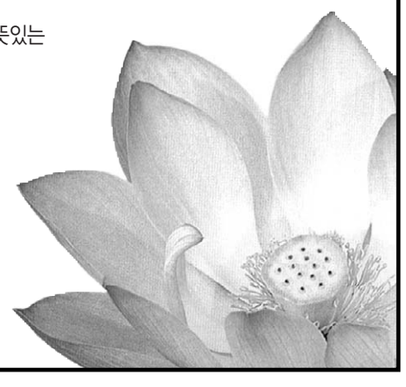
소청심사위원회는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청우 스님을 위원장에 추대했다. 간사에는 원오 스님(용인 보각사 주지)을 선출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광주지사 : (062)268-1508
전북지사 : (063)910-519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시공의 천년! 숲속의 향기! 천불의 미소!
직지사 템플스테이
대자연의 만다라 속에 부처님의 향기 가득한 직지사에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간의 길을 찾는 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량한 산사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머리와 가슴을 비우고, 천불의 미소처럼 본래의 밝은 자기를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평화롭고 안온한 인생의 체험을 통해 세상의 티끌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부처님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4회 직지사 동안거 어린이 산사체험
• 일 시 : 2008년 1월 7일 ~ 12일 (5박 6일)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 참가비 : 150,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여벌옷, 외투, 운동화
※ 어린이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안전보험 가입용)
차명상 정기 템플스테이
• 일 시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 인 원 : 선착순 20명 • 대 상 : 일반인(부모님 동반 중학생이상 가능)
• 참가비 : 70,000원(일반인) / 중고생 50,000원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 접 수 : www.jikjisa.or.kr ☎ 054)436-6084. 6174 (템플스테이 사무국)
◇ 계좌번호 : 우체국 702829-01-000591 (예금주: 직지사)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


무자년 새해맞이
보살대계 봉행
조계종 원로 의원 되심을 축하합니다
前 포교원장으로 한국불자포교에 평생을 보내신 무진장 큰스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의원으로 추대(2007.12.11) 되었음을
한국불자를 대표하여 정중히 축하드립니다.
■ 행사내용
2008년(무자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전 우리들의 마음자세를 새롭게 하고 불자가정에 보살의 삶을 살고저 서원의 대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로의원이 되신 큰스님의 신년법문을 듣고 보살대계 수계를 봉행하오니 뜻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8. 1. 12(토) 오후 4시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서울 조계사 옆)
• 대 상 : 일반불자, 무진장 큰스님과 인연있는 모든 불자
• 사무국 : ☎ 02)732-1206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검은 바다에 '자비의 물결'

태안 기름유출 현장에 사찰 봉사활동·성금지원 줄이어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국민적인 자원봉사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의 봉사 행렬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12일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 인근에 캠프를 설치하고 구호활동을 펼쳐 온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대책위원회는 캠프 인근의 오염 방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21일 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교구본사인 예산 수덕사(주지 응산)에 지원본부 마련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급식봉사에 나섰던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도 20일 봉사를 마무리 지었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7일 스님과 종도들을 비롯해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동참한 외국인 관광객 등까지 함께 태안 개목항 주변에서 방제활동을 펼쳤다. 관음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연인원 3만여 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복구 현장에는 동안거 결제 중인 수좌스님들이 예외적으로 산문을 나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 스님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14일에는 예산 수덕사 선방 정혜사 수좌 20여명을 비롯해 견성암, 보덕사 등 안거대중 100여 명이 기름제거 활동에 참가했다. 통도사 선원 스님들도 17일 율원 및 강원 스님 등 200여 명과 함께 태안 신두리해수욕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청도 운문사 주지 진성스님을 비롯한 대중 200여명은 17일 기름띠 제거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고로 무참히 희생당한 일체의 생명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이어 성금지원도 줄을 잇고 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방문해 재해복구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고, 앞서 17일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 성관)가 조계종 사회부에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구룡사와 호압사 등 각 사찰과 단체들도 기름띠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을 비롯한 복지사 30명은 15일 기름 제거에 동참했고, 태안지역과 가까운 서산 부석사의 서산불교환경연대(041-662-3824)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봉사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기름띠가 전라북도까지 떠내려감에 따라, 전북 지역 사찰들도 봉사를 준비하고 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의류 등 흡착포를 대용할 만한 구호물품 등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여수령·김강진·조동제 전북지사장



태안 기름유출 피해현장에 불자들의 복구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산 통도사 선원 스님들이 율원, 강원 스님들과 함께 12월 17일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에서 기름띠 방제작업을 펼쳤다.

기고 –태안 기름유출 복구현장에서

"생태 파괴 재앙, 다시 반복되지 않길"

맨 처음 뉴스에서 태안 앞바다에 원유가 유출된 모습을 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태안 주민 · 공무원 · 환경 및 종교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에 나서 일손을 돕는 것을 보며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속으로 삭였습니다.

그러다 불교계에서 모두 자원봉사에 나선 12월 14일, 저희 수덕사 신도들도 신두리 해수욕장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신두리에는 불자봉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사장은 파도가 몰고 온 기름찌꺼기로 인해 기름띠를 이뤘고, 굴 양식장에는 기름덩어리와 굴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바위 틈새에까지 기름찌꺼기들이 베들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기름에 의한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흡착포를 받아 백사장 모래에 남아있는 기름띠를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수일간 기름띠를 제거한 탓인지 백사장은 슬슬 제 모습을 찾게 됐다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시던 노보살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터진 직후 이곳에 왔을 때 백사장은 검은 기름덩어리들로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지요. 그 모습에 기가 막혀 그저 눈물만 났을 정도라고 하셨으니,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띠 제거작업은 오전부터 시작됐지만 오후 3시가 넘자 밀물 때가 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날의 봉사활동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신두리에 다시 도착한 것은 12월 19일. 수많은 자원봉사자 및 어민들의 노력으로 백사장의 변화가 보여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이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 곳은 신두리의 '사구 자연생태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백사장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았지만 그곳의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파도에 의해 기름찌꺼기가 계속 밀려들어 사구를 뒤덮었습니다. 기름으로 검게 변한 사구를 보며 봉사자들은 안타까움에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파도가 몰고 온 기름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봉사자들은 삽 · 쓰레받기 · 호미 · 빗자루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손으로 기름을 긁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날의 봉사활동은 종일 기름찌꺼기를 걷어내는 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나마도 오후가 되자 밀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마쳐야 했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걷어내도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 사구 보호구역은 봉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우리들의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 생태계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기름 양만 1만200톤이 넘는다니 그 피해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피해상황을 보며 매일이라도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태안이 이전의 모습을 찾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내내 이 지역 주민 · 어민들에 대한 걱정, 갯벌과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생명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예산 수덕사 신도회 김경숙 총무

'직업 소개'로 자원봉사 하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셰어윌' 프로그램 진행

"자신의 직업을 소개해주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독특한 봉사 프로그램 '셰어윌(Share will)'을 내놓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셰어(share)'와 '의지'라는 뜻을 가진 '윌(will)'의 합성어다.

셰어윌 프로그램의 주체는 크게 두 집단. 자원봉사자 집단인 직업을 가진 어른과 수혜자인 저소득 및 일반 청소년이다. 먼저 직업을 가진 어른들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평소 좋은 일을 하고 싶었으나 봉사활동 할 시간이 없어 고민인 어른들에게 안성맞춤인 셈. 따로 시간을 내어 어딘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운영위원회도 꾸려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념 스님, 번개철가방 김대중씨,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를 비롯해 스님 · 기업인 · 교수 등의 직업군이 포함된 15명의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봉사활동을 이끌게 된다.

수혜자인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www.sharewill.co.kr)에서 직접 경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 체험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매 포인트가 필요한데 저소득 청소년들은 포인트를 지급받고 일반청소년들은 구입해야 한다. 이때 발생된 비용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소원들어주기 기금으로 조성된다.(02)723-5101 김강진 기자

범어사 내년 무료 개방

1월 1일부터 입장료 폐지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문화재관람료폐지'를 부산시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범어사는 "입장료 폐지를 조계종단에 보고한 상태이나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이고 부산시와의 협의는 끝났다"고 말했다. 현재 범어사는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1일 0시를 기해 입장료를 폐지하고 시민들을 위한 축하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범어사와 부산시는 입장료 폐지를 논의해 왔으나 지원금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료개방이 무산됐었다.

12월 20일 범어사에 따르면 금정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범어사를 무료 개방하는 대신 사찰 문화재 보전을 위해 예산 2억원을 문화재시설보호지원비로 받는다.

범어사는 일주문, 대웅전, 3층 석탑, 삼국유사 초기 간행본 등 8가지 국가 지정 보물을 비롯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

하성미 기자



I Love Buddha / 새해 맞이하기

용정운(www.zentoon.com)



한국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시청각 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염송(念誦)모음

■ **염 송 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찬게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게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엄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시식 · 영반편 • 장의편 • 점안편 • 이운편 • 의식편 • 기타편

• **제품사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태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SD카드 지원,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전자북, 메모, 스케줄, 달력, 계산기), 영 · 중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의 '불서로 보는 스님의 일상' 전이 12월 17일 개막됐다.

불서로 보는 스님의 일상

국립광주박물관, 내년 2월 17일까지 특별전시회

불서에서는 스님의 일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불서를 통해 스님의 일상을 들여다본 전시회가 열려 화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에서 마련한 '불서로 본 스님의 일상' 특별전이 12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17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새벽 도량석으로 시작하는 '산사의 하루'와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스님들의 삶'을 사진과 글, 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불교도서 연구가 김민영씨가 소장하고 있는 <원각경>(보물 제1518호)을 비롯한 희귀 불서 100여 점과 송광사, 백양사, 대흥사, 선암사 등 남도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서와 용품등이 함께 소개돼 사찰과 스님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17일 열린 개막식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석정 스님, 장성 백양사 주지 성호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인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현종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생활 등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고자 특별전을 마련했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선지식들의 향훈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석정 스님도 축사에서 "스님들의 오랜 수행 흔적을 담은 책과 글을 감상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안목과 마음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며 공부하는 마음을 갖고 관람하기를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시방세계에 佛音 울려퍼지길…"

창단 20주년 기념 음악회 여는 삼광사 화엄합창단

부산 지역 불음(佛音) 포교에 앞장서온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 화엄합창단(단장 옥정숙)이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1987년 창단한 화엄합창단은 천태합창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고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꾸준히 음성공양을 올려온 화엄합창단은 삼광사 뿐 아니라 봉축행사를 비롯해 칠석제, 동지예술제, 부산불교연합합창제 등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 부산지역 불교합창단의 선두주자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음성공양과 봉사활동을 원만히 해내며 삼광사의 큰 기둥이 된 화엄합창단. 사찰합창단 운영의 모범 사례로 뽑히는 화엄합창단 성공비결은 뭘까. 12월 18일, 20주년 기념 발표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화엄합창단을 찾았다.

화엄합창단은 20주년 생일을 맞아 12월 27일 7시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릴 '창단 20주년 기념 합창제' 연습으로 열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열기 속에서 화엄합창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인 그들만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월등한 실력을 자랑한 밑바탕은 능력 있는 지도자 영입에서부터 시작됐다. 신심과 실력, 지도력의 삼박자를 겸비한 김화정 교수(인제대)를 초빙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화엄합창단은 이제 삼광사를 지탱하는 한 기둥으로 성장했다.

이태리 베르디국립음악원에서 10년을 유학한 김화정 교수는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다. 화엄합창단을 맡은 김 교수는 창작찬불가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찬불가를 통한 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훌륭한 지휘자의 지도아래 단원들은 엄격한 자기관리로 무장했다. 법회 뿐 아니라 아주 작은 모임에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단정함으로 정성을 다했다. 액세서리 사용은 일체 금지했고 머리 스타일과 복장도 엄격하게 관리했다. 단원들은 "우리가 삼광사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화엄합창단이 성공한 또 다른 요인은 '단합'이다. 합창단 총무를 역임하고 있는 김수정씨는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지스님께서 직접 한 달에 한 번 합창단원들을 진두지휘해 등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합창단 등산모임으로 단원들은 추억도 만들고 어려운 등반 코스에서 협동을 배웠다. 서로 힘이 되며 돈독한 대화가 오고간 그 시간이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매주 화요일 정기연습시간에 참석 인원을 꾸준히 늘려주고 풍족한 대중공양이 마련되는 등 합창단원들이 결속력을 모으는 요인이 됐다. 합창단원을 위한 등반 모임은 그 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불교에 관심이 없던 단원가족들도 동참하는 포교의 장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화엄합창단의 저력은 사찰 곳곳에서 발휘한 '봉사 정신'이다. 일선에 서서 열심히 활동한 그들의 손길은 단원 스스로에게 보람으로, 기쁨으로 돌아왔다.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삼광한글학교를 졸업할 때 순수한 축하의 의미로 음성공양을 올렸어요. 그 때 느낀 뜨거운 보람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죠. 행사의 크고 작음을 떠나 보람을 찾을 때 가장 기뻐요. 부처님께 올린 음성 공양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돌아 온 것이라고 여겨요." 합창단원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봉춘 부장은 음성 공양은 단지 음(音)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화엄합창단의 노래는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기쁨이 된 것이다.

'창단 20주년 기념 합창제'를 앞두고 있는 옥정숙 단장은 "저물어 가는 한해 끝자락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음성공양의 공덕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구석에 부처님 광명 비추기를 바란다"며 화엄합창단이 노래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051)808-7111 하성미 기자

연말 음악회 2題

'佛法 전하는 은발의 하모니'

홍법사 실버 '청솔합창단' 창단음악회

'오빠' 부대가 아닌 '할머니' 부대가 음악회장에 나타났다. 곡이 끝날 때마다 '할머니'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정겹다. 홍법사(주지 심산) '청솔합창단' 창단음악회 무대에 선 할머니 단원들에게 보내는 손자 손녀들의 응원 소리였다.

12월 13일 부산금정문화회관대강당에서 '청솔합창단'의 창단 음악회가 열렸다.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빼곡히 들어찬 대강당에는 곱게 차려입은 청솔합창단이 한마음으로 노래하는 찬불가가 울려퍼졌다. 객석에 앉은 스님도 불자들도 감동의 박수를 아낌없이 선사했다. 청솔합창단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실버합창단'이라는 점이다. 평균 나이 65세인 청솔합창단은 50명의 단원들이 똘똘 뭉쳐 음성공양을 아낌 없이 무대에 펼쳐 놓았다. 음성공양을 통한 불음 행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청솔합창단은 홍법사 행사 참여는 물론 복지회관, 병원, 양로원, 교도소 등을 방문하고 연주 및 봉사 그리고 불음으로 포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자비정신' 담은 고운 선율

진각종 금강회 심인합창단 자선음악회

진각종 총 금강회 대전지부(지부장 원산)가 창종 60주년 및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12월 14일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심인합창단 복지기금 마련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음악회는 대전 국군 간호 사관학교 호국약천사 보리회합창단이 '작은 마음에 노래' '슬픔에게' '내 마음의 부처'를 음성공양 한데 이어 심인합창단이 무대를 장식했다. 심인합창단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불공을 마치며' '눈물로 비 옵니다' '향수' '나무관세음보살' '좋은 날' '풀꽃 만나고 온 날'을 고운 음색에 담아 선사했다. 초대가수로는 소프라노 민진기씨가 '내 맘의 강물' 등 4곡을 열창했다.

심인합창단 지도스승 현수 정사는 "새로운 지휘자에 불자 류성욱씨를 영입한 후 음색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며 "합창단의 노고와 자리를 함께한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드리며 복지성금 모금에 많은 불자들의 힘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새해도 익산불교 발전 이어갈 것"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익산불교의 밤' 개최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중근 회장(왼쪽)이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가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 숭림사 주지)의 후원으로 12월 15일 알리앙스웨딩홀에서 '익산불교의 밤'을 개최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한 익산 사암스님들과 지역 불자 800여명이 함께한 이날 불교인의 밤은 정해년 한 해동안 수행과 포교, 복지, 자원봉사 분야에서 힘쓴 지역불자들을 위로하고 내년 무자년 한해 익산불교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암연합회 회장 지광 스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하자"며 "익산불교의 부흥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익산지역의 불교 발전을 위해 애쓴 불자들을 칭찬하고 "이러한 힘을 한데 모아 사회에 회향하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한 조배숙 국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해 이구동성으로 "익산불교 발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각급 기관장들이 지역 불교행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달라진 익산불교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한편 박중근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지역불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또 각 분야의 모범불자들에게는 상장과 작은 선물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성사 새해 범종개방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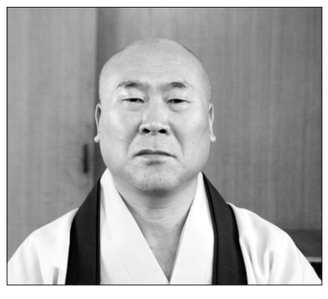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2008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대성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범종을 개방한다. 내년 1월 1일 0시 열리는 '새해맞이 범종 개방과 나눔의 행사'에 참여하면 범종을 직접 칠 수 있다.

12월 31일 오후 9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의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 법문으로 시작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소지 태우고 소원 빌기'를 통해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 의식도 마련한다. 선착순 100명에게 테이프, 영화CD, 2008년 달력, 기념타올,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1 · 2>, 음료수를 제공한다.

한편 대성사는 '여름 옷 캄보디아 베트남 보내기', '좋은 책 서로 바꿔보기' 등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고 있다.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 카페(cafe.daum.net/dasungsa)에서는 대성사에서 만나 결혼한 회원과 인연을 만나 결혼을 앞둔 회원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043)732-5560 혜철 충청지사장

경전연구회 담양 용화사서 첫 강좌

광주·전남 스님 30여명 참여…6개월간 <금강경> 공부 등 진행


경전연구회 회장 수진 스님(용화사 주지)이 지역스님들과 함께 경전공부에 나섰다.

대통령 선거 투표가 한창인 12월 19일 오후 2시 일찍 투표를 마친 스님들이 담양 용화사 강당에 모였다. 각 사암에서 포교에 정진중인 스님들의 공부모임인 경전연구회(회장 수진)가 12월 5일 발족해 19일 그 첫번째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태고종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19일 용화사 강당에서 암도 큰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과 응각 스님(前 불국사 강주) 등을 모시고, 광주 · 전남지역 사찰 스님 30여 분과 함께 경전공부를 시작했다.

경전연구회는 이날 서울 금강선원 총재 한정섭 법사의 부처님일생 강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응각 스님의 <금강경>과 여러 대승경전을 공부할 계획이다.

경전연구회 회장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재가신자들은 다양한 공부의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사찰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재교육은 쉽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기회를 만들게 됐다"라며, "초발심으로 경전을 다시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종 지운 승정원장 취임법회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원장 덕주당 지운 큰스님 취임법회가 12월 18일에 조동종 총무원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중앙종회 의장 해륜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명 스님은 "종단의 묵조선종 기풍에 모범적인 지표와 지도자가 되어 종단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지운 스님은 1960년 백연사에서 현종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태고사에서 동욱 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맑은 NEWS

봉은사 재정 공개 등 사찰 투명화 첫 발

올 한해 종교계에 대한 과세와 재정 투명화 요구가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종교법인법 제정을 통해 종교계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이러한 사회단체의 요구에 부응하듯,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난 8월 재무제표를 공개해 각계의 환영을 받았고, 이어 12월에는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사찰의 1년 재정을 일반에 공개해 불교계에 사찰 재정 투명화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봉암사 결사 60주년 법회 자정노력 천명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성철 청담 자운 스님 등이 일으킨 봉암사 결사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10월 19일 문경 봉암사에서 열린 결사 60주년 기념법회는 조사들의 뜻을 잇는 한편, 현재의 종단 상황을 참회하는 장(場)이 됐다. 법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조계종단 안팎에서 불어닥친 각종 비리와 사건에 대해 참회를 통한 자정을 결의했다. 또한 ▲일체의 명리를 버리고 본분에 충실하며 ▲수행을 생활화 · 사회화하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할 것 등 3대 실천지침을 제시해 불교계의 자정 노력을 천명했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성보 관리 청신호

3월 26일, 2000만 불자의 염원을 담아 불교중앙박물관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에 개관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문화재를 통한 불교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대부터 통도사 성보박물관 건립으로 시작된 사찰 성보박물관 건립 열기는 1995년 송광사 16국사 영정 도난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각 지역 교구본사 중심 30여개의 성보박물관이 지방 중심의 사찰 소장 성보문화재의 전시와 보존, 수집 등에 치중해 지역거점 박물관으로 성장했다면,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은 지방 성보박물관의 특성과 취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성보 관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경주 남산 마애불 발견 등 굵직한 성과

불교문화재와 관련한 굵직한 성과들도 쏟아진 한해였다. 지난 5월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는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국보급 마애여래입상이 발견돼 주목을 받았다. 무게 약 70톤의 화강암(약 250×190×620㎝)에 새겨진 마애여래입상은 볼륨있는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에서 느껴지는 엄숙함이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임을 보여준다. 또한 10월에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친 사명 대사(1544~1610)가 지녔던 금동호신불과 묵서가 포항 대성사에서 발견됐다. 이 밖에도 석가탑 2층 탑신석 사리공에서 발견됐던 '묵서지편'이 발견 41년 만에 해독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작시기가 통일신라시대임이 재증명되는 등 불교문화재 관련 희소식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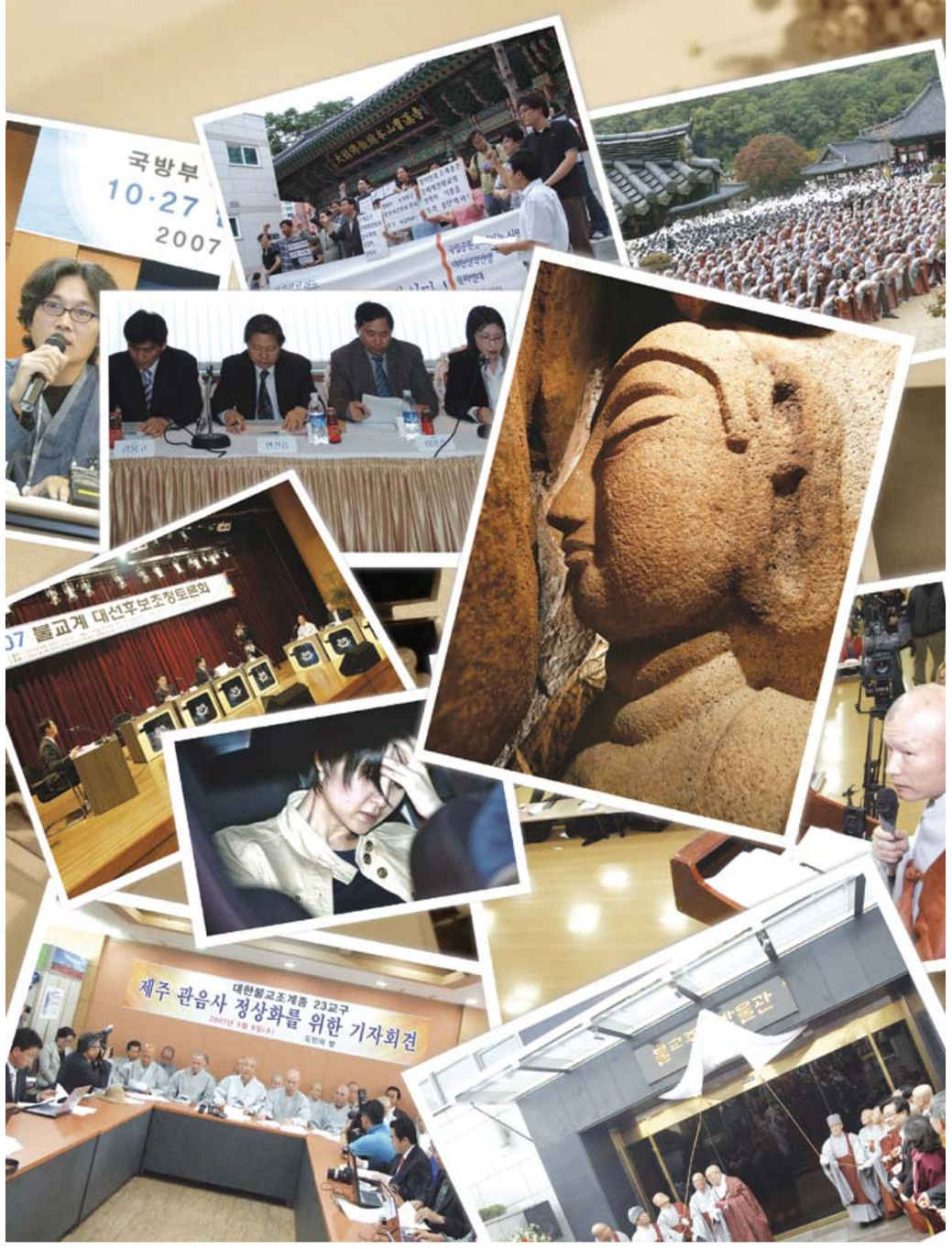
불교정책기획단 출범 및 대선 초청토론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불교의 중 ·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 스님 · 김응철)'이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공동 기획으로 발족했다. 6월 26일 출범한 불교정책기획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당면현안 및 과제를 총 13개 분야로 선정 · 정리한 <2007 불교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불교정책기획단은 이를 주요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11월 21일 '2007 불교계 대선후보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날씨'로 본 2007 불교계

'위기…참회…도약'의 한해

2007년 불교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학력위조로 시작된 '신정아 사건'은 불교계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이는 조계종단 내의 '당파싸움'으로 불거졌고, 언론은 불교계와 변양균 前 청와대 기획실장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왜곡보도를 쏟아냈다. 또한 제주 관음사와 공주 마곡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도 불교계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불교계는 10월 19일 봉암사 결사 60주년 법회를 통해 자정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내의 목소리를 모을 '불교정책기획단'이 창립하고, 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불교중앙박물관이 개관한 것을 비롯해 서울 봉은사의 재정공개로 이어진 사찰 재정투명화 바람은 그나마 불자들을 미소짓게 했다. 한해 불교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과 성과들을 기상도로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흐린 NEWS

사찰 문화재관람료 논란 지속

올 한해 불교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였다. 정부가 1월 1일 국립공원입장료를 일제히 폐지했으나,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람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치는 한편, 구례 천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는 정부에 사찰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정부는 불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찰중첩규제, 내년에는 해소될까?

사찰에 대한 중첩규제는 완화될 수 있을까? 전통사찰의 개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국가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월 14일 전통사찰관련국가법령개정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올 한해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이끌었다. 추진위는 6월 '불교규제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이끌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또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므로, 향후 어떻게 규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27 법난 조사결과 발표 · 특별법 추진 중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월 25일, 10·27 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국민 및 대다수 불교신자들은 과장 왜곡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사실로 받아들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불교계는 과거사위의 조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11월 15일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천둥번개 NEWS

조계종 잇단 악재…종단청정위 구성 요구

조계종은 그 어느 해보다 잇단 악재로 곤욕을 치렀다. 제주 관음사에서는 주지 선출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이는 여과 없이 공중파 방송에 보도돼 불교계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또한 마곡사 前 주지는 '국고횡령 및 말사주지 품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불교계 시민단체 12곳은 조계종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을 조계종에 제안했다. 하지만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오던 교단자정센터는 12월 12일, 조계종의 무성의한 대응과 의지부족을 이유로 자체적인 교단부정부패신고센터를 개소해 운영할 것임을 밝혀 향후 조계종과의 피치 못할 대립이 예상된다.

신정아 학력위조, 불교계로 불똥

대한민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동국대 신정아씨 학력 위조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스캔들이었다. 6월 초 동국대 前 이사 장윤 스님이 처음으로 신씨의 예일대 박사 학위가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7월 4일 신씨가 '2008광주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되자 의혹이 급물살을 탔다. 언론의 집요한 추적 끝에 신씨의 학위가 전부 허위로 드러나고 변양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면서 사건은 '권력형 비리'로 급반전됐다. 또한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실태가 속속 드러나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불교계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온 '신정아 스캔들'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제4회 종교박물관 · 미술관 학술 심포지엄

한국박물관협회(회장 배기동)가 개최했던 이번 행사에는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김종규 명예회장(한국박물관협회)을 비롯한 교계 • 학계의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불교박물관 현황과 전망'과 '비전 2008~2012, 종교박물관 • 미술관의 전망과 과제'를 양대 주제로 2부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가 종교박물관의 미래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윤이흠 명예교수

한국 문화는 '어울림의 멋' 추구



불교미술 한국적 창의성 담겨…불교적 조화의 특징은 '無'

불교가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불교가 한국문화 속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하는 의문에는 일목요연하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불교미술에는 불교사상과 미학적 전통 외에 한국적 창의성이 담겨있다. 이것은 한국만의 어울림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불교미술과 민족 정체성의 문제'를 주제로 이 같이 주장한 이는 윤이흠 명예교수(서울대 종교학과)다. 윤 교수는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종교박물관 · 미술관 학술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을 했다.

"불교가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불교미술이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대표하는가의 문제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한 윤 교수는 민족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국은 문화사적으로 중국의 유교, 인도의 우파니샤드와 불교, 자이나교, 중동의 유태교,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의 다원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국에는 주도적 세계관이 없다. 이런 배경이 결국 자기반성의 결여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기복(祈福)'을 예로 들었다. 기복을 "이기적 동기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현상"이라 정의한 그는 "20세기 사회보장제도 구비 이전,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던 때에는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복이었다. 기복을 이해해야 불교미술의 이해가 가능하다"며 불교미술의 상당수가 기복적 동기를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의 불교미술 이해를 위해 윤 교수는 고구려 시대 미술을 설명했다. "한국이 한자문화권이기는 하지만 한문의 수용은 고구려에 태학이 설립된 4세기 말엽에 시작됐다. 그 이전부터 독자적인 문화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용총에 나타나는 '손대결'과 각저총의 '씨름', 그리고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스키타이의 버클을 비교 · 설명했다. 고구려의 두 그림에는 모두 고구려 사람이 유난히 코가 큰 서역인과 대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원전 1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스키타이의 버클에는 두 사람이 말 두필을 옆에서 쉬게 하고 직접 씨름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한국의 고대문화가 중국보다는 서역과 가까웠다는 증거로 기원전 6~7세기부터 (중국만이 아닌) 스키타이족과도 교류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윤 교수는 설명한다.

결국 한국은 한문을 사용하면서 중국에 예속되기 시작했으나 문화 저변에 독자적인 문화전통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인이 외부에서 종교를 수용할 때마다 해당 종교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려 했음은 물론, 수용의 자세에 있어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유지해 항상 조화를 추구해 왔음을 들어 한국인의 이상으로 조화를 강조했다. 윤 교수는 "조화는 서로 다른 두 요인이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어울림으로 표현했다.

불교에서 보이는 의상과 지눌의 선교 통합론, 유교에서는 성리론과 경세론을 든 퇴계와 성리론과 경제론을 든 율곡을 각각 예로 든 그는 한국인이 무엇보다 융합과 조화를 중시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히 불교적 조화의 특징은 '無'에 있다고 정리했다.

윤 교수는 "한국인의 조화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순종으로 해석되며, 한국의 조화는 형이상학적이 아닌 경험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문화의 특징은 '어울림의 멋'을 추구함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화를 경험할 때 '멋있다'는 감탄사로 표현한다는 예를 들었다. "지구촌 미래의 문화 창조를 위한 에너지가 한국 문화의 어울림에 있다"는 윤 교수의 발표에 참석자들은 '멋있다'는 감탄사를 자아냈다.

범하 스님

성보문화재 통해 문화 이끌어야

박물관 효율적 운영방안 발표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이 대안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은 '불교박물관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 조계종 중앙박물관으로서 불교중앙박물관의 자리매김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스님은 ▲종교박물관이라는 기본 성격에 부합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전시 기본틀 마련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불교미술 홍보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한 중추적 역할 담당 ▲지방 성보박물관을 잇는 네트워크 형성 ▲각 지방 성보박물관의 개성을 부각시키는 조정자 역할의 다섯가지를 피력했다. 범하 스님은 "이것이 불교중앙박물관과 지방 성보박물관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 불교중앙박물관의 전시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지속적인 특별전 개최를 통한 불교문화의 가치효용 극대화와 지방 성보박물관과의 부단한 교류, 둘째 불교유물 발굴과 보존 처리를 위해 명실상부한 불교문화재 전문병원 건립, 셋째 불교계 박물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범하 스님은 성보문화재에 대한 종단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지난 3월 개관이래 개관특별전 불전(佛展)과 불국사 석가탑 발견 사리장엄구 특별전, 2007년 상설전 등 세 번의 전시를 했다.

성보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범하 스님의 발표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한다. 하지만 어떤 문화를 어떻게 활용해 문화의 세기로 만들지에 대한 방향설정은 없다. 한국 문화 속에 살아있는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이 대안"이라는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이분희 행정관(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은 '사찰박물관의 현황 및 실태'를 통해 열악한 사찰 성보박물관의 실태와 인력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사찰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이 행정관은 단순 수장고가 아닌 해당 사찰과 지역사회 주민문화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 행정관은 "박물관에 대한 사찰 자체의 인식 제고와 해당지역 문화재와의 연계"를 주문했다.

조동섭 기자

단순한 석가탑, 화려한 다보탑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

석가탑은 부처, 다보탑은 중생을 상징해

불국사 석가탑의 단순함은 남성미, 다보탑의 화려함은 여성미를 강조한다고 배웠다. 이들의 비밀(?)을 조금 더 아는 이는 불국사에는 화엄과 법화의 교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주목해왔다. 석가탑과 다보탑으로 대표되는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건축적 요소와 유물 등이 '화엄에 입각한 붓다의 존엄성'과 '법화에 의한 중생의 접근'이라는 요지의 연구가 발표돼 석가탑과 다보탑이 궁금했던 사람들의 의문이 풀리게 됐다.

한국종교학회 학술대회에서 염중섭(동국대 강사)씨는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이중구조에 관한 고찰'을 통해 화엄과 법화의 교리 구조를 밝혔다. 염씨에 따르면 "석가탑과 다보탑은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법화 사상적 가치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그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의미를 <법화경>의 '견보탑품'에서 구했다. "석가모니불의 꾸밈없는 단출함이 석가탑의 의연하고 고고한 자태"라는 염씨는, "다보탑은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한 뒤 상주함을 증명키 위해 땅 속에서 솟아오른 탑"이라 설명했다.

"화엄이 원융적 세계관을 주장한다면 법화는 일불승(一佛乘)에 근거한 모든 중생의 성불수기를 상징한다"는 염씨는 석가탑, 다보탑이 위치한 불국사 대웅전 영역은 "화엄에 의해서는 국토의 통일(기세적 원융)을, 법화에 의해서는 백성의 통일(중생세간적인 균제화)을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운교 · 백운교, 수미범종각과 (대웅전 안의 붓다를 모신) 수미단, 신중단과 화엄성중을 화엄으로 해석했다. 법화로는 석가탑, 다보탑, 대웅전과 영산회상도를 풀이함으로써 불국사가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임을 증명했다. 불국사가 상징하는 화엄과 법화의 이중성이 화해와 평등을 넘어 불국정토로 통섭됐다는 염씨는 이것을 "이이일(二而一)하며 일이이(一而二)하다"고 정리했다.

조동섭 기자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행자) 모집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당선원, 琪 무사암 주지)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중 앙 불 교 대 학 원

군종영화 '마누샤' 시사회 수기사에서 열려

"제 상황과 비슷해 공감가요"



12월 17일 오후 4시 경기도 가평 수도기계화사단(이하 수기사) 사령부 맹호교육관 2층. 500여 장병들과 장교들이 조용히 앉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장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자 잠시 후 교육관 안에 불이 꺼졌다. 국방부 최초의 외주 제작 군종영화인 '마누샤' 공개 시사회가 시작됐다.



'마누샤'는 인도어로 '사람'을 뜻한다. 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의문하고 갈등하는 존재를 표현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겪는 고뇌 쉬인 갈등과 의문들에 대해 불교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번 영화 제작의도다. 젊은 나이에 군에 들어가 금욕하며 다소 제한된 생활을 해야 하는 장병들의 현실에 맞게 구성됐다.

'마누샤'는 한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이복형제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화해가 주된 줄거리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세 남매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겪는 문제들이 성장하면서까지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남아 서로를 괴롭힌다.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갑작스런 여동생의 죽음으로 서재식 일병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마저 빼앗겼다. 설상가상으로 형(소대장)과 남동생(서재식 일병)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별하게 된다.

특히 서 일병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분노와 여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방황하다가 군대까지 와서도 몽유병 환자 증세를 보이는 등 문제병사로 낙인찍혀 주변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배치 받은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있는 이복형을 우연히 만나지만,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풀릴 줄 모르고 더욱 증폭돼 간다.

60분량 제작비 1억8500만원 처음으로 외주 제작사 제작

하지만 군법사의 도움과 이복형의 노력으로 서 일병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내용이었다.

영화가 상영되는 60분 동안 교육관 곳곳에서 폭소가 간간히 터져 나왔다. 영화 내용이 웃기는 장면이 아닌데 이상해서 그 연유를 물어보니 고개가 끄덕여 졌다. 이번 영화의 80% 이상을 이곳 수기사에서 실제 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촬영했는데 안면이 있는 동료가 심각한 역으로 나오니까 웃음이 폭발한 것이다.

내용 자체는 다소 진부했지만 스토리 전개와 주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뒷받침돼서인지 지루하다는 느낌은 덜 들었다. 그래서일까? 영화관에서 자주 목격되는 조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시사회를 끝마친 병사들의 반응은 저마다 제각각이었다.

"내용이 제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아 공감이 갑니다." "조연으로 나온 정다혜가 역시 제일 이쁘네요." "형제가 같은 부대에 있다는 설정이 조금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찍어서인지 배경이 눈에 익어 한결 친근감이 듭니다." 등등.

지난 9월 크랭크 인 때부터 한달동안 영화 제작 현장을 지켜 본 이익수 법사(수기사 법당 호국연호사 주지)는 "이곳 수기사는 국군 최초의 창설부대이자 최초 해외 파병부대 등 우리나라 국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력들이 많아 제작사 측에서 촬영지로 선택하게 된 것 같다"며 "기존 국방홍보원이 제작하던 관행을 벗어나 일반 영화 제작사(코리아인터미디어)가 맡아 정형화된 모습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군종영화는 매년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개 종교가 돌아가면서 제작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가톨릭에 이어, 2006년은 개신교편이 촬영됐으므로, 올해는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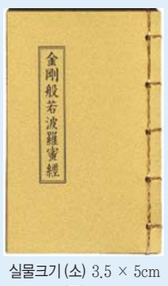
이번 영화는 지난 5월부터 시나리오 집필에 들어가 9월부터 촬영을 시작, 지난 11월 29일 완성돼 국방부에서 첫 시사회를 가졌다. VTR 60분물로 총제작비가 1억 8500만원이 투입됐다. 나경민, 정재곤, 정호근, 정다혜 등 이렇다할 특출한 스타는 없었지만 국방부 시사회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진철 코리아인터미디어 제작이사는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활동하면서 탄탄한 연기경력을 쌓아온 배우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특히 이번 군종법사들이 철저하게 감수를 해 줘 종교적인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사회를 지켜본 일면 군종교구장 스님은 "군종 영화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줄은 몰랐다"며 "불교를 직접 내세우지 않더라도 보는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내용이 곳곳에 스며있어 종교가 다른 장병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가평=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용 상량의식 불사식 소장용 영가사용 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일 주 문



한국NGO해외봉사단 모집
지구촌공생회 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2008년도 한국NGO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 접수 마감은 12월 31일까지.(02)455-9596



석조약사여래 점안법회
대성사 회주 도문 스님은 12월 15일 자운대 의무부대 호국 약천사에서 열린 '석조약사여래불 점안법회 겸 윤종필 장군 전역 환송법회'에서 증명법사로 법문했다.



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정부 표창
수효사 주지 무구 스님은 12월 18일 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우수시설로 평가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원장 동옥 스님은 12월 17일, 서울시가 실시한 2007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 받았다.



5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회장은 1월 2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02)738-3385

정법회거사림 캄보디아 봉사



정법회거사림이 창립 42주년을 맞아 캄보디아에 자비의 손길을 보냈다.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성금과 지원을 받아 11월 30일부터 5박 6일간 남두희 회장과 18명의 회원이 쿰푸룸 새록과 크나르위어 빌리지에 24개, 경찰 파출소에 1개의 우물을 개발해 준공 및 기증식에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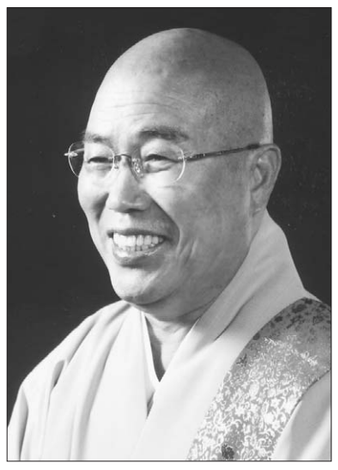
화촉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장원실 연구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설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장원실 연구원은 12월 23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파인웨딩홀에서 신랑 김민재씨와 화촉을 밝혔다.

축하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명예회장 희수연**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백창기 명예회장의 희수를 맞아 12월 23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희수연을 열었다. 백창기 회장은 1997년 회장에 취임, 2004년 신도회 통합을 이끄는 등 10년 동안 중앙신도회의 내실을 다지는데 힘써왔다.

"종도 교육 등 인재양성에 매진할 터"

총화종 유지재단 설립 선포식 개최하는 남정 스님

"창종 50주년을 맞은 총화종이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은 불교계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단의 재정과 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군소종단의 모범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내년 1월 19일 오후 4시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한국불교 총화종 재단법인 설립 선포식'을 갖는 남정 스님(총화종 총무원장 · 사진)은 재단법인 설립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 8월 2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남정 스님은 "종단의 숙원이자 총무원장 개인의 염원이었던 재단을 설립하고 불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총화종 스님들이 무소유를 실천하고 불교계 인재 양성에 힘써 종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 스님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현재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총본산 남양주 수진사를 비롯해 서울 창신동과 제주도에 있는 종교 부지 등 개인 재산 일체(370억원 규모)를 재단에 귀속시켰다.

스님은 우선 재단의 첫 사업으로 내년 2월부터 수진사 옆에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교육관을 설립한다.

현재 설계가 시작된 교육관에서는 기본교리와 복지에 대한 과목을 신설해 상설 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유치원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에 300평 규모의 포교당을 세울 생각이다. 한편 남정 스님은 내년 1월 초 그동안 각종 법회에서 법문한 내용들을 한데 묶은 법문집 <천마산 원음>도 발간한다. **김주일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제3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제3차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 발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격년제로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03년과 2005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발표된 108인에는 부름의 전화 김정희 대표, 탤런트 김혜연씨, 탤런트 김혜옥씨,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김휘연 부장, 월간불광 남동화 편집장, 부산 (주)용원레미콘 박풍자 대표이사, 화가 방혜자씨, 탤런트 선우용녀씨, 탤런트 엄앵란씨, 동국대 역경원 이미령 역경위원, 조계종 자원봉사단 한마음팀 이영례 팀장, 탤런트 전원주씨, 전국교육경영직 불자연합회(푸루나) 진정순 회장, 인천중앙병원 신경정신과 피상순 과장, 봉은사 황남수 수석부회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포교신행분야 김석 조계사 신도(82세)와 교육연구분야 성균관 이윤정 전례연구위원(54), 사회복지 분야 이영호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45)은 모녀, 자매 사이여서 눈길을 끈다.

여성불자 선정은 지난 1월부터 교계 주요단체 및 사찰, 본원 임원과 제1,2차 여성불자 108인에 추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들로부터 송부된 추천서와 최근 2년간 언론에 보도된 여성불자들에 관한 자료를 취합, 10월부터는 세 차례에 걸친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108인이 선정됐다.<108인 명단은 붓다뉴스에서 확인> **김강진 기자**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대표의장 장형준)는 12월 15~16일 양일간 제주 파크랜드펜션에서 '종교와 정치'를 주제로 '제11회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각 종교계 언론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영훈 한영신학대 총장이 '종교와 정치'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한 총장은 "현대사회에서 종교와 정치는 결코 무관할 수 없다"며 "종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정치와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바른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참여할 때 정치적 또는 경제적 민주화와 함께 정치인들의 도덕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김주일 기자**

'세상을 밝게 만드는 100인'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 · 사진 위)과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사진 아래)이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으로 선정됐다.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은 환경재단(대표 최열)이 한 해 동안 사회에 헌신하고 새로운 것에 항상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준 인물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기획된 상으로 2005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 각 분야에서 71명이 선정됐으며, 종교인으로서는 수경 스님과 명진 스님 외에 김기석 목사, 방상복 신부가 뽑혔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수경 스님에 대해 "2000년 6월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을 계기로 범불교연대 상임대표 등을 맡아 사회 및 환경운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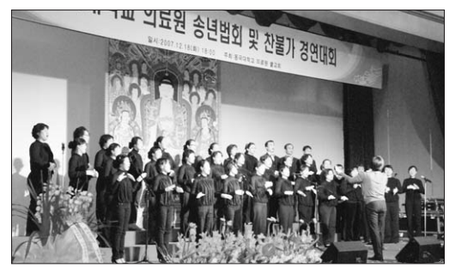
또한 명진 스님에 대해서도 "서울 강남의 대표적 사찰인 봉은사 주지로 재임하며 재정 상태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찰 재정의 투명화 운동을 범종교계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화엄조계종 창종 대법회



화엄조계종은 12월 14일 대전 쌍청회관 대연회장에서 '창종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창종주 혜상 스님은 창종 선언문을 통해 "대립과 반목으로 분열되고 종교적인 가치관의 혼돈이 내재된 시대에, 대승적 평등사상을 이 세상에 구현해, 자리이타의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화엄사상이야말로 시대적 요구임을 확신해 창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청운경남부지사장**

동대의료원 불교회 '찬불가 경연대회'



동국대학교 의료원 불교회는 12월 19일 경주 보문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송년법회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규춘 경주포항병원장과 김장현 경주한방병원장,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을 비롯한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찬불가 경연대회에는 경주병원 12팀, 포항병원 4팀, 경주한방병원 1팀 등 총 17팀 400여 명의 교직원이 참가했다. **여수령 기자**

불교문인협회 광주전남지부 사무실 개소식



한국불교문인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상호)가 12월 18일 광주불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상호 지부장은 "한사람의 불자로써 정진하는 마음을 글로 담고 싶다"고 인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륜사, 특별합동천도재 봉행



부산 법륜사(주지 선래)가 관음원 무량수요양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위해 극락전에서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선래 스님은 "어르신들이 무량수 요양원 가족이 되어 늦게나마 부처님을 만나게 돼 다행이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디지털마이크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각종 마이크 시스템(에코가능)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수행, 날개를 달다
이 몸을 선창에 맡긴지 50여 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네.
돌아다보니 구하고 채우고에 동분서주하느라
발밑도 못 밝히고 심전(心田)에 여수(旅愁)만 더 했네.
이제 겨우 철들어 서둘러 병촉을 들었으나
가을이 다 갔는데 잔화가 난만한들 얼마나 견디겠나?
고요한 밤이면 깊은 생각에 더욱 잠 못 이루는
누가 있어 뼛속을 파고드는 이 통한을 알겠는가?
내 이제 몸을 태산처럼 하여 일체의 왕래를 끊고
날마다 청계에 나가 숙진을 씻어 내면서
눈,귀,입 막는 그러한 수행으로 잔년을 다스려서
빈 배로 소요하는 이런 것으로 선락을 삼을 것이다.
- 본문중에서
각암 성원(覺庵 性元)스님
· 1928년 출생 · 1958년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서 출가
· 1959년 부산 범어사 동산대종사 문하에 입문
· 1961년 부산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비구계 수지 이후 1988년 까지 30년 간 종무에 종사
· 1988년 - 2006년 제방선방 또는 난야 등지에서 약20년 간 수선안거 성만
· 2007년 현재 남해 화방난야에서 안거 중
*본 [수행, 날개를 달다]는 여기 화방난야에서 안거 중에 엮은 것이다.
신국판 381P
가격 10,000원
각암 성원 역음
■ 구입처 02)2004-8247 종로구 안국동 175-87 현대불교신문

불교는 '마음 다스리는 과학'

해외불교칼럼



명상 · 참선 등의 불교수행법이 심리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불자들의 수행 장면. <현대불교자료사진>

한해가 저물어 가면 누구나 얼마간 들뜨게 마련이며 또 다른 한 모퉁이에선 뭔가 놓치고 잃어가는 듯 야릇한 스산함에 피로감마저 겹치기도 한다. 이는 어느 곳에서나 크게 다를 바 없나보다.

연말이 가까워진 얼마 전 '오늘의 명상'이란 불교법문을 전하는 영국의 BBC라디오 4국은 '그대, 그대만의'란 만성피로증후군 관련 특집프로그램을 진행, 청취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의학적 원인이 불확실한데도 극도의 피로감이 지속되어 사고력저하, 고독감, 우울증 등으로 이어지는 이 질환은 1980년대 중반 에이즈와 유사한 바이러스 감염의 면역이상으로 간주되어 제2의 에이즈라 불렸다. 미국방역센터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심한 피로, 미열, 목의 통증, 관절통, 근력저하, 두통, 착란, 기억상실, 시각장애, 수면장애 중 8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단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모호한데다 간혹 우울증이나 갱년기장애로도 판단됨으로 독립된 병으로 인정되진 못한다. 초기 환자에게는 의료조치와 아울러 참선수행이 큰 효과를 거둔다. 이처럼 불교가 초조, 불안, 증오, 망상, 스트레스, 폐쇄공포증, 집단히스테리와 같은 정신심리질환의 예방과 치유에 임상적으로 활용되는 건 서구사회에서 보편화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런 연유로 인해 달라이 라마는 불교가 종교라기보다는 '마음의 과학(Science of Mind)'이라 설했는지도 모른다. 다음의 글은 심리치유봉사를 하는 영국의 한 비구니스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쉽고도 고운 얘기다.

"캘리포니아 샤스타사원의 케너트 은사스님 아래서 공부를 하던 나는 1986년 가족재회휴가를 얻어 오랜만에 영국으로 돌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선데이지에서 처음으로 만성피로증후군에 관한 기사를 읽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증상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게 없어 그냥 로열프리 병이라 부르더군요. 이 괴질이 1955년 런던의 로열프리병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증상을 마음의 병이라 해서 그저 심인성 질환으로 돌리기도 하나 봐요. 그때 풋내기 행자이던 나는 이 이상하고 끔찍한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는 분들과 괴로운 길을 함께 가며 거들어드리기로 했어요. 그 후 해를 거듭할수록 이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해드릴 일이 참 많았어요. 그 분들이 겪는 정신적이며 감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며 치러야하는 육체적 시련을 지켜보자면 늘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를 하고파 하면 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간혹 차를 운전할 때 그 분들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 내게 이런저런 얘기를 줄곧 걸어와도 아, 네, 그래요? 정도의 맞장구는 쳐주지만 사실 때론 서로 좀 지치기도 하죠. 혹시 이것도 만성피로증후군일까요?" 편역:성휴 스님

필자:뮤고 스님, 영국의 어느 사찰에 사는 비구니로만 자신을 밝히고 있다. 타이틀은 '깨어나세요, 벗어나 걸으세요, 그리곤 잊으세요.'

"神 존재 의심…" 테레사 수녀 서신집 큰 파장

유명 시사평론가 "위선자" 혹평도

故 테레사 수녀의 서신집 '마더 테레사, 내 빛으로 임하소서'가 지난 9월 출간된 이래 그 파장이 점차 커져간다. 발췌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수녀서원 후 5년 간, 또 1959년 적어도 수주일 간 예수의 존재를 믿지 못했고 신의 존재 역시 의심했음을 실토했다.

타임지는 토픽 '마더 테레사, 신앙의 위기'에서 그녀의 40여 개 서신들은 그녀가 약 50년 간 신의 존재를 불신했음을 입증한다고 보도했다.

1990년 그녀는 자신이 개입한 인도의 고아원 아동들을 기독교가정에만 입양시킴으로써 인도는 물론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저명한 시사인물평론가 크리스토퍼 히천스는 그녀를 '캘커타의 성자'가 아닌 '캘커타의 송장 파먹는 아귀(Ghoul of Calcutta)'라 명명, 1994년 11월 방영된 영국의 채널4에서 관련다큐멘터리 '지옥의 천사(Hell's Angel, Youtube.com)'의 대본과 해설을 직접 맡은데 이어, 1997년 저서 <선교의 자세; 마더 테레사의 이론과 실체>에서 그녀를 저열한 독재자, 속물사업가들과 어울리며 기부금이나 챙기는 소름끼치는 사기성 위선자로 기술했다.

그는 막대한 기부금을 본래 취지인 의료교육시설보다는 150개국의 수도원 설립 등에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테레사 수녀가 일종의 컬트 수괴며, 빈곤퇴치와 여성지위향상에 극히 냉소적이었음도 그녀 자신의 발언과 실례를 들어 낱낱이 지적했다. 또한 이 책은 노벨평화상수상자이자 가톨릭성인복자반열에 오른 그녀의 광신도적 편집증을 폭로, 특히 죽어가는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도 이른바 '예수의 고통에 동참시키고자' 진통제 등을 주지 않았던 변태적 가학성 인물이라 혹평했다.

그녀를 '성자의 가면을 쓴 정치적 기회주의자'로 단정한 그의 냉엄한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이 서신집은 그녀의 놀라운 인격 장애에 대한 논란거리로 충분하다. 서신마다 나열된 그녀의 절망감에 대해 독자들은 연민을 금치 못하는 한편, 일부 종교계는 '영적 고뇌'라는 초조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둘러댄다.

출처 : CBS, TIME, BBC, SLATE

♣알림: 지난 658호 해외불교칼럼 본문 중 '아랍어'는 '아람어'로,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의 제목은 'worse than a clown—광대보다 어리석은 녀석'으로 바로잡습니다.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끝>

지구촌 아이들 위한 자비공덕 실현



불우 청소년 돕는 장학재단 설립

인성·잠재력 개발 교육기회 제공

유치원에 들어간 첫날 나무에 묶여 원숭이, 깜둥이라 놀림을 당했던 그 꼬마 붓다는 그로부터 18년 남짓 지난 1996년 마침내 타이거우즈재단이라는 세계적 거대 자비기구를 설립했다.

본디 불우청소년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새워진 이 재단은 이제 대학장학금 지급과 각종 의료기관 후원 등으로 확장발전을 거듭한다. 또한 그의 재정지원으로 2005년 문을 연 타이거우즈학습센터는 '뭔가 시작하자!(Start Something!)'라는 역동적인 슬로건 아래 인성 및 잠재력개발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성장기청소년들에 대한 과학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엷은 붓다의 미소를 띠우며 자신의 뜻을 담담하게 밝혔다. "지구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꿈을 이루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매년 약 천만 달러의 추가기금을 조성하는 타이거 잼이란 연례콘서트는 스팅, 존 본 조비 등 할리우드의 기라성 같은 대스타들이 앞장서 이끌어왔다.

게다가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캐디인 스티브 윌리엄즈가 불우청소년 지원재단 설립을 기획하자 2006년 4월 본인이 직접 자동차경주대회에 출전하여 그 우승상금을 희사하며 격려했다. 그는 금년 12월 5일 캘리포니아 박물관의 '명예의 전당'에 영광스런 이름을 남김으로써 지난 반생에 대한 세인의 중간평가를 받은 셈이다.

한편 <타이거 길들이기>, <타이거와 함께한 큰 꿈과 큰 모험> 등 타이거 우즈의 성장교육과정을 책으로 펴냈던 그의 부친 얼 우즈는 8년 넘게 암과 투병 끝에 작년에 타계했다. 그는 생전에 아들 타이거 우즈가 쌓아가는 자비공덕에 대해 누구보다도 큰 격려를 해줬다.

"내 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넓고 잔잔하게 자비를 실천할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선택된 사람이지요. 우리 타이거는 여러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참된 인간적 업적을 남길 겁니다."

이는 또한 얼 우즈 자신이 늘 꿈꾸던 니르바나였으리라. 그릇됨과 삿됨을 과감히 뿌리치는 '극기와 절제', 또한 나의 덜됨과 모자람을 채우고자 스스로 채찍질하는 '노력과 정진', 그리고 남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껴안아주는 '자비와 배려', 이것이 곧 우리 불제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자 이상이다.

그 모두를 함께 가르치신 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의 멋진 삶을 지켜보며 붓다 세존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하나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 하여
그 촛불의 삶이 줄어들지 아니하듯
행복과 기쁨 또한 남들과 나눈다 하여
줄거나 작아지지 아니함이라

성휴 스님

쉽게 영어로 읽는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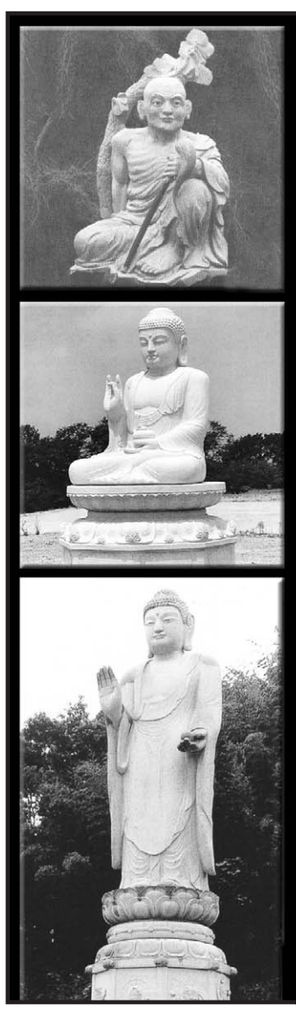
Miracle, such a silly to play

—기적이란 진짜 웃기는 재롱이죠.

Three young monks meditated together sitting by a lake. Then suddenly, the first one stood up saying, "I forgot my mat!" And without any hesitation, he steeped onto the water and walked across the lake to their hut on the other side. When he returned, the second monk stood up saying, "I forgot to put my underwear to dry." And he calmly did the same way. The third monk thought they are testing his abilities. "Is your learning so superior to mine? I can even run across the lake!" he yelled rushing to the lake but fell into the water. Undeterred, he climbed out of the water and tried over again only to sink into the water. Finally, he gasped heavily with his stomach full of water. Now the other two monks giggled, "Should we tell him where our miracle stones are hidden?" "Or not?" .

젊은 스님 셋이 호숫가에 앉아 참선을 했다. 근데 갑자기 한 스님이 "어, 내 방석을 안 갖고 왔네!"하며 일어섰다. 그리곤 그대로 호수에 발을 내딛더니 물위를 슥슥 걸어서 건너편 토굴로 갔다. 그가 돌아오자 또 다른 스님이 "내 속옷을 말려야 되는데 깜박했군."하고 일어서더니 또 물위를 걸어 느긋하게 다녀왔다. 그들이 자기를 시험하는 걸로 여긴 세 번째 스님이 "야, 니들 내공이 나보다 앞섰단 거야? 난 물위로 달려갈 수도 있어!"악을 쓰며 호수로 돌진했지만 풍덩 빠지고 말았다. 그래도 씩씩하게 호수에서 기어 올라와 몇 번이고 풍덩 꼬르륵하더니 나중엔 배속에 물이 잔뜩 들어차 헉헉댔다. 그러자 두 스님이 킬킬거렸다. "저 친구한테 우리 기적의 돌들이 어디어디 숨겨졌나 말해줄까?" "말까?"

번안:성휴 스님



가람석공예

사찰공사 전문업체(석불, 석탑, 석등, 부도) · 익산 마한 거사림 회원

대표 도관 김용암
문화재 보수 기능사 제 2265호

▶주요 시공 실적
· 익산 여산 백운사 부처님 진신사리탑
· 영천 수도사 약사여래 삼존불
· 군위 법주사 대웅전 석공사
· 곤지정사 대웅전 석공사
· 옥천 대림선원 약사대불
· 전주 선린사 인봉스님 부도탑
· 전주 보문사 3층석탑
· 군산 백운사 약사여래불
· 공주 원효사 부도탑
· 보성 월림사 7층석탑 보수

익산시 여산면 백운사 내 부처님 진신사리탑 조성
◇석가모니사리탑 : 48자 ◇아난존자사리탑 : 37자 ◇사라불존자탑 : 37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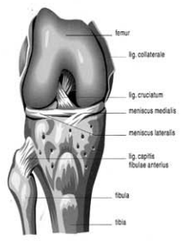
전북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 842-21
공방 063)861-6191 / Fax 063)861-6193 / H·P 011-683-6646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 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수행시 버려야 할 '사종사명식'

걸식행하면 네 종류 '삿된 생활' 피할 수 있어

三者若多寒國土 及忍力未成之者 如來亦許三衣之外 畜百一等物 而要須說淨 知量知足 若過貪求積聚 則心亂妨道

여기에서는 하품인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며 추운기간이 길다. 그러므로 일년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열대지방과는 살아가는 방식과 여건이 똑같을 수가 없다. 때문에 여래께서 특별히 방편문을 열어 추운 지방에서는 세 벌의 옷 이외에 축적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단 백가지 물건에 한정해서 갖도록 하였다.

백가지의 물건은 각자 다르므로 각자의 물건을 가질 때마다 물건의 유래처가 청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된다. 이 청정함을 이야기하는 법은 근래에는 시행하는 자가 없으나 부처님 재세시엔 모든 제자들이 소유한 물건은 반드시 청정하다는 것을 설하게 했다.

"이 물건은 삼보대중께 공양을 올리오니 자비의 마음으로 거두어 주소서."

이와 같이 청하고 나서 발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것은 대중에게 하사를 받은 물건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며 자기에게 소속된 것도 아니다. 이것을 설정(說淨)이라고 말한다. 만일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는데 그것을 청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물건의 한정됨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설사 지극히 보잘 것 없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나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양을 조절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지 지나치게 탐욕심으로 구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않고 물건을 끝없이 쌓아만 두고 희사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미혹으로 혼란하여 도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次食法有四種 一者若上人大士 深山絶世 草果隨時 得資身者

이상으로 의복문제는 모두 끝내고 지금부터는 음식문제에 대해 밝혀보기로 한다.

음식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상근인의 음식인데, 상근인은 일반세상사람과 함께 거처하기를 원하지 않고 석굴이나 물가 또는 숲속에 안주하기를 원한다. 그 때문에 깊은 산속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이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주리고 5일 동안 먹지 않으면 병이 들고 7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상근인은 초목이나 과일로 음식을 대신한다. 예를 들면 세존이 전생에 고행을 할 때 스스로 음식을 만들지 않고 하루에 삼씨 한 알과 보리 한 알로 음식을 대신하였다 했는데 이것이 상근인의 음식이다.

二者常行頭陀受乞食法 是乞食法 能破四種邪命 依正命自活 能生聖道故 邪命自活者 一下口食 二仰口食 三維口食 四方口食 邪命之相 如舍利弗爲靑目女說

두 번째는 중근인의 음식이다. 중근인은 항상 두타행을 실천하여 걸식법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탁발걸식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자비의 마음으로 걸식을 행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하여 그들이 복을 짓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걸식법은 인도나 남방에서만 성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기후풍토상 걸식하는 가풍이 정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행하기가 어렵다.

걸식을 행하면 네 종류의 삿된 생활, 즉 사종사명식(四種邪命食)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사명식' 은 잘못된 생활방식을 말한다.

첫째 하구식(下口食)은 입을 아래로 낮추어 먹는 음식을 말한다. 가령 자기의 전답에 경작을 하여 개인적인 생활을 도모한다면 이것을 두고 '하구사명식' 즉 입을 오로지 땅으로만 낮추어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

둘째 앙구식(仰口食)은 하늘을 우러러 별을 관찰함으로써 천문을 살피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큰 바람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큰비가 내린다든가 하는 말을 예언하여 세상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함으로써 이를 방편으로 하여 생활하는 방식을 말한다.

셋째 유구식(維口食)은 갖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이 있을 만한 곳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음식과 재물을 도모한다. 때문에 유구식이라고 말한다.

넷째 방구식(方口食)은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길흉을 점치고 또는 의원노릇을 하거나 관상을 보면서 실제로 자기의 입을 봉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가비구는 불법을 크게 선양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으로 자기의 본분을 삼아야 한다. 이를 두고 옛날 큰스님은 "법을 크게 선양하는 것이 불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중생 제도하는 일이 그 사업이다"라고 하였는데 진정한 불자라면 네 가지 '사명식' 은 반드시 멀리 버려야만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 생활하는 모습은 이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여 이상에서 열거한 것처럼 네 종류도 있고 다섯 종류도 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 예는 사리불존자께서 청목녀에서 설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三者阿蘭若處 檀越送食 四者 於僧中潔淨食 有此等食緣具足 名衣食具足 何以故 無此等緣則心不安穩 於道有妨

이상 두 종류의 음식은 상근기 · 중근기의 음식이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청정한 아란야처, 즉 적정처 한곳에 일정하게 안주하면서 스스로 음식을 지어먹지 않고 신도가 보내주는 음식만을 받아먹는 것을 하품인의 음식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스님대중들이 먹는 청결한 음식이다. 이는 많은 스님들이 함께 모여 사는 총림가운데서 제법(齊法), 즉 법공양을 엄숙히 행하는 청결한 음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총림선방에서 행하는 대중발우공양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 한 발우의 적은 음식일지라도 시방삼보 내지는 모든 금수와 광야에 떠도는 귀신들에게까지 공양을 올린다. 그런 뒤에야 이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이미 시방삼보와 모든 귀신들까지 공양하고 남은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음식을 앉아서 받아먹는다 해도 아상(我相)이 없게 된다. 때문에 청결한 음식이라고 하며 이것을 두고 최하 가운데 최하품의 음식이라고 한다.

총림에 안주하면서 손가락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어떤 일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먹는 이러한 등등의 음식까지도 모두 구족해야만 의복과 음식이 구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관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음식이 없다면 우선 마음이 안온하지 못하여 도업을 닦는데 방해가 된다. 때문에 "몸이 편안해야만 도가 일어난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만족하게 갖추는 일은 지관수행을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의심(疑心)

의심(疑心)은 무언가 확신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란 진실한 이치에 대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일으키지 않고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해 항상 머뭇거리면서 미혹과 혼란이 계속되는 상태가 그 자체의 성질입니다.

이처럼 의심은 옳다고 믿는 마음과 이해가 확고하지 못하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악법은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선법은 새롭게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질곡(桎梏)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의심의 특징적인 현실작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평소에 의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은 설사 훌륭한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서 그에게 올바른 선법(善法)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해도 진실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괴로움의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의혹으로 혼란스러울 뿐, 끝내 올바른 지혜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의심 많은 사람은 진실을 미혹
올바른 지혜가 일어날 수 없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득해야 할 성스러운 도가 진실이기는 하지만, 진실을 얻는 데는 실천하기 힘든 숱한 고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진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지극히 소소한 이익에는 쉽게 접근하고, 원대하고 희귀한 공덕은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모두는 평소에 익숙한, 천박한 견해에 안주하여 정작 진실은 선택하지 못하는 의심에서 비롯한 허물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단지 출세간의 무루성도(無漏聖道)만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간의 유루선법(有漏善法)까지도 아예 닦지 않기 때문에 목전의 이익만을 전일하게 추구할 뿐입니다. 가령 이런 사람이 공직에 재직해 있으면 사심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공익심이 털끝만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리사욕만 챙기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복지부동하면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써 유추한다면 망국패가의 병통이 의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심은 반드시 버려야만 할 커다란 미혹입니다. ■정리=張如舟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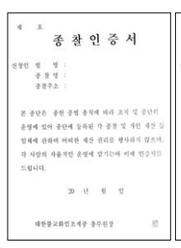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창종주 054)632-2799
총 무 031)883-1506~7
011-338-1521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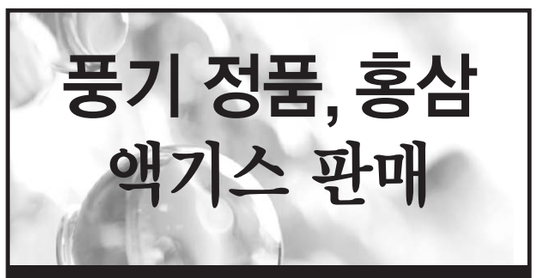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8년 1월 19일 – 1월 25일(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월 19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월 25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방한쇼울,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풍기 정품, 홍삼 액기스 판매



100ml×60포(한달분)
회원가입(6개월,1년) 우대할인

전 화 054)634-3429
휴대폰 011-9373-3778
E-Mail : pay3579@hanmail.net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
(예금주 : 박영애)

누구나 판매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원가로 공급해드리고
생활고 보장

백만원으로 대리점운영
전국선착순

당뇨병, 각종 암환자분께는
특혜드림



2008학년도
신입생(대안·위탁)모집

고등과정 (학력인정)
■ 3년제 : 중학교 졸업자
■ 2년제 : 성인 단기 졸업과정
(불교음악, 불교미술 전공)
•학령기를 놓치신 20세 이상 주부 및 기타
•중도 포기 학생 (전 · 편입) 가능

중등과정
■ 청소년, 일반 : 2년 단기과정

▶ 기숙사 생활 가능 ◀

모집기간 : 2007. 12월 ~ 2008. 1월 한함
모집인원 : 00명
입학원서 : 홈페이지 '입학자료실' 에 탑재

문의 · 상담 : 055)583-6300
010-7770-9290 (행정실)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124번지 (미륵사 내)
홈페이지 www.yeun.sc.kr

학력인정 연꽃자유고등학교장

선지식을 찾아서



월파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문수사 주지)

월파 스님은 1952년 통도사 김구하 스님을 은사로 15세에 출가하여 사미계를 수지, 1968년 윤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0년 통도사 승가대학(강원) 졸업.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월하 스님을 표충사에서는 효봉 스님을 모시고 공부한 것을 비롯하여 30안거 성만. 1990년 통도사 총무국장, 1992년 통도사 부주지, 1996년 통도사 주지 역임. 현재는 문수사 주지이며, 2007년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에 추대되었다.

“바다같이, 소나무같이 변함없는 신심 가져야”

“수행자가 올바른 길 걷는 것이 최상의 포교”
문수산 오가는 등산객에 따뜻한 식사 공양도

문수사로 가는 길은 아득하였다. 가파른 산등성이를 몇 굽이나 돌았는지 모르겠다. 산을 오르면서 자장 율사가 이곳에 토굴을 짓고 수행에 전념한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산 정상이 가까워지자, 하늘을 날고 있는 까마귀 떼들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뒤덮던 인도의 영취산이 생각났다.

월파 스님(선진 스님)은 소학교 때 어떤 노인에게 손금을 보니 앞으로 절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였다. 통도사에서 15세에 동진 출가하여 오랜 세월동안 월하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였다. 월파 스님이라고 하면 통도사를 떠올릴 만큼 통도사에서 잔뼈가 굵었고 통도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사람들은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곧 부처님입니다. 눈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합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옷을 입으려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옷을 입으려합니다. 이것은 다 눈이 들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욕심에서 병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원수가 생깁니다. 욕심을 끊으면 광명여래부처님이 됩니다. 둘째는 귀가 부처님입니다.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귀가 부리는 욕심을 버리면 성문여래부처님이 됩니다. 셋째는 코가 부처님이라. 좋은 향기 맡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나쁜 향기를 맡으면 짜증이 나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에 의해 좌우되는 욕심을 버리면 향적여래부처님이 됩니다. 넷째는 입이 또 부처님입니다. 입이 걱정과 시비와 탐심과 원수를 만듭니다. 입이 욕심을 버리면 법희여래부처님이 됩니다. 다섯째는 몸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혀야 하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혀야 하고 우리는 몸의 시중을 잘 들어줍니다. 몸이 부리는 욕심을 버리면 부동광여래부처님이 됩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마음이 들어서 온갖 파장을 만들어 냅니다. 때로는 우울증까지도 만듭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감정과 번뇌를 만드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비로자나부처님이 됩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여섯 도적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쓰면 여섯 부처가 된다고 하니 이 한 몸이 때로는 도적의 소굴이 되는가 하면 때로는 향내음 그득한 법당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어느 절 부처님이 영험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달려가고 어디 미륵불이 소원 성취해 준다면서 우르르 몰려다니기 일쑤다. 이런 현상에 대해 월파 스님은 자신이 여섯 부처님을 모시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스스로가 마음을 잘 쓰고 진리를 알 때 부처가 보이는 것이지, 자신이 어리석게 산다면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성인이 옆에 있어도 알 수가 없단다.

“자신을 관하다 보면 혜안이 밝아져 저절로 인과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천 번을 죽었다가 천 번을 만나는 인연으로 부모 자식간이 되고, 구백 번을 죽었다가 구백 번을 만나는 것으로 형제가 되고 팔백 번을 죽었다가 팔백 번을 만나야 부부지간이 됩니다. 이런 깊은 인연이 맺혀서 부부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는데 왜 욕심으로 시비하고 욕심으로 서로 헤어지고 욕심으로 원수를 맺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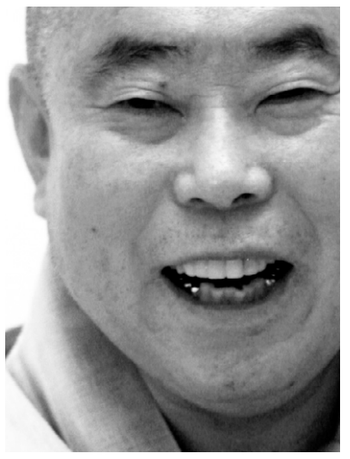
모두다 전생에 인연이 있어 만난 사람들이니 부처님으로 모셔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월파 스님은 절에 오는 것도 좋지만 집에 있는 가족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반찬을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족들의 식사를 정성들여 준비하는 것도 불공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월파 스님은 쉼 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서쪽을 향해 세 번 절하고 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인가’를 화두로 삼아서 좌선을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야심경>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에도 ‘하루를 잘 보냈는지, 사람다운 짓은 했는지’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면 참회를 해야 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이고 수행인 것이지 이것을 다른 곳에서 따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망상이고 번뇌입니다.”

자신이 그날 일과를 잘 마치고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도 진실로 기도를 잘한 것이라는 월파 스님의 법문은 가슴을 파고들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선행이라도 하는 것이 복 짓는 것이요 기도 하는 것이 된다고 하니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월파 스님의 법문은 거침없이 이어졌다. 절은 ‘나쁜 길을 가지 말고 나쁜 일 하지 말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말라’ 고 가르치는 교육장이기도 하다. 절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해야 하며, 법당이 아닌 가정과 사회가 복 짓는 도량이 되어야 한다. <유마경>의 한 구절을 빌린다면 ‘직심(直心)이 도량이요 보리심이 도량이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곳이 바로 도량이 되는 것’이다.

수행자로서 계율을 어기는 모습이라든가 수행자답지 못한 모습을 신도들에게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월파 스님의 철칙중 하나이다. 수행자가 올바른 길을 걷는 것만큼 좋은 포교는 없단다. 신도들 스스로 알아서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욱더 신심을 내게끔 만드는 것도 스님의 역할이라 생각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사시예불에 참석하고 있다. 사시예불에 오면 언제라도 주지스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월파 스님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월파 스님은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었고, 토굴에 불과한 법당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였다.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문수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월파 스님은 공양시간이면 사람들에게 꼭 공양 들고 가라는 따뜻한 말을 잊지 않는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데도 바닷물은 항상 푸르고 깨끗하듯이, 깊은 산의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조금도 변함없이 싫어함 없이 당당하게 산을 지키고 있듯이 불자라면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월파 스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을 부처님 공양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 온 스님의 일평생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계율과도 같은 회색빛 그 옷이 참으로 존엄하고 거룩해 보인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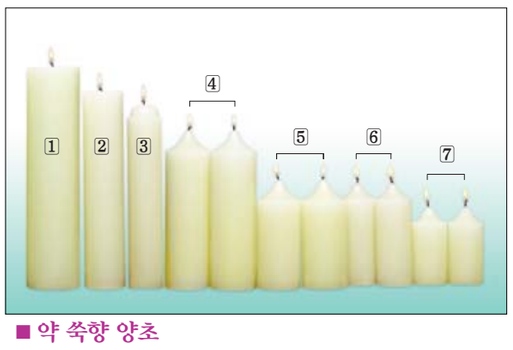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φCm × 29Cm
2 돈타레 5.6φCm × 27Cm
3 밀 대 4.7φCm × 25Cm
4 1호 5.9φCm × 20Cm
5 2호 5.9φCm × 14Cm
6 3호 4.7φCm × 13Cm
7 4호 4.7φCm ×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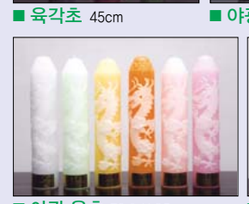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시와 선의 마음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세요”

데스크 초대석

카페 선림도량 운영 운거 스님

“자,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또한 원만무결하고 청정한 범행을 설하라.”

부처님은 전법(傳法)을 위해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고 했다. 그만큼 법을 전할 곳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부처님 당시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교통과 통신수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됐다. 그렇지만 전법을 할 곳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는 더 많은 길이 생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생각으로 살고 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욕망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할 곳은 점점 늘어만 간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상 뿐 아니라 가상의 세상, 사이버 세상으로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길이 있지 않은가? 인터넷 시대,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도 혼자 가며 법을 전해야 할 길이 수두룩하다. 인터넷 공간에 ‘카페’라는 형식의 법당을 짓고 전법의 땀을 흘리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포털사이트 ‘Daum’에 시(詩)의 향기와 선(禪)의 기상이 가득한 카페 ‘선림도량(cafe.daum.net/un geodaedosun)’을 열고 불자들에게 시심과 선심을 전하는 운거(雲居) 스님. 스님은 지리산 계곡의 성지골(하동군) 토굴에 살며 카페를 통해 전국의 불자들과 시와 선의 맛을 나누고 있다. 토굴을 거의 비우지 않는 운거 스님이 연말을 맞아 서울을 다녀갔다. 12월 17일 포이동 구룡사에서 10여명의 불자들과 시심불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카페 ‘선림도량’을 운영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포교를 위해서입니다. 법회와 의식을 위주로 하는 포교가 아니라 마음을 깨치는 포교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림도량은 시심과 선심을 둘이 아니게 하여 깨침의 문을 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는 좋은 시들을 가려 소개합니다. 시를 읽으면 자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시향의 마을, 시심의 텃밭, 시화 감상실, 아름다운 시 등 시를 주제로 하는 방과 대도선 법문, 대도선 실참, 시심선심의 길, 구름산방 등 선을 주제로 하는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심과 선심이 결국은 둘이 아니기에 누구나 ‘선림도량’에서 깨달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와 선이 하나이듯 모든 것이 둘 아니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깨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수행을 한다고 마음을 다잡아 세우는 것도 알고 보면 집착이고 욕심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초월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집착하거든요. 예를 들면,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이 조사들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이해했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견해 안에서 ‘심즉시불’을 이해한다고 자신의 마음이 불성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깨달아야 합니다. ‘심즉시불’이란 가르침 아래 그 이치를 깨우쳐야 하는 것이지 말과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면 안 됩니다. 언어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언어 이전의 언어, 다시 말해 진리의 원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시도 언어로써 표현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를 읽고 외우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그저 감성적인 변화에 머물 뿐 입니다.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것으로 깨달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한 구절의 시가 가르치는 그 궁극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알아듣는 정도로는 시심과 선심이 계합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계합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으신지요?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시를 가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그런 안목을 가진 분에게 의지해 좋은 시를 선정합니다. 열 편 정도면 적당할 것입니다. 선정된 시는 자신의 손으로 노트에 정성스럽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차근차근 읽어 가면서 이미지를 떠 올려 봅니다.(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선정된 시들의 세계를 마음에 그린다음 그 중 한 편을 마음의 여백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여유 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우주의 진리가 하나의 도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언어를 버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 언어라는 방편을 쓰는 것이군요.

그렇지만 자칫 방편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정진하는 마음과 행실이 한결같지 않으면 방편이라는 방에 갇혀서 꼼짝 못합니다. 더 큰 마장에 휘둘리어 죄만 짓게 되는 것이지요. 방편이라는 방은 언젠가 벽을 허물고 뛰쳐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 속에 오래 들어 앉아 새로운 하늘을 보려고 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불교는 대부분 방편이라는 방에 갇혀 있거든요. 관습과 허례허식이 최상인 줄 알고 그대로 좇아다니기 바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새로운 하늘, 새로운 진리의 세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시라는 것도 언어의 구조이지만 언어 이전의 원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음을 듣고 방편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방편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시는 어떤 시입니까?

우리 카페 ‘선림도량’은 문학 강연을 하는 곳도 시창작 교실 같은 곳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 주는 시들을 나누고 그를 통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곳이지요. 좋은 시란 사람의 마음을 맑고 순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지친 삶에 희망을 주고 오염된 세상을 씻어내 주는 그런 시말입니다. 물론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좋은 시를 가리는 기준도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닿아 자신을 정화시켜주는 시, 자신의 본래청정을 느끼게 하는 시라면 그게 좋은 시가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심본주의(心本主義)에 닿은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심본주의란 어떤 것입니까?

상고시대의 인류는 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소위 신본주의(神本主義) 시대였지요. 그 다음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이 발달하여 인본(人本)주의 시대가 열리고 과학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발달시킨 과학이 우주의 근원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본주의 다음 단계로 마음의 도리를 중심으로 하는 심본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체를 비추어 작용하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바로 우주만유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림도량’이 어떤 ‘주의’를 따지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맑고 잔잔한 시를 통해 둔화된 우리들의 감성을 살려내야만 인간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인간성숙의 바탕 위에서 자아완성의 길, 곧 견성성불의 경지를 이루어 마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글·사진=임연태 부국장

좋은 시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
언어 이전의 언어, 진리의 원음 깨우쳐야



12월 17일 구룡사 반야샘터에서 운거 스님이 불자들에게 ‘시와 선의 마음’에 대해 강의하고 토론을 가졌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선가귀감 1월 법회
일시 : 1월 6일(日) 오전 11시
장소 : 서울 도봉 선원
전화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9증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名品紅蔘
사찰에서 직접 만드신 “홍삼 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님께서 직접 만드는 100%순수 홍삼입니다. 완전 차별화된 최고의 국내산 6년근 수삼을 100일에 걸쳐서 구증구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리는 것)홍삼과 자기 몸에 발인 자체 홍기삼과 불암산 자정수(감로수)로서 게르마늄탕기에서 전혀 금속에 닿지 않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최고를 추구하는 홍삼입니다.

◆6년근 한국산 수삼을 선정
◆황토 / 맥반석 가마에 장작으로 찐다
◆자연상태에서 건조
◆9증9포(홍삼) – 9번찌고 9번 말림

· 면역기능 증진 효과 및 암의 보조요법제로서의 유용성
·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에 대한 효과
· 두뇌활동 촉진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작용
· 신체조절기능의 항상성 유지작용
· 피로회복 및 지구력 증진효과
· 항발암작용과 암예방효과

※어혈푸는데 탁월 ※임산부 산후조리에 드시면 효과 탁월
※손발이 저리고 쥐나는데 1개월만 드시면 ok

약왕사 9증9포 홍삼 엑기스(두달분) 30만원 90ml 60포

◆ 입금계좌 :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 : 약왕사)
※판매수익금은 약사전 불사에 사용됩니다.

참선 약사기도도량 약왕사
☎ 054) 371-6665, 010-2513-6665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회응당 상균→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천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백양사 쌍계루(사진 위)와 삼성각(사진 아래).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끝〉

39 백암산 백양사

1034년 보수후 정토사로 불려

선사 설법…꿈 나타나 백양사로

단풍나무 우거진 길을 걷는다. 백양사 인근에는 단풍잎이 유독 작은 단풍나무가 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단풍나무인데, 이파리가 앙증맞은 아기 손 같다고 해서 애기단풍이라 불린다. 언 손을 흔들고 있는 애기 단풍잎에 눈 맞추며, 물소리로 마음을 씻으며 올라가니, 어느새 쌍계루다. 잎 하나 없는, 몇 백 년 되었다는 물푸레나무는 제 그림자를 못에 드리웠다. 물푸레나무 그림자를 데려가지 못함을 슬퍼하는지, 물소리가 차고 서럽게 들린다. 주워온 비자 열매를 던져주자, 물고기들이 떼로 몰려온다. 몇 마리가 수면 위로 튀어 오르자, 관광객들이 '와!' 하고 소리를 친다.

천진암 가는 길로 오른다. 우뚝 선 백암의 이마가 높다. 백암산 백양사. 백양사는 백제 무왕 때 세워졌다고 전해지며, 당시의 이름은 백암사였다. 이후 중창을 거듭하다가, 1034년 중연 선사가 크게 보수한 뒤 정토사로 불렸다. 현재의 절 이름은 조선 선조 때의 환양 선사와 관련이 있다. 선사가 영천암에서 설법을 하는데, 법회 3일째 되는 날, 하얀 양이 내려와 설법을 들었다. 그리고 7일간 계속된 법회가 끝나는 날, 선사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났다. 그리고 흰 양이, "나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환생하여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선사에게 절을 하였다. 그 후 절 이름을 백양사라고 고쳐 불렀다.


백양사 아랫마을인 가인마을의 주요 수입원은 곶감과 벌꿀이다. 감을 꿰어 말리는 류순천(67)씨의 모습(사진 위)과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벌통(사진 아래).

진신사리탑으로 오른다. 탑의 층수가 홀수가 아니라, 짝수인 게 특이하다. 팔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팔층으로 쌓은 것이라 한다. 마음은 시끄럽고, 나라도 소란스럽다. 2500여 년 전의 싯타르타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끄러울 뿐이다. 그 높은 경지를 어찌 다다를 수 있으랴? 다만 마음을 순하게 하자 다짐을 하며, 대웅전으로 향한다.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부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천년이 거듭 흘렀어도 부처의 법은 굳건히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인간들이 그 법을 보지 못하고, 왔다갔다 할뿐이다. 또 천년이 거듭 흘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말씀이 곧 죽비였을 그 가르침을 새기며 마을로 간다.

마을의 이름은 가인(加仁), 풍경부터가 어질다. 죄를 품고 들었다가도 절을 하고 나갈만하다. 입구에는 수십 통의 벌통이 놓여 있다. 때까우(거위) 한 마리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 마을지킴이인 셈이다.

"백양사 꼬치감, 백양사 밖에 없어요."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을 가리키며, 감의 종류를 묻자, 박수연(68)씨가 대답한다. 곶감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예 곶감 말리는 곳을 따로 만들었다.

"지금은 인자 다 못땅께 그라제. 산 속에가 많이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다 접붙인 것이죠."

모든 감나무의 뿌리는 고욤나무이다. 곶감을 만들어 상자 단위로 파는데, 작년에는 이만 오천 원에서 삼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대봉시 같은 것은 한 상자에 스물 댓 개. 쩌 짜잘한 것은 백 개도 넘고 그래요."

나무가 절 것이라, 마을에서 감을 따서 깎고 곶감을 만든 후 일부를 부처님 전에 올리라고 가져다준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그 땅들이 다 백양사 개발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논농사는 거의 없다. 대개의 주민들은 한봉을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일을 한다.

"한봉 30통이나 돼요. 요새는 뭐, 꿀을 꿀이라고 하요, 뭐. 다 설탕이라 하제."

마을의 지명을 물었더니, 식당과 주차장이 있는 곳은 '손마실'이라 했고, 성보관 자리는 '옥과모텡이'라 불렀다고 한다.

"절 하고는 가차이 있죠. 뭔 일 있고 그라면 다 가서 해주고, 요 마을에 서는 절 혜택을 안 볼 수가 없제."

현재는 17호쯤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전에는 70호 가량 살았다. 그 중 스님의 속가가 다섯 집 가량이었다. 시골에 살면서 농사도 없고 하니 살아가는 길이 막막해 보였다.

"속은 다 골았어요. 정부에서 인자 고차서 민박을 해라, 그래서 헌 놈의 집구석 고차 갖고 머 하꺼여? 그래 융자도 좀 받고 그래서 다진 거제. 그랑께 인자, 빚도 좀 있고 그라제."

처마 아래 곱고 큰 박이 덩그러니 매달린 박씨 집을 나와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간다.

아주머니 한 사람이 평상에 앉아 곶감을 깎고 있다. 무슨 감이냐고 물었더니, 아저씨가 잘 안다며 옥상 위로 올라가라 한다. 옥상 위에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요거이 젤 존 거요. 고동시라고. 그 다음으로는 상추감. 잔 것은 고씨고요. 단감이나 대봉시 같은 것은 창사가 많애요. 고시라는 거는 창사가 없어요. 그래서 변비 걱정 같은 거 안 생기죠. 대봉 있고, 반시란 것도 있고, 뻬쫑시도 있고, 뻬쪽해 가지고 고동시만 해요."

감의 종류도 많고, 이름들도 예쁘다. 감에 창사 있다는 말도 처음 듣는다. 설명을 들으니, 감꼭지 쪽에 붙은 흰 속을 창사라 한다.

허리가 다쳐 힘든 일을 할 수 없다는 류순천(67)씨. 아내(김선님 · 56)는 감을 깎고, 남편은 그것을 꿰어 햇볕에 말린다. 집이 꽤 크기에 민박 좀 되느냐 했더니, 고개를 젓는다.

"포도시 내 집 갖고 있다가 들오면 받고 안 들오면 안 받고 그래요. 잘 해 놓은 집은 피알도 하고 인터넷에 띄워 갖고 하는 모양이데. 한두 집은 잘 되야요."

먹고사는 문제가 큰 시름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온화하고 친절하다. 어질고 어질어 법이 없어도 아름다울 것 같다. 겨우 손톱 끝이지만, 숨어 있던 부처가 내 안에서 나오려 한다. 마음이 참 맑아진다.

장성=이대흠 객원기자

호박꽃 호롱불 같은 사람

국립공원자원활동가 박봉남



"굴참은 수피가 굵게 갈라져요. 갈참은 때가 부석부석 부서지는 것 같고, 졸참은 도토리가 작아 쫄병이라서 그렇고, 신갈은 신발 밑창으로 썼대요. 떡갈나무는 잎이 커서 떡 밑에 깔았대요. 그러면 떡이 안 식었대요."

'국립공원 자원활동가'로 봉사를 하며, 백양사 산책로를 직접 가꾸기도 하는 박봉남(40 · 사진) 씨는 활동가들이 꼽는 백양사 생태 전문가다.

"비자나무 자생 북방 한계선이 백양사인데, 천연기념물이라 문화재 관리국에서 번호표 매겨 관리하고 있어요. 살충 효과가 있어서 회충에 좋고, 바둑판을 만드는데 최고래요. 알을 놓으면 그만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모양 같아요?"

그가 비자나무 열매 하나를 보여주며 묻는다. 아몬드 같다고 하였더니,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작은 새 같아요"라고 말한다. 정말 비자 열매에는 작은 눈이 박혀있다. 새다. 작은 새다.

자원활동가들은 무료로 국립공원 안내나 보존 같은 일에 나선다.

"지체 장애분들 모실 때, 안 보이는 분에게 보이게끔 해야 하겠다 생각하고, 저기 새가 있어요. 여기 계단이 있어요. 제가 먼저 올라갑니다. 토끼풀도 같이 뜯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그런 데서 보람을 느낀다.

"반딧불이가 많아, 여름이 오면 대단해요. 아이들이랑 올 때는 반딧불을 호박꽃 속에 넣으면 호롱불이 되잖아요. 그런 것 보여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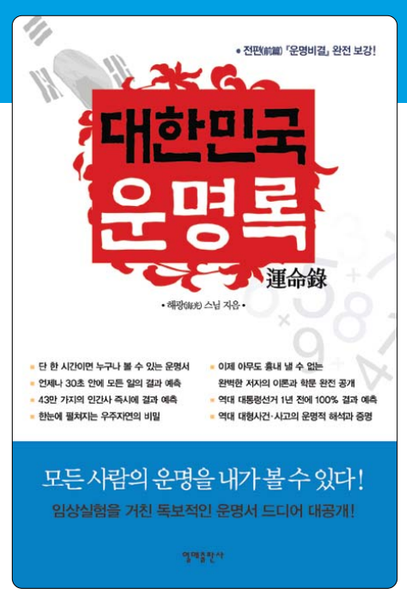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 눈에는, 미소 띤 그의 얼굴이, 반딧불 반짝이는 호박꽃 호롱불로 보였다.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현재 사암이나 포교원을 운영 중인 스님, 법사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스님이 되고자 하는 50세 이하의 불자

특 전 : 포교원, 사암의 운영에 전폭적 지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한국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한국전통따주기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 포교(고교생, 대학생 등)
- 따주기 사회봉사 및 포교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생활속 비상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경기 등)

강좌세부 내용
가. 1일차(09:00 ~ 22: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공해)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나. 2일차(09:00 ~ 13:00)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수치의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보감, 내 · 외 궁합 비법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각 16명)
-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강(교수, 공학박사)
- 일정
☞ 충남청양교육장 : 2008. 1. 12(토) ~ 1. 13(일)
〈금요일 오후 도착가능〉
40만원(순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부산교육장(부산평생교육원) :
2008. 1. 26(토) ~ 1. 27(일)
35만원(숙식제외,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준비물 : 필기구, 편한 운동복(츄리닝)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연중 캠페인 '평가와 과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더 있길 바래"



권진영 동대부여중 교법사

미래 불교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연중 캠페인을 벌인지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우선 이 캠페인을 통해 불법포교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장에 교계 안팎의 관심과 지원을 일구어낸 공로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동안 여러 후원자들의 공덕으로 전국 모든 종립학교에 현대불교신문이 무상으로 보급됐다. 그 덕에 학급마다 둘러 앉아 신문을 읽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교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것 같아 흐뭇하다. 특히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의 경우 연등축제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다룬 기사, 불교환경운동, 불교사회복지사업 등의 다양한 기사를 접하고 나서 비로소 불교에 대한 개인적인 고정관념을 버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논술의 자신감 코너나 만화로 엮은 사상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청소년 상담의 이야기들은 교법사인 내 자신도 무척 관심 있게 읽게 됐다. 특히, 청소년 명상, 종교나 청소년 관련 통계, 청소년 법회의 우수사례, 행사나 유관단체의 근황 등은 내게 많은 정보를 주었고 동시에 큰 자극이 되어 왔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을 이용해 NIE(신문활용교육)을 해보았다는 교법사도 있었고, 불교 관련 사진 · 기사를 오려 학급환경구성에도 응용했다는 담임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번 연중 캠페인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다. 우선 불교 행사나 유관 단체의 소식을 제외하고 기사의 구성이 불교 청소년이라는 코드로 특화된 기사가 아닌 몇 가지 일반적 유형의 청소년 섹션에 고정돼 왔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획기적인 내용이나 포교 프로그램이 부족해 다양한 내용으로 지면을 충분하게 메울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청소년 포교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연중 캠페인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불교 청소년 신행프로그램, 심성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관련 지도자 연수 등의 각종 어린이, 청소년 포교 정보가 넘쳐나서 서로 배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얻어 전법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되기를 발원해 본다. 또한 이번 캠페인이 계기가 되어 과도한 입시경쟁과 물질만능주의 풍토, 그리고 가족해체 등의 가정문제 등등의 청소년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환경에 대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어주기를 기원한다.









이번 방학, 불교서적 어때?

어린이청소년 방학특집 2-어린이청소년 불서 추천



방학을 맞아 '책'을 읽어보자고 결심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기왕 읽을 것, 맑은 이야기로 엮어진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책을 읽으면서 마음도 닦고 문화적 소양도 쌓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불서(佛書)'를 통해서다. '불서'란 부처님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모든 책을 뜻한다. 지금까지 '부처', '깨달음' 등에 대한 단어에 선입견이 있었거나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 또는 불교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종교인지 알아나 봐야겠다는 사람 모두 다 여기 주목~. 또 '지루하고 딱딱한 건 질색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나온 불서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다. 불교계 출판사들이 추천한 어린이 불서들을 소개한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추천불서

〈옹달샘과 아기 스님〉 이한중|꿈소담이
아기자기하고 예쁜 이야기들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맑게 꾸며주는 이야기다. 어느 산 중턱 작은 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았다.

〈누가 아기 석가모니로 태어났을까〉 하종오|문학동네
어린이 불경동화 시리즈 중 첫 번째 권. <육도집경>에 실려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과 탄생 설화를 담고 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린이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글을 썼다.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 김영만|다림
각 종교마다 그에 맞는 예의가 있다. 절에 들어서면 부처님께도 스님들께도 합장 반배로 인사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 예의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런 불교의 예절상식을 단편 동화들로 쉽게 설명했다.

〈꼬마돌부처〉 하오 광차이|예림당
번개 맞은 돌에서 태어난 돌부처의 이야기가 유쾌하다. 서정적이고 따스한 색감을 살린 그림이 잘 어우러져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일깨워 준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추천불서

〈틱낫한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속의 샘물〉 틱낫한 스님| 계림북스쿨
세계적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틱낫한 스님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틱낫한 스님이 처음으로 부처를 만나게 되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담담한 수채화가 함께 어우러진 그림책이다.

〈엄마따라 절에가기〉 김광호|혜성출판사
제목은 가볍지만 내용이 꽤 방대하다. 절에 가면 신기한 것들이 많다. 사찰 구조도 그렇고 왜 합장 반배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왠지 어렵기만 할 때 쉽게 설명해 주는 참고서 같은 책이다.

〈만화로 보는 어린이 법구경〉 김영만|바른사
<법구경>의 명시들 가운데서 어린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 한 편 한 편 원문과 해설을 실었다.
또한 그 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만화를 곁들였다.

#청소년 추천불서(중~고등학생) 추천불서

〈선사들의 공부법〉 김헌식|문자향
공부 방법을 정하지 못해 고민인가.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자. 만화로 꾸며져 있어 읽기도 한결 쉽다. 우리 시대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터.

〈별처럼 사는 법〉 이시우|우리출판사
불자 천문학자 이시우 박사가 별과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 풀어냈다. 혹 천문학자를 꿈꾸는 청소년이 읽는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저자는 각자의 마음속에 별을 하나씩 갖기를 권한다.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랜덤하우스중앙
조계종은 어떻게 생겨난 종파일까. 불교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불교 용어에서부터 현대 불교 종파, 일본불교, 불교역사까지 한 권으로 볼 수 있다.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 이윤수|민족사
각각의 부처님과 보살, 나한, 10대제자 등 경전에 나오는 인물 중심으로 이름 뜻과 일화를 소개하는 책. 이 책을 읽고 절에서 누가 어떤 분인지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거침없이 빠져드는 역사이야기(禪)〉 황푸차이|시그마북스
우리나라 불교가 아닌 중국 불교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중국 선종의 역사와 문화를 그들에 대한 일화를 통해 다가가 볼 수 있어 좋다. 김강진 기자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422 로채Q(황토흙)



304 목련Q(음수옥)



424 비토Q(황토흙)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구송파사거리)
가락시장 가락APT 엄마손 백화점 성남 가락시장사거리 구송파사거리 잠실 전시장 송파역 1번출구 일신여상 잠실여고 백제고분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올림픽선수촌 APT 둔촌사거리 둔촌주공 화훼단지 동북고교 거여동 서하남입구사거리 보훈병원 양반촌 전시장 타이어 서하남 I.C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끝

겨울엔 눈이 내려 참 포근해요. 오늘은 겨울나무들이 눈이불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 '능소니' 한 마리 겨울잠을 자면서 꿈을 꾸겠죠. 보름사리 때면 '추렴'이라도 하여 국수사리 넣은 뜨거운 국물 생각나요. 백석 시인의 '국수'란 시도 떠오르고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이 연재코너도 막을 내립니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래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내년엔 올해보다 더 행복하고 뜻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화톳불'이 되어 서로 서로 따스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능소니 : 곰의 새끼.

보름사리 : 음력 보름날의 밀물과 썰물. 보름사리가 가까워지면서 해면이 자꾸 높아진다.

사리 : 국수, 새끼,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 국수사리.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수, 새끼, 실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점심에 냉면 두 사리를 더 먹었다.)

추렴 :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주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모일 처소가 없다고 추렴들을 내서 이 집을 사 놓고 날더러 들랍디다.)<홍명희, 임꺽정>

화톳불 : 한데다가 장작 따위를 모으고 질러 놓은 불.(타작마당 한 옆으로 놓은 화톳불이 대추나무 그림자를 흔들며 넘실거렸다.)<한수산, 유민>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일탈에서 돌아왔지만 변한건 없어...

논술의 자신감 끝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최윤 作 '푸른 기차'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대 지식인의 초상을 반복되는 일상과 일탈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단편소설입니다. 비판적이고 사색적인 관념소설이기도 해요.

스물여덟 살의 대학 강사인 '그'는 어느 날,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 때나 눈이 떠질 때 일어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기상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있다. 토론회에 참석해야 했지만 전화를 걸지도 않는다. 써야 할 논문이 있었지만 컴퓨터 앞에 앉지도 않는다.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는다.

부주의한 발동작에 걸려 전화 코드가 빠졌지만 다시 꽂지 않는다. 누군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지만 침대에 누워 있을 뿐. 불현듯 일어나 연필을 깎고 세면대에서 속옷을 빨기도 한다. 저녁 열 시나 열 한 시쯤 허기를 느끼면 밖으로 나가 요기를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다. 그는 삶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 그는 여자 친구 C의 목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삼십 분을 걸어 은행에 간다. 몇 달 동안의 저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빗속을 걸어 돌아온다. 여행을 생각하지만 곧 포기한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한 벌 있는 여름 양복을 다려 입고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간다. 충무로쯤에서 내려 명동 쪽으로, 명동에서 퇴계로 쪽으로, 퇴계로에서 서울역 쪽으로 걷는다. 그는 그가 모르는 모든 거리를 걷는다. 그는 밖으로 나갈 때 마다 지폐 한 장씩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는 고궁, 전시장, 야구장, 동물원, 공원, 도서관, 화랑 주변을 맴돈다.

또한 영화관, 백화점, 레코드 가게, 오디오 상점, 책방 근처를 오래 배회하기도 하나 어떤 것도 그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다. 한때 그토록 좋아했던 음악도 이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현대인 무의미성 · 정체성 혼란 그려

문체·소설의 기법 새로움 추구한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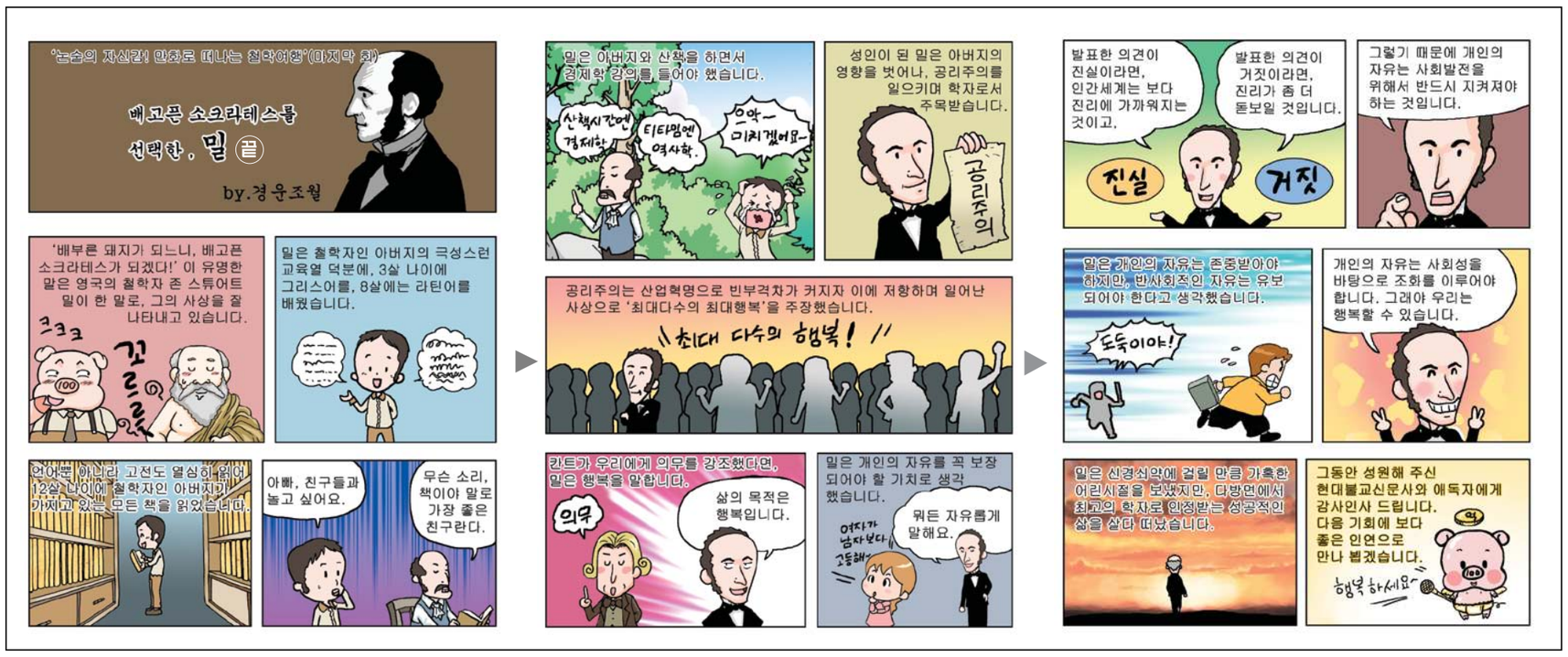
저녁나절, 그는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방으로 돌아온다. 이제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는 웃통을 벗고 앉아서 가상의 구직 편지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덧붙인다. 그러나 편지를 우송하지는 않는다. 그는 우연히 큰누이의 아파트를 찾아간다. 그는 하룻밤을 조카와 함께 자면서 지금보다 풍요롭고 더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줄 일자리를 생각해 본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일상에 몰입하는 삶을 꿈꿔 보기도 한다. 주말에 그는 누이의 식구들과 외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고, 일상의 평화와 안락을 꿈꿔 본다. 그런 후 아무도 없는 아침나절 그는 먼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매일 외출한다. 서랍 속에서 지폐 한 장씩 집어 들고 나간다. 그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서울역이나 남산, 야구장 근처나 대공원 등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오곤 한다. 서랍을 열어 더 이상 지폐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는 외출을 멈춘다. 어느 날, 그는 군악대의 북소리와 함께 일어나며 관습과 규칙의 생활로 돌아온다. 그는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며 찻잔을 씻고 책상을 정리하며 침대보를 갈고 커피를 타며 오디오의 버튼을 누른다. 그때, 그가 다시 들은 음악의 제목은 '푸른 기차'였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이상의 소설 <날개>를 연상시켜요. 그러나 이상의 주인공 내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반면, 이 소설의 주인공 그는 일탈에서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죠. 도시를 배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지나가지만 그는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인 1990년대는 이상의 시대인 1930년대보다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지죠. 한층 발달한 도시 문명 속에 한층 깊어진 현대 지식인의 무의미성이나 정체성 혼란이 그려져 있으나, 삶의 의미를 잃어 가는 현대 지식인의 초상은 이상의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보다 더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문체뿐 아니라 소설의 기법에 있어서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의 실험 정신을 잘 보여 주고 있어요. 익명의 '그'를 설정함으로써 작가는 사회 속에 소외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자꾸 반항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전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은 부모님 말씀에는 무조건 반항이 하고 싶으니 어쩌면 좋을까요.(ID: 반항녀)

무조건 부모님께 반항 보다는 함께 경청하는 자세 필요해요.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다른 점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 '순진'과 '순수'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해볼까요. 초등부 어린이들은 대개 순진합니다.
즉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청소년부에 들어서면 어른들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일과 말들을 청소년에게만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되지요.
이러한 변화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의 비중이 100이고 아이의 비중이 0이라면, 청소년기에는 대략 70 대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니 자신의 비중이 그보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중을 낮춰 보겠지요. 그러니 어느 정도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비중이 커지고 부모님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속에서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모님께 반항하기보다는 함께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 옥천암 청소년 지도법사 운산 스님)

" 신 수 비 결 "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 이 름 대 사 전 "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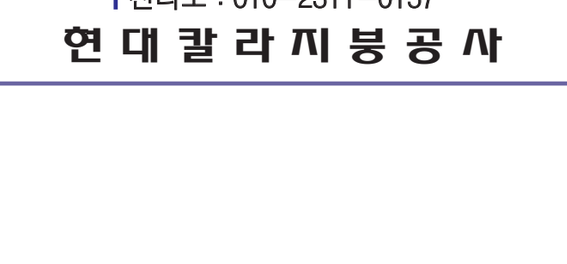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히말라야 산상 염불기도 법회
히말라야 선원 – 네팔

해상 참선 법회
덕적도 밧지름 해변 – 대한민국

www.begood05.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끝〉

경봉 스님(4)

서옹, 눈앞의 금덩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경봉, 이 방석이 금덩이와 같은가, 다른가?

서옹(西翁, 1912~2003) 스님의 제자인 영흥 스님(진천 불뢰굴)이 통도사 극락암 경봉(鏡峰, 1892~1982) 조실스님을 뵙고 큰절 세 번 올리고 여쭈었다.

"눈앞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큰스님께서는 어찌 하겠습니까?"

순간 경봉 스님이 깔고 앉았던 방석을 눈앞에 내밀며,

"이 방석이 금덩어리와 같은가? 다른가?"

하고 되물었다.

"같고 다르고 간에 눈앞의 금덩어리를 정녕 어찌하겠습니까?"

"그대는 정녕 어찌하겠는고?"

영흥 스님이 얼른 방석을 잡아 높이 들어 보이고 깔고 앉았다.

그러자 경봉 스님 특유의 호쾌한 웃음을 터트리면서 말했다.

"역시, 사자새끼로구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화두 제시

"해와 달을 띄워 온 시방(十方)을 행복케 하고 꽃과 열매를 뿌려 온 시방을 태평케 합니다."

영흥 스님이 큰절 세 번 올리고 물러나왔다.

승조 법사는 "부딪치는 매사가 모두 진실한 것이다(觸事而眞)"라고 하였고, 마조 선사는 "서 있는 곳이 곧 진리이다(入處卽眞)"라고 하였다. 또한 석두 선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도를 만난다(觸目會道)"고 하였으며, 도오 선사는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 그대로가 모두 깨달음이다(觸目菩提)"라고 하였다.

이처럼 꿈에서 깨어난 조사들은 한결 같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이자 부처요 깨달음이자 마음이라 설했다. 하지만, 이를 투철하게 믿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직도 선법문을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영흥 스님은 '눈앞의 금덩어리'를 화제로 거량을 시작하고 있다. 이 '눈앞의 금덩어리'란 말은 '눈앞의 부처이자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화두로 제시되었다. 이 눈앞의 금덩어리에는 TV도 해당될 수 있고, 컴퓨터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눈앞의 진실을 깨달아 많은 선객들을 제접해 온 경봉 스님은 노련하게 눈앞에 있는 방석을 들고서, 이것이 금덩어리와 같은가를 되묻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금덩어리와 방석, TV와 컴퓨터는 분명히 사물로서는 같은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일체를 마음으로 보는 삼계유심(三界唯心)의 도리에서는 다른 물건이 아니다. 뜰앞의 잣나무도 부처요, 금덩어리도 부처요, 방석도 부처다.

그러나 금덩어리와 방석이 같다고만 해도 미친놈이고, 다르다고 해도 선리(禪理)에 눈을 뜨지 못한 멍청이가 되고 만다. 같다고 해도 틀리고, 다르다고 해도 틀린다(不一不二). 그래서 영흥 스님은 "같고 다르고 간에 눈앞의 금덩어리를 정녕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며, 예봉을 비켜가는 동시에 재차 반격을 가한다.

일체를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

이번에는 경봉 스님이 "그대는 정녕 어찌 하겠는고?" 하고 묻자, 영흥 스님은 방석을 든 다음 깔고 앉는 행위로 답을 대신한다.

방석은 그냥 깔고 앉는 물건이지, '깔고 앉아야 하는 것'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 법당에 금부처가 있으면 먼저 절을 하고, 주인이 방석을 내오면 깔고 앉고, 차(茶)를 내오면 마시면 된다.

눈앞의 진실이 어쩌고, 마음이 어쩌고 하는 것은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어설픈 주석에 불과한 말이다. 금가루가 아무리 귀해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될 뿐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확고한 믿음·중단 없는 정진이 '밑바탕'

다양한 수행법과 '깨달음'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지으며 수행하고 있는 김진여(41) 거사는 5년 전, 구미에서 직장에 다니다가 스트레스가 많은 샐러리맨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퇴사해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오랫동안 '이 뭣고?' 화두로 참구해 온 그는 염불, 주력, 절하기 등 이런 저런 수행을 해봤지만 재미를 못 보고, 마침내 미얀마, 태국, 인도로 구도여행을 떠났다.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식 동굴수행까지 경험한 그는 결국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해 귀국했다. 다시 토굴에서 석 달을 지내다가 부산의 유명 선원에서 하안거를 마친 그는 드디어 간화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간화선을 접한 지 무려 15년만에 '이 뭣고?' 화두를 들고 꾸준히 정진하면 깨달을 것이란 자신감이 든 것이다.



이처럼 참선, 염불, 위빠사나, 간경, 사경, 절하기 등 여러 수행법을 쇼핑하듯이 경험만 하고 진득하게 한 방편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깨닫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의 진지함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불·법·승 삼보와 스승,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다. 특히 인터넷에 넘쳐나는 불교정보는 믿음과 실천이 부족한 알음알이 불자를 양산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불법과 깨달음에 대한 회의, 수행과 보살행에 대한 머뭇거림들은 모두 사라진다.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모든 의혹들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바른 믿음의 법열(法悅)로 인해 보리의 열매가 영글게 된다.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하려는 이나, 수십 년을 참구해도 제자리걸음인 불자들은 반드시 '도(道)의 근본이자 공덕의 어머니(信爲道元功德母)'인 믿음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믿음은 보배 창고를 여는 열쇠

마음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두터운 번뇌와 욕망의 껍질을 뚫고 지혜의 새싹을 틔워서 마침내 무량한 지혜와 복덕이 수확된다. 그러니 이 믿음이야말로 무량한 보배가 가득한 보배창고인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보살은 이와 같이 무변무진한 '믿음의 창고(信藏)'를 완성하여 여래의 큰 수레를 타고 나아간다"고 하였다. 최근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과 <시크릿>이라는 자기계발서가 각각 '믿는 대로 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주제로 성공의 비밀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며 지혜는 내가 밭가는 쟁기"라고 설하셨다. <화엄경>에서는 "신심은 썩지 않는 공덕의 씨앗, 위없는 보리의 나무를 싹틔우고 뛰어난 지혜의 문을 자라나게 하여 모든 부처님들을 잘 나투시게 하네"라고 하였다.

신심으로 일심 진여법계를 깨닫는다

3조 승찬 대사는 <신심명>에서 "믿는 마음은 둘 아니요,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다(信心不二 不二信心)"라고 하였다. 성철 스님은 이에 대해 "신심은 범부에서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모두 신심뿐인 것이니, 이는 신(信)·해(解)·오(悟)·증(證)을 함께 겸한 신심이다. 신심으로써 진여법계를 깨닫는다. 신심은 불법진여의 근본으로서 그것은 들이 아니며, 모든 (대립적인) 것은 원융하여 쌍조(雙照)가 되어서 거기서는 아무 상대도 없고 무애자재만 남게 된다"고 하였다.

마명 보살은 <대승기신론>을 쓴 뜻을 "중생들의 온갖 의심 풀리게 하고 집착으로 생긴 견해 버리게 하며 참 대승의 바른 믿음 일깨워주어 부처님 씨 이어가기 바라옵기에"라고 하였다. 원효 스님은 <기신론 소별기>에서 "법과 법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굳은 믿음을 일으켜 대승은 오직 한마음(一心)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도록 바른 믿음을 일깨운다"라고 하였다.

본유불성을 확신해야 돈오한다

조사선의 마음공부는 우선 자심에 본유(本有)하는 불성이 부처와 본래 차이가 없는 자심즉불(自心卽佛)임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때문에 혜능 선사는 조사선이 상근인(上根人)을 위해 설한 것이며, 스승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의심을 부수어 없애버리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그는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한다. 그가 의심이 없도록 하면 보리가 나타날 것이다"고 하여, 의심을 제거해야 돈오 해탈할 수 있다고 했다.

팔리삼장 주석서의 통계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에 수다원과 이상 아라한과까지의 도과를 이룬 수행자는 무려 1만297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612명은 법문 즉시 깨달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말끝에 단박 깨닫는 언하대오(言下大悟)가 부처님 당시에는 더욱 흔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는 32상80종호를 구족한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면서 느끼는 절대적인 신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불법은 완전하건만 스스로 의심할 뿐

혜능 선사의 제자인 법달 화상은 <법화경>에 7년을 의지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경문에 아직도 의심이 있었다. 혜능 선사가 그에게 "경전 자체는 의심할 만한 곳이 없다. 네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심은 성불의 큰 장애인 것이다.

그래서 임제 선사는 "지금 도를 배우는 너희들은 스스로 믿을 뿐, 밖으로 향하여 구하지 말라. 학인들의 병이 어디에 있는가? 병은 스스로 믿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경책하였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소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자기의 비어서 소리와 빛깔이 끊어진 마음에 대하여는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지 않는 것을 호의불신(狐疑不信)이라 한다. 이 여우 의심이 다하여 청정하면 바른 신심이 우주에 편만하여 곧게 대도(眞如一心)가 눈앞에 트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 **초심자 수련법회**=경주 마하보디선원은 2008년 1월 12~13일 오후 2시부터 매월 둘째 주 토·일요일 초심자 수련법회를 연다. (054)746-9750

● **일주일 철야정진**=서울 보림회는 12월 28일 오후 8시부터 2008년 1월 3일 오전 7시까지 일주일 철야정진을 한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도반이자 제자인 묵산 스님이 지도. (017)332-4096

● **방거사 어록 강설**=서울 봉은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방거사 어록 강설〉의 저자인 혜담지상 스님을 초청, '방거사의 선어록 강좌'를 연다. (02)511-6070

● **선문염송 강의**=부산 무심선원은 매주 수 오전 11~12시(입제목)와 오후 7시 30분~8시 30분(선문염송) 선어록 및 참선법회를 연다. 또 매주 토 오후 2시 30분~5시 〈원오심요〉 및 〈서장〉 강의를 연다. (051)515-7226

위트와 감성언어 108가지
내 마음을 치다
감성의 숲에서 붓다를 만나다!
위트와 감성, 해학과 풍자로 개념을 풀이하다!
동승동
화두 · 참선 · 깨달음 · 찌다거 · 이심전심 · 알음알이 · 삼분담 · 이뭣고 · 주성사불 · 무상 · 공 · 무아 · 번뇌 · 업 · 윤회 · 색즉시공 · 사석제 · 광정도 · 호온 · 12연기 · 법성 등 불교 단어 108가지에 더하여 위트와 감성, 풍자와 해학으로 개념을 풀이한 책!
아가씨들의 다리 걱정이다. 아줌마들의 뱃살 걱정이다. 남자들의 정력 걱정이고, 노인들의 예인 걱정이다. 그리고 산사 스님들의 중생제도 걱정이다. 화두란 해독단이다.
화두(話頭) | 공안(公案)이라고도 한다. 선에서 증정(證悟)하여 조실스님이 수행자들에게 제시한 일단의 문제. 해결책의 틀과 체이다. 화두를 참구하여 깨닫는 방법을 간화선이라고 한다.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은 그 어떤 논리적 언어적 분석이나 객관적 고찰을 중지하고 오직 '무' 간시걸 '정신해수지'이 일단 명각해야 한다.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강기지도 성각하서도 안 된다. 마음에 화두를 간직을 분 해세히지 않아야 한다.
동승동 · 윤창화 지음 · 신국판 양장 · 값9,500원
불교, 교양으로 읽다
초심자를 위한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공부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길라잡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불교의 근본줄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친절한 교양서!
민족사 · 화엄(華嚴) 이중의 지음 · 신국판 · 536페이지 · 정가 15,000원
【여러 부처님과 보살은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
부처님과 보살 이름이야기
낱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건서도 우리는 정작 석가모니 부처님, 미로자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오백나한, 사천왕, 가섭, 아난, 사리불 등 여러 부처님과 보살 신중, 십대제자는 누구이고 어떤 분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민족사 · 이봄수 지음 · 신국판 변형 · 2도 인쇄 · 256페이지 · 정가 9,000원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㊹ 어머니의 사랑은 부처님 사랑

너희 때문에 산다

대학생 김군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후 어머니는 혼자서 김군과 동생을 키우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살기가 참 힘들다. 어떤 땐 살고 싶지가 않구나.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산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다시 다짐이라도 하듯이 "알겠니, 너희 때문에 살아. 너희가 내 힘이야"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그 말은 중학생이었던 김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사신다!' 김군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신문배달 등 아르바이트하느라고 힘들었지만 항상 따스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 잘 버틸 수 있었다. 여동생도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주었다. 김군이 어렵게 대학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하며 서럽게 울었다.

김군과 여동생을 희망삼아 사셨던 어머니

김군의 선물로 결국 자신에게도 큰 선물

엄마의 목걸이

학비대출을 받아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군은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되었다. 성격 좋은 그는 친구가 많았다. 그러나 군에 가서 지내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그리웠다. "물론 친구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저를 그리워하고 걱정해 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저를 위해주는 사람은 가족, 어머니란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김군은 군에서 아껴 쓰며 돈을 모았다. 휴가 전까지 열심히 모으자 약 15만원이 되었다. 휴가 받으면 꼭 해야 할 일을 결심한 바가 있었다. 집에 오자마자 김군은 "엄마, 같이 나가세요. 꼭 가실 데가 있어요"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손을 끌고 시내 금은방으로 갔다. 거기서 어머니를 위해 목걸이를 골라 드렸다. 어머니는 안사겠다고 버텼지만 김군이 이겼다. 어머니는 "이 돈으로 너 필요한 것 사야지, 내가 이런 것 무슨 필요가 있니"하였다. 그러나 목걸이를 걸어드리는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다. 그러면서도 "다시는 이런 거 사지 말자"고 해서 김군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당신도 여자이신데 왜 예쁜 목걸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실까.

그 돈으로 오랜만에 만나 친구들과 실컷 놀 수도 있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물론 많았다. 그러나 그보다 어머니가 소중했다. "엄마는 나와 동생 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여전하셔요.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때문에 사셨잖아요. 이제는 허리도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셔야 할 텐데 여전히 공장에 다니시고 있으니 걱정이에요." 제대하고 복학한 후에도 어머니는 그 목걸이를 소중히 걸고 다니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목걸이를 해 드린 제 마음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보다 훨씬 기쁘고 뿌듯했던 거예요. 군 생활 내내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목걸이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되었어요."

일체 중생의 부모인 부처님

어느 큰스님께서는 "잘생긴 남의 어머니보다 못났어도 내 어머니가 소중하다"고 하시며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같다고 하셨다. "자식이 물에 빠질 때 부모는 그냥 뛰어들어서 건진다. 자기가 죽는지를 모른다. 거기 무슨 이유가 붙겠는가? 그와 같이 순간에 뛰어 들어 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똑같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부모의 참 사랑, 그것이 자비이다." 참된 수행자란 일체 중생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부처님 마음을 내는 사람이 아닐까.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비로자나국제선원 기초불교영어회화 강좌=**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이 내년 1월 7일~2월 25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제3기 기초불교영어회화강좌를 실시한다. 총 8주 동안 진행되는 제3기 기초불교영어회화강좌에서는 사성제 팔정도 중도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불교영어와 회화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업료는 월 4만원. 1년 이상 수강하는 사람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영어담마스쿨교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앞서 12월 29일 오후 3시에는 어린이 영어담마스쿨이 개강한다. 초등학교 2~5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참선과 토론을 병행한 영어 수업이 이루어진다. (02)6012-1731

●**혜암 스님 열반 6주기 추모법회 및 법보전 석가모니불 복장불사=**합천 해인사는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6주기를 맞아 '추모법회 및 사리탑 제막식'을 12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해인사 부도전에서 봉행한다. 한편, 해인사는 장경판전내 법보전 석가모니불 복장불사를 진행한다. 법보전에 모실 석가모니불 조성 불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복장불사에서는 사리함을 비롯해 각종 다라니, 칠보, 오향, 흑수정, 백수정, 연봉 등 복장 장엄물 일체가 봉안된다. 이와 함께 신도들이 직접 사경한 〈반야심경〉 사경과 소원문도 함께 봉안될 예정이다. (055)934-3022

●**교사불자련 겨울수련회=**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내년 1월 5~7일 장성 백양사에서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사찰예절과 선원장 동참 스님 법문, 108배, 참선,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법문, 암자순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02)733-7278

●**신흥사 겨울수련회=**화성 신흥사가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대상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1월 5~6일 제34차 성인 겨울수련법회가, 1월 10~13일 제53차 청소년 겨울수련법회가, 1월 17~19일 제60차 어린이 겨울불교학교가 각각 열린다. (031)357-3916

●**반야라이온스클럽 노인돕기=**서울반야라이온스클럽이 재가복지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00명을 선정해 전기찜질팩을 방문해서 전달한다. 12월 27일 오후 6시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전달식이 열린다. (02)2282-1104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41 · 끝〉

연재를 마치며

최근 불교와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담심리학계에서는 불교를 활용하여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려 하고 있고, 불교계에서는 상담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아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려 하고 있다. 불교와 상담 양 분야를 비교 ·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불교 교리나 수행법을 상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와 상담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불교대학원 두 곳에 불교상담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불교상담심리사 자격제도가 마련되었고, 불교와 상담 관련 학회도 창립되었다.

그러나 '불교상담'은 아직 '불교와 상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불교와 상담 양 분야에서 불교 그리고 상담을 비교 · 대조해 가며 접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고, 불교 수행법 가운데 일부를 상담에 조심스레 적용한 뒤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불교에서 상담심리학과 불교를 비교하고 분석해 본 것은 필자에게도 큰 공부가 되었다. 연재 첫 회에서 언급했듯 상담심리학을 불교에 견주어본다는 것은 무량한 바닷물과 실개천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과 매한가지의 일이나, 연재를 마무리하는 지금 상담심리학이란 지류를 통해 광대한 불교를 새로이 만난 느낌이 든다. 상담심리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교는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감로의 샘물이었다. 온갖 상담이론이 다 녹아 있고, 갖가지 상담 기법이 다 들어 있었다. 다만 오늘날과 용어가 다르고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날 뿐이었다. 근본적인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큰 것은 현대 상담심리학에서는 개개인의 생활적 문제, 심리적 어려움, 정신적 장애 등을 초점으로 삼고 있고, 현실 생활에서 잘 살아가거나 인격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만, 불교는 인간은 물론 온갖 존재의 근원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존재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상담심리학과 불교를 비교,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불교는 주관과 객관, 신과 인간, 몸과 마음 등 서양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현대 상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불교는 다양하면서도 효과적인 상담 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경의 수많은 교화 사례, 그리고 다양한 수행법을 상담에 적절히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심리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교는 상담자 교육 및 성장에 유용하다. 불교교리와 수행법은 모두 개인의 성장, 궁극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곧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 등과 일치한다. 넷째, 다른 상담이 아닌 바로 불교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심리학의 제4세력이라고 하는 자아초월심리학은 개인 내적인 문제를 벗어나 초월적인 단계로 성장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수행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불교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서 '불교상담학'이란 고유한 분야의 탄생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불교와 상담 양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학문적 이론 정립은 물론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면 불교상담학은 기존의 상담심리학의 한계를 넘어 더욱 수승한 도리로 인류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 문병성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꿀이다.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 급 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군경스포츠연맹

석청의 효능은?

석청에는 일반 토종꿀에 비해 비타민, 토코페롤, 칼슘, 게르마늄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과당, 포도당, 칼륨, 아미노산, 무기질 등 70여 가지의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물질이 골고루 들어있다. 이런 이유로 꼭 약용이라는 부분을 떠나 일반 강장식품으로도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석청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생리작용이 원활해져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허열이 제거되고,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된다. 네팔 왕실 산하의 '히말라야 석청 연구소' 에 따르면 석청은 현대인의 불치병인 암, 만성신경통, 혈액순환 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중풍, 야맹증, 간염, 두통,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복용 사례에도 불치병인 암, 몇 년째 어깨가 결렸던 견비통, 만성신경통, 치질, 변비가 석청을 복용한 후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석청은 일반 꿀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및 빈혈 예방, 피로회복, 불면증 해소, 숙취, 기침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이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빠랑게가 사는 고산족 마음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아래의 보급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석청보급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아동들을 돕기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병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1장을 보내드립니다.

2007년 불교문화계 결산

영화·무용 우울 미술·음악 방긋

올 한해 불교문화계의 활동을 살펴보면 미술과 음악은 강한 약진을 한 반면 연극은 지난해 수준이었고, 영화와 무용은 후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 스님의 조각 '의식의 부처님'



찬불가요 콘서트 연 이종만 '좋은 벗 풍경 소리' 실장



김덕명의 '양산사찰학춤'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을 주제로 한 연극 '환화여 환화여' 장면.



조계종 문화부 주최로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미술

개인전을 비롯해 불교미술의 특색을 살린 미술관과 박물관의 테마 전시회가 줄을 이은 것이 인상적인 반면, 그룹전이나 전반적인 장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획전시회가 유난히 부족한 것이 올 한해 미술계의 특징이다.

흙으로 생명력을 불어 넣는 소조불상작가 김영수씨의 불일미술관 전시를 시작으로 선화가 정현 스님의 '날마다 좋은날 展', 40여년 동안 나비 그림만을 수행으로 생각하며 그려온 대행 스님(천안 금강사 주지)의 '나비 그림전' 등이 상반기 화랑가를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인 불화장 석정 스님이 평생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한국의 불화> 40권을 완간한 기념으로 연 '석정 연묵전'은 불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군포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빚어온 도자기 100여점을 선보인 '설봉 스님의 도자전'과 속가형제인 원옹 스님(밀양 돈오선원장) · 비공 스님(분당 대도선원장)의 추상화 및 조각전, 오랜만에 전시회를 마련한 판화가 강행복씨의 '송광사 판화전', 득산 스님의 '달마전'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서예인생 52년을 정리한 남석 이성조 선생의 '서예전', 이해기 화가의 '금화 전시회', 최근 매니큐어로 그린 그림전을 연 사찰음식전문가 정산 스님의 '관조와 명상 展', 허허당 스님의 '화엄세계전' 등 올 한해 50여 작가가 불교관련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박물관 등의 기획전시회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다. 화정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노력이 특히 돋보였다. 화정박물관이 내년 10월까지 기획한 '탕카의 예술 展'은 수준 높은 전시회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관람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산위의 여신들' '석가여래' '티베트 사자의 서와 정토' 등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눠 티베트 불화의 정수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의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구었던 서울역사박물관의 '중국 국보전'도 좀처럼 보기드문 전시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중국인들도 현지에서 보기 힘든 진귀한 국보들이 많이 전시된 이 행사에서는 '관음보살 좌상' 등 110여점의 불교유물도 선보여 불자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큐레이터 이선오씨는 "요즘 일반 화랑가의 전시 경향은 같은 장르의 각기 다른 작가들을 한데 모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룹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불교미술계도 선화나 달마도 등 비슷한 장르의 작가들이 한데 모여 대형 그룹전을 많이 개최한다면 훨씬 더 불교미술을 알리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음악

몇 년 전부터 산사음악회의 활성화 때문에 무대공연의 가뭄이 점점 더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아서인지 올해에는 늘어난 개인 공연을 통해 체면 유지는 한 것 같다.

이중 활동이 유난히 돋보인 이는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이다. '불교음악'을 찾아 떠났던 긴 여행에서 4년만에 돌아와 무대에 선 이 실장은 4월 문화일보 홀에서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을 주제로 대중가요 콘서트를 열었다. 반응이 좋아 10월에 앵콜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또한 이 실장은 15년간 어린이 찬불가 동요 제작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행원문화상 예술부문에도 뽑혀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약진도 등을 두드려줄만하다. 불교계에서는 9년전 처음으로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를 창립해 주목을 끌었던 니르바나는 2005년 한때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몰렸지만 지난해 후원회 결성을 계기로 올 한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강형진 단장의 차별화된 기획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둔 요인이다. 니르바나는 불교계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특강과 함께 음악을 곁들여 들려주는 소규모 이색테마 음악회를 한달에 한 번씩 열어 큰 호응을 받았다. 불교도 공부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관객에게 선사한다는 점에서 1년이 지난 지금은 고정적으로 매달 찾아오는 팬들까지 생긴 상태다. 또한 소아암돕기 음악회를 열어 불교계 공연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후원까지 받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범능 스님도 꾸준히 전국을 누비며 찬불가요 대중화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점도 의미가 크다.

산사음악회도 올해 꾸준히 열렸다. 산사음악회는 2003년 30여 곳, 2004년 40여 곳에 이어 2005년 50여 곳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조금 줄어든 추세지만 그래도 산사음악회 대표사찰인 청량사, 월정사, 영평사 등은 아직도 건재하다. 특히 영월 법흥사는 올해 산사음악회 사찰로 신규 편입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기획과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산사음악회들은 인기를 더한 반면 특징 없는 음악회들은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알려진 천재음악가 윤이상 탄생 90주년을 맞아 독일의 윤이상 앙상블이 내한하는 등 8차례에 걸친 대규모 교향악 페스티벌이 국내외에서 열린 것도 큰 이슈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국제 윤이상 음악상'을 제정해 시상했다.

이외에도 한평생을 찬불가와 사랑을 나누며 살다간 불교계 최초의 전문 여성 지휘자 故 정옥녀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음악회를 바라오페라단과 고인이 평소 지휘를 맡았던 청룡마야합창단이 함께 추모음악회를 열어준 것은 두고두고 올해 훈훈한 불교음악계의 미담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무용

불교 무용계는 올 한 해 유난히 빈약했다. 완전한 불교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명인명무전과 국립무용단이 바리공주의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전통 창작춤 '바리바리촘촘 디딤새' 등이 그나마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꼽을 정도였다.

만일 전통무용인 영산재 공연들이 없었다면 불교무용계는 심각할 정도로 공연난을 겪었다.

꾸준히 범패와 작법무 공연을 해온 능하 스님(태고종 문화부장)과 법현 스님(불교무용연구소 소장), 일초 스님(인천수륙재 보호자) 등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꾸준히 영산재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선보인 정도여서 내년 한해 강한 약진을 기대해 본다.

연극 · 영화

연극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면 영화 쪽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한 정체를 드러냈다. 연극 작품중 돋보인 것은 '2007 제25회 부산연극제' 기간중 열린 '환화여 환화여'다. 이 작품은 원효 스님의 구도 여정을 잘 표현한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불교언론인 출신 김숙현씨가 '회향송'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희곡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부산시립극단 정순지씨가 맛깔스럽게 각색해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작곡가 윤이상씨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 편의 연극으로 올린 '윤이상, 나비 이마주-어느 작곡가의 기억' 등도 상연됐다.

문화행정

조계종 문화부가 불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연 '불교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는 문화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문화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문화관계자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음악, 미술, 공연, 문학 및 출판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가해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고, 문화부는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내년 문화정책 계획 수립에 대거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이런 간담회가 자주 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주일 기자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구입시 할부가능



● 수평형이며 연도가 3패스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긴형태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뒤-앞, 다시 앞-뒤로 열기 3번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룸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안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2004Korea Consumer Best Awards 한열나무보일러 스모즈제품 라이프선정 2004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2005년 히트상품&서비스경영대상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A/s안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동파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어기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창업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문의전화:02)585-1141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투투컴퓨터 검색
四柱大典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내일이 있는 자유, 여여한 자유, 세세생생의 자유 얻어야!

새해에 무엇을 얻고 가야 할는지요?

문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올 것도 갈 것도, 나마저도 없다고 하셨지만 없고 없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저희들이 무엇을 얻고 가야 할는지요? 새로운 한 해 동안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덕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답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한층 더 분발해서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어제도 없고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말씀해 드렸죠. 고정됨이 없고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를요.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하는 도리와 같이 우리 생활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고정되게 저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일체가 다 그러니까요. 모두가 다!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이거 만나면 저거 만나야 하고, 이 길을 걸었으면 저 길을 걸어야 하고, 갔다 하면 와야 하고…. 그냥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많이 해 드렸죠. 고정됨이 없어서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삼세(三世)가 공했다고요. 삼세가 공한 반면에 자기조차도 공했다고요. 고정됨이 없다고 한 자체가 바로 나도 공하고 전체가 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저께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같이 포용된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했다고 할 것도 없고, 한다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고정된 게 없고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생략해서 그전에도 말씀해 드렸죠. 내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마셨다고 한다면 내가 마신 거겠습니까, 누가 마신 거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누가 마셨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포괄적이죠. 공식(共食)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세워서 내가 했다, 내가 먹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자세히 이해가 가게 얘길 해 드려야 놓고 말기고 뛰어넘죠.

이 모습을 가지고는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컴퓨터를 잘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컴퓨터를 하다 하다 끝까지 들어가 봐도 자기 남편과 자기가 둘 아니게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 모습이 없어져야만 둘이 아니게 하나로 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 사람네들은 컴퓨터만 가지고 그랬지 부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이 진리는 있었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까닭에 자기 몸을 다 그냥 태워 버렸거든요. 태워서 모습을 없애고서야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살아 있으면서도 공한 도리를 알면 내세울 것도 없고, 또 공한 도리를 알면 지금 불가에서 말하는 소리로 하자면 '죽었다' 이거죠. 죽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했다, 공했으니까 내가 살았다고 세울 것도 없고, 했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고 할 것도 없고, 온다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단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공한 도리를 알았다면 죽지 않고도 하나가 되는 도리를 알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은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일대사의 인연으로 맺으셨어요. 그건 왜냐. 어떤 모습이라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어떠한 생명이라도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모두가 미생물에서부터 전체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꽃나무를 '야! 넌 참 이쁘게 피었다.' 이러고 볼 때는 둘이 아닌 거예요. 모습은 다를지언정 꽃나무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찰나찰나, 꽃나무도 응해 주고 나도 응하고, 그래서 꽃은 시들다가도 좀 활기가 나서 '아이, 네가 그렇게 해 주니까 참 고마워.' 하고 잎이 더 싱싱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둘이 아니게끔 돼 가지고 그냥 고정되게 있다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러나 찰나찰나 둘이 아니게끔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께서 전체 다 먹어치운 거죠. 자기와 둘이 아니게 말이에요.

우리가 한 철 살면서 이렇게 그냥 수레바퀴 돌듯 하는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이 있는 자유를 못 얻어요. 내일이 있는 자유! 여여한 자유! 세세생생의 자유!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돌부처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간에 그걸 탓 안 해요. 너는 여자가 돼서 성불 못한다, 너는 애가 돼서 성불 못한다, 너는 늙어서 성불 못한다, 너는 악해서 성불 못한다, 너는 선해서 성불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악이 돌아가면 선이 붙어 돌아가고 선이 돌아가면 악이 붙어 돌아가니까.

탤런트가 역을 맡아 가지고 나왔다가 역을 다 하면 그냥 끝나듯이, 인간도 한 철 살다가 끝나면 그뿐이죠. 그런데 요 지구라는 이 주머니에서만 생명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머니에서는 바깥을 영 내다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좀 툭 틔어 가지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죠. 또 보는 것만이 도는 아니다 이랬어요. 내다보면 뭘 하느냐 이거죠. 이 물그릇을 보기만 하면 뭘 하느냐. 물그릇을 옮겨 놓아야 할 때는 옮겨 놓을 수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실천이 없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 전부 아니다 이겁니다. 오신통(五神通)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몸통이에요. 타심통(他心通)이니 천이통(天耳通)이니 숙명통(宿命通)이니 신족통(神足通)이니 이런 것도 전부 육체의 통 속이라고요. 마음이 통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지구 바깥을 나갈 수 있고 우주 바깥을 나갈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우주를 자유자재로 돌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일체 만물만생, 생명체, 하늘과 땅, 또는 이 중세계를 다 포함해서 일대사로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만나면 나 아님이 없이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가야만이…. 요새 컴퓨터 바이러슨가,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을 다 없앤다고 그러죠. 그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쪽에서 막아도 되고, 그쪽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참 세밀하게 생각돼요. 만약에 남의 회사 거를 훔쳐 온다거나 남의 나라를 집어먹기 위해서 자료를 훔쳐 간다고 한다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훔쳐 가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남을 망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없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는 거는 그냥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바로 부처님의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국가적으로도 좀 더 발전이 되어야겠지만 우선 우리 신도님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병고 액난에 휘달리는 것도 그렇고,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이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림 · 최주현

놓으려 해도 놓아지지가 않아요

문 스님께서는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안의 너무나 괴롭고 막막한 마음을 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그 잡념을 놓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잊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제 안에서 물밀듯이 흘러나오는 업식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 물론 놔 버리는 것도 참, 단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원이 다 다르고 생김

☞20면으로 계속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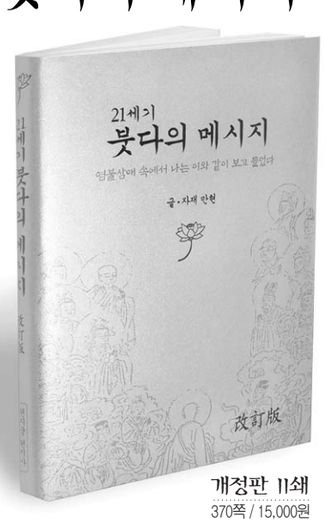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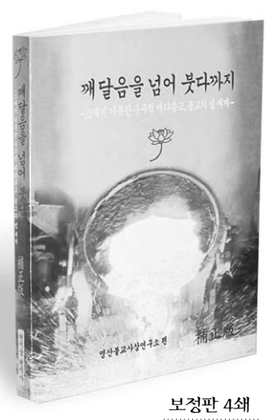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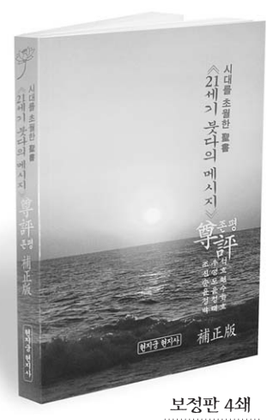
개정판이 나와 발행 2년만에 11쇄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기시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어떤 것이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19면에서 계속

생김도 다르고 또 생활해 나가시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그 법은 똑같지만 생활 자체를 해 나가시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 있고 저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 잡숫고 싶어하는 분이 있고 저걸 잡숫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데에 매달리지 마시고 아주 지극하게 일임해서 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참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이 생긴다고 해서 '이거 망상이니까 끊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망상이 생기고 어떠한 생각이 나는 것은 유생 무생이 다 쉬는 사이 없이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다 잠재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돼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먹어 본 것은 언젠가 또 먹고 싶어서 생각이 나듯이, 본 것도 언젠가 또 생각나듯이…. 그러니까 항상 생각나는 그것은 잠재의식의 작용입니다. 바로 우리 의식세계의 계발된 어떠한 유동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나걸랑 그것이 나온 거기다가 바로 놔 버리세요. 자기가 색(色)이자 공(空)이고 공이자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바로 자기 실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실상이 공이니까 공에다 모든 것을 놔 버리세요, 믿고. 진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면 놔 버릴 수가 없어요.

믿어야 열쇠를 맡기죠? 믿지 않으면 열쇠를 맡길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내가 '참나'인 주인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거기를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주인공이라는 그것 자체도 이름이고 실(實)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다가 놓아 버린다면, 믿고 놓아 버린다면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차가 있고 기름이 있어도 차는 운전수가 끌고 다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차와 운전수와 기름이 삼합(三合)이 되어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공존하니까 색이 공이자 공이 색이다 하는 거고 그렇게 공존하는 것을 공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몰락 놔 버리면 그대로 공존돼서 바로 일체 유생 무생이 한데 합친 그 능력의 의사가 되니 나는 손을 까딱 안 하고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당하는 거지 누가 가난을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 말에 어느 부자가 복을 지은 거라고는 동네에서 누가 어린애 낳는 데 고작 짚 한 단 준 거밖에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부자가 죽어서 가 보니까 부자 복(福) 창고에 짚 한 단밖에 없더란 셈으로 그런 마음을 썼으니 짚 한 단만 있을 수밖에 요. 자기가 준 대로, 한 대로밖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을 해 보시겠지만 수많은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안 당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공에 놓는, 방하착 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는 참자기의 감응이 와서 그걸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그럴 겁니다. 또는 안 그런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한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오온에 칠보(七寶)가 가득히 차 있듯이 그 모든 것이 다 저절로, 가난도 면할 것이고 병도 물러날 것이고, 자기의 뿌리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데에 매달리지 마시고 아주 지극하게 일임해서 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외롭게 혼자인 것만 같아요!

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도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외롭고 이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욕심이겠지만 영원토록 스님께서 저희들 곁에 머물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답 우리는 지구라는 주머니 속에서 항상 같이 한자리를 하기에 떠났다가도 다시 와서 만나곤 합니다. 이렇게 찰나찰나 만나는 진리를 참구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또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한답니다. 우리는 혼자는 못 살아요. 물질계에서도 혼자는 못 살지만 정신계에서도 혼자는 못 살아요. 그 도리가 다 그러하죠.

우리는 때로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세상에 나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축생이나 아귀나 모든 미생물까지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미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왜 한탄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좀 지혜가 있고 능가할 수 있는 폭이 넓으면 좀 낫게 지내고, 폭이 좁고 그릇이 작으면 아주 피곤하게 살고 이것뿐이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식구들이 다 부황이 나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자식이 하나 나가서 '내가 죄를 걸머지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러곤 그냥 훔쳐 왔어요. 훔쳐 왔는데 그게 이 보이는 데서는 큰 죄라고 데려가서 가두겠죠.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야, 참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그거라도 훔쳐서 먹여 살렸으니 너 참 장하다.' 외려 이래 준다고요. 꽉 막혀서 도대체 오글락노글락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둑질을 정말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거를 갖다가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마음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마음은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입니다.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악하게도 쓰고 선하게도 쓰고 뒤죽박죽이 되죠. 그런데 뒤죽박죽하지 말고 원칙대로 살아라. 진짜 착을 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그릇을 내가 파악하고 건너뛰어라 이거거든요. 물을 건너뛸 때에도 내 다리가 그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봐서 건너뛰어야지, 개천은 넓은데 내 다리는 거기 반도 안 가면서 건너뛰다간 물에 빠져 죽죠. 그렇게 번연히 알면서도 건너뛰다가 빠져서 허덕거리는 거를 어떡합니까? 부처님인들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생긴 게 참 고맙고요.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잘살든 못살든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공부라도 하게끔 인연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가. 우리가 수없이 돌아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렇습니다. 돈 걱정도 없고 옷 걱정도 없고 먹는 거 걱정도 없고, 돈 쓸 때는 그냥 척척 줘서 다 쓰고 이렇게 해서 기른 아이가 나가서 잘 이끌고 살 수 있을까요? 고생도 해 보고 배도 고파 보고 망치질도 해 보고, 그 아픔을 겪어 본 사람이라야 그 부하를 다 이끌고 살 수 있는 거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이 배고픈 걸 몰라요. 그것까지 생각 못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 죽을 거, 죽는다는 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이 아시죠. 언젠가 우리 스님네들이 날더러 "스님, 오래 사세요!" 그러기에 그랬어요. "사는 날까진 틀림없이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요. 아, 그러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걸? '너희들이 오래 살라고 하니까 오래 살 거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빨리 죽는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생사도 벗어납니다. 그냥 열심히들 우리 해 봅시다. 아셨지요?

선법가를 불러야 하는 이유?

문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선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교 텔레비전에서 선원 어린이회를 취재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법당에서 불교 교리 맞추기도 하고 단체 줄넘기도 하고 법회 하는 모습도 찍고 선법가 합창도 했답니다. 그런데 스님, 질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절에 다닐 때도 어린이 합창단에 가입해서 찬불가를 많이 불렀는데요, 선원에서 또다시 선법가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자기 실상이 공이니까 공에다 모든 것을 놔버리세요 진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면 놓을 수 없어요"

답 이 마음의 도리를 진실하게 알아야 해요. 합창단이면 그냥 합창단이 아니거든. 그 마음을 같이 들어서, 주인공과 같이 들어서, 같이 돌아가는 걸 주인공이라고 하거든. 배가 없는 것이 주인공이요, 배가 없는 것이 한마음이요, 배가 없는 것이 부처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도리로 해서 참 진실하게 그 노래를 한마디 부를 때 우주 법계가 쩡하고 그냥 두루 같이 그 음파가 돌아갈 수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 우리는 이 몸뚱이 가지고 한 철 사는 거, 이 몸뚱이 있을 때에 전력을 다해서 이 도리를 배워라 이거지. 이 몸뚱이 떨어진다면 지금 물질적으로 살던 그 의식이 남아서 몸뚱이 떨어져도 그 의식이 그냥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 의식만 남았어. 그래서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다시 사람 되기가 극히 어렵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력을 다해서 하되 어린이들도 젊은 학생들도, 이 합창단에 들어서 활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린이 노래 가사를 우리 스님네들이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곡은 다른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이렇게 스님네들이 가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그 가사가 법이 돼서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님네들이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그냥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내 마음에 꽃이 피었네.
두루두루 꽃이 피었네.
붉게 익는다면,
삼라만상 우주 법계
그리고 우리 생활면에 모두 선도자가 돼서
우리는 뿌리를 이어 가고 중용을 이어 가면서
앞으로 세세생생에 거룩한 길을 걸으리.

이러한 노래도 짓고 말이야. 그냥 모두 그렇게 해서 어린이가 불렀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짜로 세계의 모든 마음을 조절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계의 아주 진짜 법이 되는 거지, 한마음으로 돼 주기 때문에. 그러니 열심히들 해 봐요.

그리고 내 마음의 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없다면 부처님 법도, 가톨릭교 법도, 기독교 법도 다 없는 거야. 그런데 요새는 보면 꼭 타의에 끄달려서들 찾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해! 기복으로 가서는 절대 나를 발견할 수가 없고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한테 재료를 다 두고도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 없다면 그거는 사람, 즉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없지. 그렇지?

인간으로 온 길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해.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거 내 공부하는 거, 노래하는 거, 모든 내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거, 효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모든 것은 내 주인공에 있다! 내 주인공을 믿고 내 주인공에다가 맡겨 놓고, 급한 일이라도 내 주인공에다 탁 맡겨 놓고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선 뛰어라 이거야.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돌아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야.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상표는 믿어도. 종교의 이름이 상표예요. 상표는 믿어도, 또 형상은 믿어도 그런 거는 못 믿겠어요? 위대하다는 걸 보면 굽신굽신 절을 하고, 거지를 보면 탁 튕기고 고개를 반짝 들고선 그렇게 하는 그 습관도 좀 놔야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몸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전자에 수억겁 광년을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아팠던가? 그리고 그 진화를 시키느라고 내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그러니 그때의 내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성숙하게 익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줄 알고 열심히들 해 보세요!

대한불교선밀종 임원 ·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양종 이거나 밀종으로 이루어진 현실에 해동초조인 원효선사를 종조로 밀로 점수하여 선으로 돈수하는 선밀종을 창종 하고저 발원 하오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의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선지식, 대덕스님과 인연 닫기를 기원합니다.

-입 종 안 내-

◆종 단 명 : 대한불교선밀종
◆종교단체등록 (37451-00292)
◆비영리법인고유번호 (513-82-65714)
◆총 본 산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 1동188 -7번지 관정사
◆연 락 처 : ☎ 054)976-0405 / FAX 054)976-4405
◆입종상담 : 010-3134-8484 (원묵)

大韓佛教 禪密宗
TEL 054)976-0405 / FAX 054)976-4405
www.sunmiljong.or.kr

석불,목불,동불,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금강역사석조물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제현사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

‘깨침의 약’ 제대로 만들어라



수행, 날개를 달다
각암 성원 지음
현대불교 펴냄|1만원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깨닫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방법과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경전마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다르고 조사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깨달음이라는 궁극으로 향하는 길이 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다.

<수행, 날개를 달다>는 혼돈 없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수능엄경>의 가르침으로 풀어준다. 본래의 갖춰진 이름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인 <수능엄경>은 선법의 중요한 의미와 실행법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능엄’이란 모든 일이 파손되지 않고 완전무결해진다는 뜻인데 ‘선정’을 뜻한다. 경전의 핵심내용은 사마타(止)와 삼마지(觀), 선(禪)을 차례로 설하고 우주의 생성원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경은 밀교의 수행법이라 할 수 있는 ‘능엄다라니(능엄신주)’의 수지 독송을 권장하고 있다. 모두 10권인데 그 중 7권이 능엄신주를 설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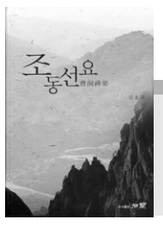
<수행, 날개를 달다>는 <수능엄경>을 근간으로 하는 수행의 올바른 방법 즉 ‘귀복법(歸伏法)’을 설명하고 있다. 귀복법은 철저하게 진리에 귀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집이 허물어지면 수리해서 쓰는 것이고 약이 말라 못쓰게 되면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 약을 만드는 법이 귀복법이다. 이 법을 알면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이게 되리라”라는 옛 게송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

<수능엄경>을 풀이하고 해설하는 해설서가 아니라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요체와 수행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 <수행, 날개를 달다>의 핵심이다. 저자 성원 스님은 평생 수행을 하며 체험한 경지들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또 조선시대의 도인으로 전해지는 소능 선사의 어록에서 공부에 요긴한 부분들을 가려내어 귀복법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

현재 남해 화방사 난야에서 정진 중인 성원 스님은 출가 이후 사찰 행정을 맡아 보면서 10년 동안 <금강경>을 독송하고 피를 토하며 관음기도를 했다. 또 1000일 동안 <반야심경> 사경을 했고 <금강경>과 <법화경> 전7권의 사경본 수십 권을 만들어 주변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 해 온 성원 스님이 <수능엄경>과 소능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하겠다는 원력으로 <수행, 날개를 달다>를 저술하게 된 것이다. 임연태 기자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요체와 수행 방법 설명

조동종의 씨앗에서 열매까지 고찰



조동선요
김호귀 지음
석란 펴냄|1만원

중국의 선종은 시대를 따라 다양한 종지를 주창해 왔다. 그 가운데 조동종은 서기 900년을 전후하여 일어난 하나의 선풍으로 동산양개와 그의 제자 조산본적에서 유래했다.

조동종은 인간은 모두 불심을 구비하고 태어난다는 본래불성설을 확고한 기반으로 삼는다. 김호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가 최근 펴낸 <조동선요>는 절강성의 명주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던 조동종의 발생과 발전 내력을 살핀 역작이다. 김 교수는 먼저 불교 이전 인도의 수행법이었던 명상에서 시작하여 부처님의 수행법과 중국으로 건너 온 뒤 달마로부터 전해져온 선의 흐름을 짚으면서 조동선의 발생과정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다. 조동선의 원류인 동산양개와 그의 제자인 조산본적의 선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특히 당송을 거치면서 조사선이 간화선과 묵조선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가는 시기에 조동선의 맥을 이은 굉지정각이 묵조선을 주창하며 새로운 형태의 선수행 운동을 열어 가는 과정도 적나라하게 살폈다.

임연태 기자

부처님이 걷던 길에서 배운 것들



붓다의 자취를 찾아서
무산본각 지음
통키 펴냄|1만3500원

“룸비니 동산에 앉아 잠시 좌선하고 눈을 떠보니, 해가 저물어 가고 붓다께서 탄생하신 자리에 있는 무우수 나무는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며 우리가 오래된 길을 여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듯 마치 바위처럼 서 있었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이란 주재 상사협의회장까지 역임했다가 이란-이라크 전쟁의 지옥 같은 실상을 접하고 수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자가 붓다의 고향인 인도를 순례하고 쓴 일종의 성지 순례기다.

저자는 올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인도를 찾았다. 이 순례에서 저자는 부처님께서 정각한 ‘보드가야’를 비롯해 첫 가르침을 펴신 사르나트의 ‘다메크 스투파’, 열반지인 ‘쿠시나가르’, 탄생지인 ‘룸비니’ 등 부처님 성지 구석구석을 참배했다. 그 술회를 한데 묶은것이 이 책이다.

1부 ‘꽃비 내리는 길’에서는 유적지마다 감상과 함께 견문 및 자세한 설명을 달아 놓았다. 특히 인도에 관한 기초정보와 몇 마디의 힌두어, 음식 관련 정보 등도 실어 놓아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어 2부에서는 함께 순례했던 도반 9인의 동참기를 정리해 실었다. 김주일 기자

티베트 17대 까르마빠 이야기



까르마빠, 나를 생각하세요
미셸 마틴 지음
지영사 펴냄|2만원

이 책은 티베트 불교에서 환생시스템을 처음으로 정립한 까규법맥의 17대 환생자인 까르마빠, 오겐 틴레 도르제에 관한 소개서로 한글로 번역되긴 처음이다.

1992년, 16대 까르마빠의 유언장에 따라서 환생자인 17대 까르마빠를 티베트에서 찾아나서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된다. 그리고 라톡에서 7살이 된 까르마빠를 찾아낸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즉시 이 환생자가 적법한 까르마빠 환생자임을 확인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다.

츄르프 사원에서 17대 까르마빠로 생활하게 된 오겐 틴레 도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호존 마하칼라를 위한 의식과 잡귀를 물리치는 의식 등의 염송을 하면서 대중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를 드렸다. 총명한 오겐 틴레 도르제는 암도 뺄덴을 비롯한 많은 스승들의 도움을 받으며 수행을 계속한다.

중국정부도 인정한 환생자였지만, 중국의 감독과 감시로 자유롭지 못했던 17대 까르마빠는 티베트를 탈출하기로 마음먹는다. 그의 나이 14살이던 1999년이었다. 환생자로 인정받고, 수행하다가 극적인 탈출을 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김주일 기자

화가 스님 인도에서 본 것은?



낙타를 모는 성자
허허당 지음|호미 펴냄|9000원

인도인의 손은 그야말로 천수천안이다.
새까맣게 때 낀 손. 그 까만 손에서 오만가지 일들이
마술처럼 술술 풀려 나온다.
물이 귀한 사막에서 그들은 모래를 물처럼 사용한다.
모래를 한 움큼 냄비에 집어넣고 그 까만 손이 냄비 안에서
휙 한 바퀴 돌면 눈 깜짝할 사이에 냄비가 반짝반짝 빛난다.

그들의 손은 흙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손은 자연을 떠나지 않는다. 오랜 세월 흙과 함께 자연과 함께 지내온 인도인의 손은 흙처럼 순하고 흙처럼 부드럽다.

최근 7년 만에 ‘천년의 세월을 씻고’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던 허허당 스님. 한 화폭에 수 천 명의 동자승들을 그려 넣고 동자승들이 이루어 내는 갖가지 형상들을 묘하게 드러내는 독특한 기법의 그림들이 한층 농익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도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기법의 그림을 시도해 몇 폭을 내 놓았는데 “인도여행에서 상당한 수확도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런데 수확은 그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인도 여행은 스님에게 새로운 정신세계를 열어주는 계기였고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책으로도 묶어진 것이다.

허허당 스님은 그간 화폭에 출현시켰던 수 천 수 만 명의 동자승들과 함께 화엄법계를 탐색하며 ‘진리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인도에서 낙타여행을 하며 누가 진정한 성자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3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4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향덕	운주사
5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7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8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9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10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성철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직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大韓護國佛敎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23. 배휴!〈끝〉

안명(安名)이라는 이름으로 제방에 회자된, 황벽이 배휴를 깨닫게 한 선화가 있다. 황벽에게 배상국이 불상 하나를 모시고 와서 앞에 꿇어 앉아 말했다.

"스님께서 이름 지어 주십시오(請師安名)."
선사가 "배휴!"하고 불렀다.
이에 배상공이 대답하거늘,
"이름 다 지었소."
배휴가 절을 하면서 말했다.
"스님께서 이름 지어 주신데 감사합니다(謝師安名)."(〈선문염송〉 394칙 '존상')

이 우스꽝스런 놀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배휴가 황벽에게 불상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간청하였고, 황벽은 "배휴"하고 불렀고, 이 부름이 그의 간단명료한 직절의 교육법이고, 배휴는 무심이고 배휴는 일심이고, 배휴의 대답은 일심이니, 어찌 이름을 지어 주지 안했다 할 것인가?

철저한 자기 인식, 마음 밖에 따로 한 법도 없음을 회광반조(廻光返照)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아니고 감을 사 주어서 감사하는 '나'일 따름이다. 또 뒷날 선객들은 394칙 '존상' 이야기에 게송을 붙여 깊은 의지를 발명하고 있다.

황벽의 '이름부르기' 철저한 자기 인식을 위한 가르침

선종 삼제윤회 끊기 위해 세번 손찌검한 선화 전해져

오색으로 단장하여 손에 받들고 왔거늘 五彩粧來掌上擊/노호는 억지로 거짓 이름 붙였네 老胡剛爲立處名/그대 지금 조사들을 초월코자 한다면君今欲得超諸祖/모름지기 금강의 정수리를 걸어가거라 須向金剛頂 顚行 –보녕용

위 게송, 1행은 불상의 형상을 존귀하게 생각하여 오색을 단장하여 모셔왔지만, 이런 생각 모두 자기 속에 있는 자가보장(自家寶藏)을 망각하고 외경에 마음 빼앗겨 표피적인 6식을 채우기 위해 헤매는 꼴이다. 2행은 배휴의 청에 억지로 거짓으로 짐짓 이름을 붙여준다. 여기서 노호(老胡)는 무심에 계합한 황벽 자신이고, 또 거짓으로 이름 붙여준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다. 3행에서는 시의 흐름이 반전하여 우리의 깊은 곳에 손을 들어 밀며 깨우치고 있다. 그럼 금강의 이마는 무얼 말하는가? 바로 조사들이 말하는 "풀머리 머리가 밝고 밝구나(艸頭明明白白)"한 만물과 일체의 도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함이 있는 것(有爲)의 일착자(一着子)를 이른다. 가령 눈덩이를 굴릴 때, 눈덩이가 구르며 처음 닫는 바닥의 눈과 눈덩이에 눈이 닿는 그 찰라. 이것을 선문에서는 '다리 아래를 보라(照顧脚下)니, 특별히 기특할 것이 없다(別無奇特)'라 힌트를 준다. 황벽은 당부한다.

티끌세상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塵勞迥脫事非常 / 밧줄을 단단히 잡고 온 힘을 기울여라緊把繩頭做一場 / 뼈속에 스며드는 추위를 겪지 않고선不是一番寒徹骨 / 어찌 매화가 그 향기로 그대를 즐겁게 하리 爭得梅花撲鼻香 –황벽운

임제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황벽의 견해가 명료하고 단호하였던가를 보여주는 선화가 있다.

황벽이 염관 제안 회상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회창 무제의 폭정을 피하여 공부하던 뒷날 대중(大中) 황제 선종의 물음에 경책을 주기 위해 세 번이나 손찌검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뒤 황제가 된 선종은 황벽에 대해 남은 인상 때문에 추행사문이라는 호를 주려 하였다. 그 때 재상으로 있던 배휴가 간언하기를 "선사가 그때에 세 번이나 손찌검을 한 것은 폐하의 삼제윤회(三際輪廻)를 끊어주기 위한 것입니다"하니 선종이 그를 기리어 단제(斷際)선사라고 사호하였다.

그리고 배휴가 엮은 〈완능록(宛陵錄)〉이 있다. 황벽과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어록이다. 특기할 것은 깨침의 방법으로 화두(공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다. 이 간화선이 바로 직전 상족인 임제 의현에게로 전수되어 오늘날 '임제종은 간화선이다'라는 말의 근원이 된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㉓〈끝〉

게 눈 속의 연꽃
황지우|문학과지성사, 1990| 값 6000원





연꽃처럼 피어나는 불교적 감성

황지우는 1952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하여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그의 시집 가운데 네 번째 시집인 〈게 눈 속의 연꽃〉(1990)에 높고 깊은 불교적 상상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테면 "게 눈 속에 연꽃은 없었다/ 普光의 거품인 양/ 눈꼽낀 눈으로/ 게가 뻐끔뻐끔 담배연기를 피워올렸다/ 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연꽃을/ 게는, 그러나, 볼 수 있었다"('게 눈 속의 연꽃' 부분)고 대상의 감각화와 함께 언어도단의 선적 기법을 시에 구사한다.

대상의 감각화는 "원효사 처마끝 양철 물고기를 건드는 눈송이 몇 점/ 돌아보니 동편 규봉암으로 자욱하게 몰려가는 눈보라///(중략)/// 무등산 전경을 뿌옇게 좀먹는 저녁 눈보라여/ 나는 벌받으러 이 산에 들어왔다"('눈보라' 부분)라고 하여 시 읽는 재미를 준다.

시 '영산(靈山)'은 의상대를 대상화하여 원효와 의상의 일화를 대화기법으로 사용한다. '금곡(金谷) 영산'에서는 "눈 덮인 금곡 영산 암벽에/ 사선으로 들어가는 저녁노을이/ 잔뜩 인상 쓴 마애불을/ 음각한다"(부분)는 표현들 역시 선명한 감각을 이룬다. 그의 시에서 지붕 처마에 매달린 풍경은 여러 번 비유되는데, 다음 부분이 절창이다.

극락 싣고
정박 중인 배
무위사 극락전 처마에
이크, 물고기 한 마리 남였다
배가 출렁거렸고
쨍그랑, 쨍그랑,
구리물고기,
배때기를 팽팽하게 부풀린 허풍:
THE ROPE OF HOPE라고나 할까

닻줄에 의해 끌어올려지는
수렁 속의 전갈문자

– 'THE ROPE OF HOPE' 전문

활달하고 감각적인 비유, 제목을 영문으로 쓴 파격, "여그가 긍락이여"라는 방언의 사용, "무위도 아프다는 거다"라는 경구가 시 읽기를 재미있게 한다. 이러한 파격의 형식은 다른 시 '경고'에서도 보여준다.

담뱃갑 문자와 도형을 시에 그대로 삽입하고, 후반부에는 조주 스님의 선문답을 인용하고 있다. '산경(山經)을 덮으면서'와 '구름바다 위 운주사'는 화순 운주사 여행경험을 시화하고 있다.

우리 마누라는 내가 글을 쓰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지가 시름시름 앓는다
무위도 아프다는 거다
'희망의 끈'에 걸린 주둥일 괜히
잡아채면서 구리물고기,
여기가 극락이오
여그가 긍락이여
요동친다

이들 시에서 "와불 부부의 더 추운 동침"과 "온 우주를 다 돌아다녀도/ 정들 만한 곳"이 사람 마음이라는 표현이 좋다. '바다로 돌아간 거북이'는 여수 돌산 영구암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화와 비구의 겁지 손가락이 없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창작자는 그 비구의 "… 손가락이 타지 않고 자지가/ 지지지짓, 타고 있었으리라"고 상상한다. '허수아비–모기경(經)'은 〈화엄경〉을 인용하며, '허수아비–똥방석'은 좌선중인 인물의 상황, '허수아비–지역감정'은 연기론, '처마 끝 서천'에서는 "극락전 처마 끝에는 귀퉁이 서까래가 늘어나/ 먼 서역에 닿아 있다"는 원대한 상상을 한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㉓두부속 고추튀김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꼭 필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고춧가루입니다. 김장에 쓰는 고춧가루는 10월 경 매운 맛을 내는 고추(Capsicum anuum)의 열매를 말려 곱게 빻은 것입니다. 고추의 학명은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Capsicin)에서 유래된 것이지요.

고추는 고춧가루나 고추장에 이용되는 매운 고추 외에도 매운 맛이 덜한 꽈리고추, 단 맛이 나서 샐러드나 잡채에 이용하는 피망 고추,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진의 화초고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고추는 17세기 중기 중국을 통해 전래
최루탄·동상 예방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국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추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남아메리카입니다. 고추는 16세기 이후 스페인함대에 의해 유럽에 알려진 이후로 17세기 중엽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먹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먹는 침채(沈菜)가 존재했습니다. 침채에 고춧가루가 가미되면서 지금의 김치가 탄생한 것이지요.

그런데 17세기 전에 먹지 않았던 우리의 전통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고추장입니다. 고추의 도입 후 그 가루를 발효식품화 한 고추장은 이제는 우리만의 독특한 식품이 되었습니다.

고추는 먹거나 보는 것 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최루탄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옛날에는 전시(戰時)에 고춧가루를 태운 연기를 적진에 날려 보내 재채기나 콧물을 일으키고, 눈을 못 뜨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고추씨를 뺀 익은 열매를 양말 속에 넣어 동상을 예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추는 가지과 식물로 원산지에서는 다년초(多年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리가 내리면 시들어버려서 일년초(一年草)로 취급됩니다. 여름에 흰색의 작은 꽃이 피며 그 자리에 열매가 달립니다. 잎은 찜이나 무침에 이용하고, 덜 익은 열매는 풋고추라 하여 여러 가지 요리에 이용됩니다.



두부속 고추튀김

재료 : 고추, 두부, 깨소금, 된장, 식용유

만드는 법

① 고추는 길이로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둔다.
② 두부는 깨소금과 된장으로 간해서 으깨 둔다.
③ 고추 속에 으깬 두부를 가득 채우고 120℃의 기름에 튀겨낸다. 예쁘게 썰어서 담아낸다.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엮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저중간에는 사찰과 불자가정의 비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학2마리"가 비상을 하며 손잡이 하단에는 공양하는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육자대명왕진언"옴"자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다니"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3,5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님께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용 2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50,000원, 100Set 10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속설로 2007년 12월이 되면 정해년의 기운은 다해 떠나가고 무자년의 새로운 기운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해야한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 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음식으로 이색 연말모임 어때요

연말모임이 한창이다. 오랫동안 못 보던 이들을 만나는 반가움도 잠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쉽다. 각 모임마다 등장하는 술과 고기는 특히 건강을 상하게 한다. 더욱이 현재 다이어트 중이거나 채식을 즐기는 사람은 모임 초대마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반복되는 모임에 색다른 변화를 줄 수는 없을까? 사찰음식으로 파티메뉴를 편성해 건강에 효과적인 모임을 마련해 보자. 건강과 함께 기계로 찍어낸 듯한 천편일률적인 파티 식단에 변화와 엑센트를 준다면 모임이 훨씬 더 흥미롭고 의미 있지 않을까.


두부소스단호박찜


녹두빈자병


들깨국수

좋은 줄은 알지만 생소한 사찰음식. 과연 파티에 어울릴까?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소 소장)은 "사찰음식은 서양음식에 비교해도 맛과 멋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고 조미료 등을 넣지 않아 정갈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함은 물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사찰음식은 먹는 몸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며 사찰음식이 파티음식으로써 맛과 멋 그리고 웰빙식의 기능까지 두루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일단은 약간의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손님을 맞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밖에서 만나던 이들을 안에서 만나보자. 요즘은 까페 · 바 등을 빌리기도 하고 서비스드 레지던스에서 파티를 열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장소는 '집'이라고 파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녹차와 채식> 저자인 사찰음식 전문가 홍승 스님은 상차림 보다는 뷔페를 권하며, "참석하는 사람들이 음식 하나씩 장만해서 모인다면 서로 정감이 더할 것"이라며 포트럭 파티를 추천했다. 포트럭 파티(Portluck Party)는 파티에 초청된 사람들이 각자 한 가지씩 요리를 마련해 오는 파티다. 포트럭 파티에 사찰 음식을 준비해 갔다는 이지은(35, 서울 성동구 응봉동)씨는 "전채요리로 상큼한 연근 초절임과 녹차두루말이 등이 친구들에게 특히 인기였다"며 일반인들의 사찰음식 선호를 증명했다.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과 홍승 스님에게 연말 모임에 어울리는 메뉴를 물었다. 스님들은 표고버섯탕수이, 우엉잡채, 우엉피망튀김과 가지고추장구이, 버섯야채팔보채, 버섯순두부들깨탕 등을 추천했다.

홍승 스님은 "겨울철 식단은 찬 음식과 더운 음식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계절에 어울리는 차의 준비도 주문했다. 사찰음식을 식단으로 하고 겨울 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유자차와 모과차를 준비해 보자. 단조롭던 연말 모임의 색이 바뀔 것이다.

조동섭 기자

사찰음식 조리방법

마두부찜

■ **준비할 재료** – 마 500g, 두부 1/2모, 표고버섯 2장, 당근 30g, 은행 8알, 잣 1큰술, 마가루 1/4컵, 소금, 후춧가루, 식용유 약간

■ **이렇게 만들어요**–①마는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간다. 마의 껍질을 벗길 때 무쇠칼을 쓰면 색이 변하므로 스테인리스 스틸 칼을 사용한다. 두부는 물기를 닦고 칼등으로 으깨 체에 내린다.

②불린 표고버섯과 당근을 채 썰어 각각 기름 두른 팬에 소금 간해 살짝 볶는다. 은행은 마른 팬에 볶아 속껍질을 벗기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빼서 채 썬다.

③그릇에 마 간 것, 으깬 두부, 볶은 표고버섯과 당근, 은행과 대추, 잣을 넣고 섞은 후 마가루를 넣고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④반죽으로 반대기를 만든 후 김이 오른 찜통에 넣고 쪄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낸다.

표고버섯탕수이

■ **준비할 재료** – 불린 표고버섯 20장, 양송이버섯 2~3개, 오이 40g, 당근 30g, 브로콜리 40g, 피망 30g, 배추잎 40g

소스 재료 –표고버섯 우린 물 2컵, 물 1컵, 다시마 20g, 표고버섯 우린 물 1/2컵 , 간장 1/2큰술, 소금 1/2큰술, 설탕 1작은술, 식초 1작은술, 고추기름 1큰술, 녹말물 3~4큰술

■ **이렇게 만들어요**

① 표고버섯 튀기기

a. 불린 표고버섯 20장을 찬 물에 30분~2시간 정도 담궈 불린다.

b.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짠 후, 소금 약간, 간장 약간으로 밑간 한다. (표고버섯 불린 물은 따로 둔다.)

c. 표고버섯에 녹말 약간(2~3큰술)을 직접 묻혀서 170℃에서 노릇노릇할 정도로 튀긴다.

d. 튀긴 후 기름을 빼고 다시 한번 10초~20초간 튀겨 낸다.

② 채소 손질

a. 양송이버섯 2~3개를 도톰하게 저민다.

b. 오이 40g, 당근 30g을 먹기 좋게 썬다.

c. 브로콜리 40g을 준비한다.

d. 피망 30g, 배추잎 40g을 먹기 좋게 자른다.

③ 소스 만들기

a. 표고버섯 우린 물 2컵, 물 1컵, 다시마 20g을 넣어 끓인 후,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 낸다.

b. 간장 1/2큰술, 소금 1/2큰술, 설탕 1작은술, 식초 1작은술, 고추기름 1큰술을 넣어 끓인다.

c. 손질한 채소를 넣는다.

d. 물 1/3컵에 녹말 2큰술을 섞어 만든 녹말물을 넣어 한소끔 끓인다.


마두부찜


삼색떡꼬치


표고버섯탕수이



14. 수족냉증

겨울이 되면 유난히 손이나 발에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손발이 차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수족냉증'이라고 한다. 따뜻한 실내에서 신체의 각 부위 특히 사지와 요부에 냉감을 느껴 곤란한 상태이거나, 신체의 다른 부분은 전혀 차가움을 느끼지 않는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특정부위만 차가움을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증상을 1년 내내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겨울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수족냉증에 대해 알아보자.

수족냉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경락을 타고 흐르는 양기가 부족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간의 기운이 손상을 받아서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이유로 잦은 불안, 걱정, 심한 우울증도 수족냉증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혈액순환 장애·우울증 등 원인

단백질 섭취하고 찬 음식 피해야

냉증은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하지만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 동요가 쉬워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쉽게 어지럽게 되기 때문이다. 또 여성은 사춘기 이후 배란 및 월경이라는 호르몬의 변동을 반복하게 되므로 이런 내분비적 변화에 의해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쉽게 변화할 수 있다. 특히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사춘기와 출산 후 및 갱년기,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난소낭종, 자궁근종 등의 자궁질환을 지닌 여성, 근육양이 적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밖에 빈혈이나 교원병, 각종 혈관질환 및 내분비장애 등이 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가 수족냉증을 단순 증상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족냉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손발이 시린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어혈이나 수분대사 장애로 인해 나중에는 손발이 저려오고 통증까지 호소한다. 또 이런 장애로 인해 수족냉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혈액의 원활할 흐름을 방해해 수족냉증이 있는 부위에 부종이 생기는가 하면 저혈압과 만성피로 등 전신증상으로 악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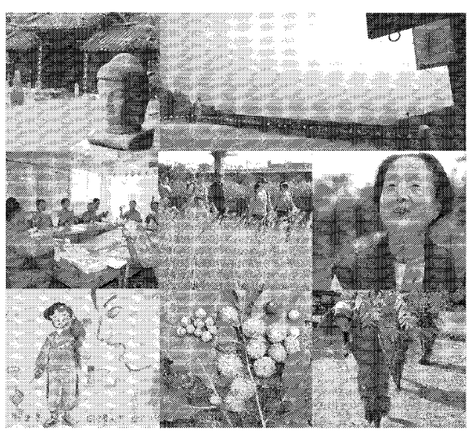
수족냉증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식습관 및 운동요법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소에 신진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차가운 음식, 음료는 가급적 피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서 몸의 냉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가벼운 걷기 운동, 손뼉 치기, 조깅등과 같은 운동은 혈액순환과 근육량을 늘리는데 좋은 방법이다. 또한 체온 상승 및 유지 효과가 큰 반신욕과 족욕은 증상완화에 도움을 준다.

한방에서는 수족냉증이 잘 오는 사람은 비장이나 위장이 약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몸 가운데 위치해 기의 운행을 조절하는 기관을 비장과 위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수족냉증의 치료법으로는 기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약물요법, 열습포법, 뜸요법, 침요법 등이 있다. 약물요법의 경우 그 원인에 따라 다른 처방을 하게 되는데 원인이 어혈이면 당귀작약산을, 기혈이 허하면 십전대보탕을 주로 처방한다. 또한 소화기능의 약화가 원인이라면 위장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육군자탕 등을 처방하고 설사를 자주 하면서 배가 찬 경우라면 이중탕 등으로 치료한다. 수족냉증이 심한 경우에는 뜸이나 침치료를 병행하는데 복부나 다리 쪽에 치료를 하면 따뜻한 기운을 손과 발까지 흐르게 해주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 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





러브레터 | 사랑, 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사랑이란 이름의 실전 수행 2(자기를 잊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마음이 보인다)
소설가 정찬주와 떠나는 명상여행 | 인도에서 본 팔상록 9(녹원전법상)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경전편) | 『법화경』
생활불교 가이드 | 보름 포살 법회란 무엇인가?
연병장에 피어나는 연꽃 | 부산 금련사
문태준 시인의 치유포토에세이 | 이별에게
숲길 10 | 화성 용릉, 건릉의 숲
테마가 있는 사찰, 그곳에 가고 싶다 | 운길산 수종사
집중인터뷰 | 방혜자 화백
드라마작가 정형수가 추억하는 내 기억속의 절밥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찾아서 | 공주 흥복사 도토리 야채 수제비
향기로운 사람들 | 학습지도 자원봉사 불자 · 부처님께 사진 공양 올리는 불자
도쿄통신 | 일본의 '와비사비'
법현 스님의 숫자로 보는 불교 | 여덟 가지 특별한 것을 갖춘 아난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불교와 박물관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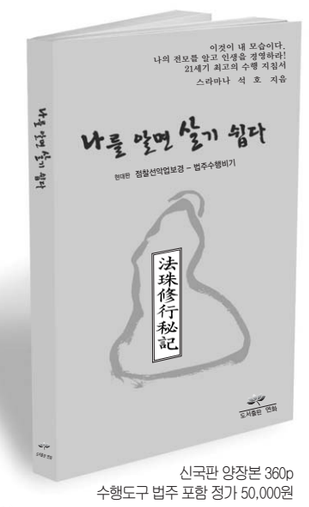
이것이 내 모습이다.
나의 전모를 알고 인생을 경영하라!
과거 · 현재 · 미래를 아는
21세기 최고의 수행 지침서

나를 알면 살기 쉽다

스라마나 석 호 지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을 아예 모른다.
약간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어렴풋이 나마 안다.
완전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 줄 안다.
이 수행서는 약간 지혜로운 자가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추천의 말, 저자)

모든 존재는 각각 〈내면의 완전성〉을 지닌다.
내면의 완전성이란 곧 붓다이자 다르마(法)이며, 삶을 꾸미는 에너지의 처소이다.
당신 속에 든 붓다를 깨울 방법은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 속의 붓다는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니며 활동하는 붓다를 보는 법이 여기에 있다.
법주(法珠)를 통하면 스스로 그 활동을 알 수 있으며
현실적 성공을 이루는 지름길을 찾을 수도 있다.
당신의 현재 모습 속에서 전생과 미래를 모두 동시에 볼 수 있다.
법주는 그것을 가능케 하며, 그대 내면의 완전성은
100% 바른 점찰(占察)로 인도한다.
당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수행에 의해
현재와 미래 모습은 수시로 바꿀 수 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각자의 모습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마음 과학에 의해
밝혀놓은 수행서이다.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신국판 양장본 360p
수행도구 법주 포함 정가 50,000원

www.bubju.kr ※ 범주수행회 전국 시 · 도 지부장님 모십니다.(053-654-0408)

온라인〈농협〉 1343-02-005446 (예금주:이성한) 도서출판 연 화 Tel. 053)253-1923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1) 달마산 미황사

나무를 병풍삼고 앉아 바다를 굽어보네


미황사 조망.

한국불교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중국 전진(前秦)에서 육로를 통해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전개된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그에 훨씬 앞서 허황후와 함께 들어온 가야불교 이야기가 있고, 남해안과 서해안에 인접한 여러 고찰의 창건사에도 불교의 남방전래설이 다양하게 남아있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의 창건사도 남방에 인연을 두고 있다.

<미황사 사적기>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때, 돌배 한 척이 많은 경전과 불상 등을 모시고 산 아래 사자포구에 들어왔다. 그 날, 창건주 의조 대사 꿈에 자신을 우전국(優塡國, 인도) 왕이라고 밝힌 금인(金人)이 나타나 경(經)을 봉안하고 절을 세우라고 했다. 이 창건설화는 당시의 불교가 중국에서 육로를 통한 도래 말고도,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래했음을 말해준다.

미황사를 품은 달마산은 대흥사가 있는 두륜산의 줄기가 서남진하면서 세워놓은 산이다. 달마산 줄기는 이어 도솔봉을 세우고 땅끝(토말) 사자산에 이르러 푸른 바다로 몸을 감춘다. 달마산은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연상케 하는 암릉이 장쾌하다. 관음봉~불썬봉~떡봉~도솔봉에 이르는 암릉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파도의 포말처럼 역동적이다. 그래로가 출렁이는 파도산이다.

미황사 주차장에 내리면 경내까지는 차도와 인도로 나뉘어져 있다. 주차장과 해우소 그리고 경내에 이르는 구간은 낙엽 지는 활엽수와 난대상록수들이 반분하고 있다. 자하루를 시작으로 미황사 경내가 펼쳐진다. 자하루와 범종각은 하단에 자리하고, 중단엔 넓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향적당, 세심당, 범종각과 후원 등이 자리하고, 상단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당, 달마전, 삼성각, 만하당 등을 주변에 배치하였다.

미황사의 본전인 대웅보전은 영조 때 중수된 건물로, 주춧돌에 새겨진 게와 거북 등 바다생물들은 오는 이들마다 사진에 담아가는 단골소재이다. 이 바다생물로 해서 대웅보전은 그대로가 반야용선(般若龍船)이 되었으니, 창건설화와도 잘 들어맞는다. 문짝에 달린 호랑나비 경첩까지, 이 모두가 부처님이 사생자부(四生慈父)임을 드러내주는 상징들이다.

두리기둥은 보길도 앞바다에 3년을 담가두었던 느티나무라고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뭇결이 나이테처럼 새롭게 감겼다. 보는 사람 없는 사이에 해마다 조금씩 뒤틀리면서 모양을 달리한다. 나무는 죽어서도 그렇게 늙어간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웅보전 기둥이 흰개미의 공략을 받아 곳곳에 아픈 생채기를 드러내고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늦가을, 기온이 내려가면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노린재나 무당벌레 종류들은 보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대웅전과 같은 전각 내부는 그들에겐 더 없이 좋은 안식처가 된다. 썩덩나무노린재 한 마리가 기둥에 붙어서 대웅전 내부 진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명부전 안에는 은행나무로 빚은 시왕상이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고산 윤선도의 증손이자 국보 '자화상'을 그린 공재 윤두서가 절 부근에 있던 은행나무를 베어 조성했다고 한다.

응진당은 경내에서 가장 높은 전각이라 바다를 굽어보는 눈맛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생태하는 이들은 그런 미학보다 응진전 뒤로 경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내화수림대의 생태성을 더 값지게 쳐준다. 이 숲띠는 산불이 경내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경내에서 일어난 화재가 산으로 옮겨 붙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방화벽 역할을 한다. 선운사를 비롯해 남도의 몇몇 고찰에서도 방화벽으로 동백나무를 심은 예가 있지만, 이곳 미황사는 동백나무 말고도 종가시나무, 생달나무, 센달나무 등을 군락으로 조성하여 자연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센달나무는 남쪽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상록활엽수이다. 키가 10m까지 자라고, 황갈색의 줄기를 갖고 있다. 잎은 가지에 어긋나게 달리며, 뾰족하다. 5월에 연한 황록색 꽃이 피며, 다음해 가을에 흑록색 열매가 달린다.

남도사찰답게 미황사 경내의 조경수는 난대상록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향적당 앞에 비파나무와 유자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다. 남오미자와 마삭줄, 콩짜개덩굴, 쇠고비 등도 석축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응진전 앞에는 원예수종인 피라칸타가 붉은 열매를 달고, 후원으로 가는 길 왼쪽에 보리장나무가 하얀 꽃을 피웠다.

비파나무는 중국을 원산으로 하지만, 일본에서 원예종 과일나무로 가꾸어서 널리 퍼뜨렸다. 잎은 상록이며 윤기가 있다. 꽃은 가을에 피고, 열매(비파)는 다음 해 여름에 황적색으로 익는다. 비파 속에 든 씨앗으로 번식시킨다.

보리장나무는 관목처럼 보이는 덩굴나무이다.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상록활엽수로,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며 비늘털이 있다. 때마침 꽃을 피워 진한 향기를 공양하고 있다. 꽃을 꺾어 부처님 앞에 올려야만 공양인가, 사중에 꽃나무 심는 일이 바로

웅진전 뒤로 내화수림대 형성 경내 산불 진입 방지
경내 연못엔 다양한 수생식물·수서곤충 등 서식

꽃공양 향공양이 아니겠는가. 경내 초본으로는 향적당 돌계단 틈에 괭이밥이 노란 꽃을 피웠고, 대웅보전 뒤로는 머위가 파랗다. 대웅보전 옆 화단에는 배풍등이 빨간 열매를 달았고, 연못가에는 궁궁이가 늦게까지 꽃을 피우고 있다. 자하루 아랫단에는 습한 곳을 좋아하는 골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귀화식물로는 불사 과정에서 들어온 주홍서나물과 미국가막사리 등이 관찰되었지만, 다른 사찰에 비하면 종류와 개체수 모두 적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황산에도 여러 유혈목이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파충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파충류들은 동면에 들어 관찰되지 않았다. 대웅보전의 석축 아래 불두화 나뭇가지에 뱀의 허물이 걸려있다. 나무를 잘 타는 누룩뱀은 허물을 벗을 때 돌의 거친 부분이나 나뭇가지 사이에다 머리 부분의 허물을 걸리게 하여 나머지 허물을 벗어낸다고 한다.

수종이 다양한 만큼 미황사 주변엔 새들이 많다. 늦가을이라 동박새, 직박구리, 어치, 쇠딱다구리 등 텃새들만 관찰되었지만, 기후가 따뜻하여 때가 되면 여름철새들이 많이 날아든다고 한다.

경내에 몇 개의 연못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눈길에서 벗어나 한갓진 곳에 자리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모양새도 수더분하고 천연덕스럽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생태성이 살아 있다. 수생식물은 물론 수서곤충도 여러 종이 살고 있는 경내의 살아있는 비오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황사 부도전은 조각으로써 생태계를 보여준다. 대웅보전 주춧돌에서 보여준 게와 거북 등을 비롯한 바다생물과 각종 조류, 그리고 토끼와 다람쥐 등 포유류들이 부도에 조각되어 있다. 그야말로 태난습화(胎卵濕化) 사생(四生)이 다 모여 또 다른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도전 주변으로 몇 그루의 키 큰 종가시나무가 서 있고, 그 발아래 도토리들이 흩어져 있다. 참나무 하면 낙엽활엽수를 생각하지만, 상록 참나무도 있다.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이 모두 상록참나무들이다. 종가시나무는 상록활엽수로, 원산지가 우리나라다.

배밭삼거리에 오르면 문바위-봉화대(불썬봉)-관음봉까지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거친 암릉이 이어진다. 높이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식물 분포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능선에 이르면 아래쪽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난대상록수들은 베어낸 듯 사라지고, 졸참나무, 소사나무, 때죽나무, 철쭉, 진달래 등 낙엽활엽수들이 강한 바닷바람에 몸을 한껏 낮추고 있다.

문바위 일대는 달마산 암릉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을 보여준다. 문바위에서 미황사로 하산하는 산행로가 있고, 봉수대로 이어지는 암릉로가 있다. 군데군데 조릿대들이 왕성한 기세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릿대 군락은 달마산 사면에 두루 퍼져 있다. 조릿대는 키가 작아서 주위의 나무들이 낙엽을 떨군 겨울에 더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다.

봉화대에서 헬기장을 지나 미황사로 이르는 구간구간에 이따금 너덜지대가 지나간다. 군락으로는 서어나무, 졸참나무, 가시나무 군락이 있다. 이 구간의 큰키나무로는 소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말채나무, 개암나무, 대팻집나무, 사람주나무, 팥배나무, 덜꿩나무, 비목, 해송, 굴피나무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붉가시나무, 후박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종가시나무, 까마귀쪽나무 등 난대상록수들은 주로 헬기장 아래에 어우러져 있다.

지네고사리와 쇠고비를 비롯해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몇 종류의 양치식물도 눈에 띈다. 지네고사리는 생김새가 지네발을 연상케 한다.

해가 저문다. 사자포구 멀리 노을이 깔리고 있다. 해 떨어지는 자리에서 옛 선지식이 남긴 일몰관(日沒觀)이 떠오른다.

欲往西方九品蓮 극락에 나고자 하는가.
但觀落日如懸鼓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보라.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보리장나무.


센달나무.


종가시나무 열매.


썩덩나무노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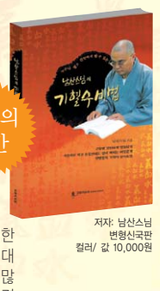

지네고사리.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www.kukbukarma.com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www.sungjongsa.co.kr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감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좌위치와 실제 당좌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좌 가진시 맥놀이가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저희 성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대 표: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5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 3동 응암 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禪書畵 매입,판매

작고 고승들의 선서화, 불상, 탱화 등을 고가 매입, 판매
한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한 편안하고 격조높은 실내 분위기 연출 상담
선서화 박물관 건립 희망하시는 분 연락바람
30여년간 선서화,골동품을 수집하여 최고의 작품들만을 보유,서화 감정해 드립
禪書畵房 조성래 합장
011-9317-9199
부산 금정구 구서동

역학, 전생요법

전생퇴행,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31)842-8023
011-772-4606
서울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명예)종교철학박사학위취득

• 학위 : 미국 종합대학교
• 자격 : 스님, 목사님, 종교인
• 서류 :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 4매
상담전화 : 080-048-0048

부산 선(禪)문화원

제 1기생 모집
선묵화, 참선공부,
체계적인 지도
범주스님 직접지도함
051)518-5900

수련이 편안하고 회복이 간편한 선관단식

www.zenfast.com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5)834-1115
016-849-3858

팔자 술강의

• 연구해설반(실전반,개업반으로 실전풀이 수업
• 변만리, 이석영, 박재완, 이병열, 마야비법의 고수들의 비법 및 교재 분석강의
• 매주 목요일 2시(월10만원)
도현사랑방(동묘역 1,6호선)
02)2236-7852
017-710-2420

흥천사 대한신불교

철학,시인,아기이름 짓습니다
백일기도,천일기도
고,대입기도 불사합니다
불사하시는 분에게 佛자를 드립니다
부처님 믿으시고 건강,행복하세요
불우이웃돕기도 합니다
016-478-5545
우체국 7121-0188-1426 황순자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보시금 상담후 결정
010-3188-5103
북장사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남산
(45~60세)
054)748-3530

기도스님 필요하신 사찰 연락바랍니다

현대식 요사채면 좋겠습니다
010-4520-6787
054)433-6315

대사찰 창건주 같이 하실분 모심

운영권 지분도 같이함
직접 방문하여 사찰을 보고 의논바람
• 대략구성 : 2층전각 2채, 대웅전, 대불, 요사채
016-635-0618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공부 요양하실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 청강사
055)932-5706
016-9506-5706

포교원에 필요한 법당불기 일체를 소액으로 보시하시면 사례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010-3116-1992

부전스님 2분 모십니다

대구시 동구 봉무동 196번지 개원사
053)981-0664
053)981-0995
016-515-0664

오래계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55)256-348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214-0509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만세력 통달, 양력)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55)289-728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불공의식, 서화, 의술 등등에 능통한 법랍 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신행상담을 해드리고, 천도재를 집전하며 사찰운영을 도울수 있는 여법한도량을 인연하고 싶습니다

011-854-8107

농장 입주자 봉사자를 모십니다

충남 청양군 대치면에 위치한 영농법인 선농원 농장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유기축산과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봉사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거사님을 모십니다. 거사님 내외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 조건 :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근무동안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수 있으신 분 · 부부일 경우 식비 포함 월 200만원
2007년 12월 4일
(선농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산 1-2
(본 사) : 대전시 서구 갈마2동 1219번지 042)531-0026~7
영농법인 선농원 대표이사 장혜명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易) 정통 命理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져 하는 분
전문가를 위한 學堂
命理學의 모든것
정통교재-명리학 비전
명리학 비결
四柱 비법완성 교재(책)
각권, 삼만원
明陽 命理學堂
인천 032)330-4684 / 032)503-4684

고(古)건물 수리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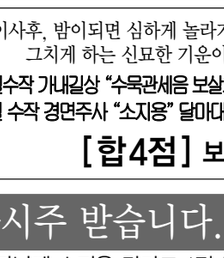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역 학 공 부

• 사 주 초 급 : 월요일 18: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금낭경, 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원인이 있습니다"

* 관세음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몸소 체험하시고 훌륭한 불자님 되세요

* 모르고 잘못행한 행동과 습관이 떠도는 영을 불러들여 몸의 이곳 저곳에 숨어지내는 마구니는 그 나쁘고 음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 소승은 빙의되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천도재) 전문 기도

※ 가출청소년귀가기도	※ 이사후 사건,사고 잦으신 분 ※ 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합격기도(각종시험에 계속 낙방 되시는분)	
※ 병원치료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아토피
(바르면 가렵지 않음)
한정분 무료보시

◆ 소승의 소개글
• 성관세음, 백의 관세음보살님 친견
• 친견인연 공덕으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달마존상도 등을 친필수작 불사포교
• 1998년 7月 24日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 미술 탱화 사사수행, 한국미협회원

"이사후, 밤이되면 심하게 놀라거나 크게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신묘한 기운이 깃든 상서로운 그림..."
① 친필수작 개내길상 "수묵관세음 보살도"와 달마대존도, 족자 중 1점 택일
② 친필 수작 경면주사 "소지용" 달마대존도 3점
[합4점] 보시금 50만원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예금주 : 김병룡)

기치유란 무엇인가?

최근 기치유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반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통합보완의학(대체의학)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 조차 기치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치유를 어떤 종교와 연관된 것으로,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는 방법으로, 안마나 지압의 일종으로, 최면이나 심리치료의 연장성으로 등등 많은 오해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 보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기치유는 서구에서 healing touch, energy healing 등으로 불리는 통합보완의학의 한 분야의 치유 방법을 말합니다. 기치유사가 환자의 신체에 살짝 손을 대거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치유 에너지만을 방사하여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몸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으며 주문을 외우는 등의 주술적인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정통 기치유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9주 과정의 수련을 마치면 기치유 능력을 갖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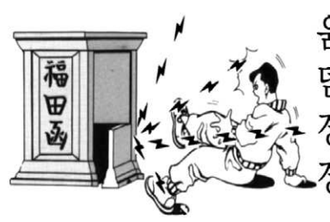
한국 기치유 연구회에서는 2008년부터 수련비를 대폭 낮추어 누구나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치유 방법을 배워서 기치유에 대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식을 갖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기치유가 가정의학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치유법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기치유 양성반 35기 개강!

개강일자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2 : 00 ~ 4 : 30
수련회비 ~~99만원~~ 58만원 (9주, 매주 토요일)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참고서적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윤한흥 지음)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3482-5032 www.gichiu.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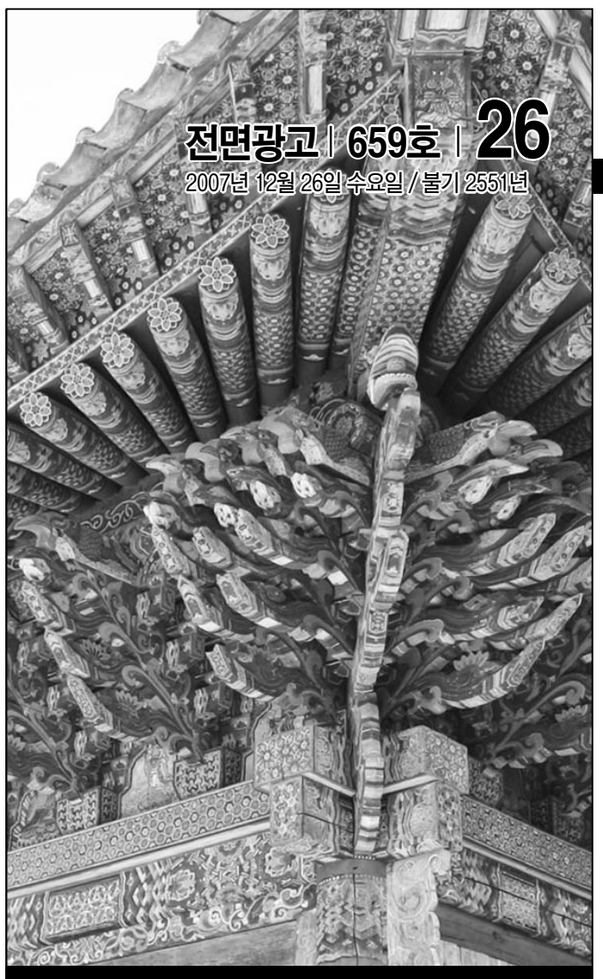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위치 : 제주도	●위치 : 서울외곽도시	●위치 : 경북
●법당 : 30평	●법당 : 30평	●법당 : 35평
●요사 : 60평	●요사 : 80평	●명부전 : 25평
●부지 : 700평	●부지 : 620평	●요사 : 70평
●가액 : 2억7천	●가액 : 43억(대금분할 지급가능)	●부지 : 4,500평
		●가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임법당안내 (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건물 스라브 약30평(등기필)
● 법당 : 12평 ● 요사 방 3칸
●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 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억원

● 위치 : 남쪽 바닷가 진해
● 부지 : 1500평(주거지역)
● 법당 : 목조 43평(3포 5포)
● 지장전 30평, 요사채40평, 산신각5평
● 공양간45평, 대종각, 사무동(2층) 40평
● 버스진입 가능, 뒤편에 산세 아주 좋음
● 정남향, 탁트인 바다전망
●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액 : 15억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8,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위치 : 기장 월내	●위치 : 청송 보현산
●부지 : 7천평	●대지 : 1,000평	●부지 : 1,400평
●법당 : 30평	●법당 : 45평	●법당 : 25평
●요사 : 30평	●요사 : 50평	●요사 : 20평
●가액 : 39억	●가액 : 18억	●가액 : 7억
*도심부근큰가람가능 (법당+대지300평)9억	*교통좋은 근교 신축사찰	*기가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사찰컨설팅(양도 양수 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평수 : 1,200평
● 법당 : 전통사찰형식(내9포, 외5포), 경내석굴있음
● 요사 판넬건물 3동
● 국도2분거리, 산속 고속도로 5분거리
● 답사 후 가격결정
● 산세 좋고, 교통편리함
● 가액 : 9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220-4305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약사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 2대
● 스님 서재방, 종무실, 대중공양실,
방사 2칸, 후원 5평
● 각 방마다 전기판넬 설비
● 시설 무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시설비 5천만원, 보증금 절충가능
010-2039-5288

사 찰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4호선)
● 평수 : 34평
● 2층 법당, 주지실
3층 방3,주방,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월10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1-888-0130

주택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62평(2층)
● 1층 상가 3개, 방1 월70만원
수입있음, 2층 법당
● 8차선 도로 10M 인접
주택가 코너집
● 가액 : 4억2천만원
(융자 6200만원 포함)
031)257-5991
011-753-5991

사찰(급)안내

● 위치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의정부 경계)
● 평수 : 430평(2층 건물)
● 1층 : 종무실, 주지실,
공양실, 방5 / 2층 : 대웅전
● 별채 43평 건물
위패당 및 영단
● 가액 : 12억5천만원(절충가능)
010-9757-724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앞산 자락
● 대지 : 15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 20평, 벌채 :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5억 5천

대구시내.근교사찰(터)
● 위치 : 2억 5천부터 20억
평수 금액 다양
● 사찰전문가와 친절상담
019-534-723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 평수 : 총60평, 법당 35평
● 특징 : 연등 500개,
영가등 250개, 인등200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90만원(조절가능)
시설비 : 1,000만원
031)911-9897

대형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큰 대로변, 부산진 지하철역 부근
시내버스 각 노선 정류장 앞
● 평수 : 약 85평. 4층건물에 2층
● 법당 약20평, 방2, 주방,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약40평
● 위치가 좋아 불교대학, 선원 등
● 약사여래 삼존불
모든시설 완벽,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180만원
010-2563-1398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입구)
불사한지 3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 100평
● 대웅전 약30평,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사용
연못 조경 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급 양도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 천연염색 체험장으로도 적합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9-245-892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시내
● 평수 : 종교용지 438평
법당 8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칠성각
● 조계종 비구니 암자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찰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581-604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 삼존불, 시설일체
●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보살님,
역학하시는분환영
●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18-427-2256
063)543-55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최고 중심지 상권
● 시설완비
● 법당, 주방, 방2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전세 4500만원, 가액 : 1억원
010-4527-48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전철역 10분거리
주차장 있음
● 평수 : 약 30평
● 가액 : 상담 후 절충
011-328-1929
011-460-66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평수 9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채(방4)
●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38-4897

사찰·암자 부지안내

천하절경 · 풍수지리 명당
● 춘천~서울 고속도로
강촌IC부근(춘천시 남면)
● 야산 밑, 지목:전 2,133㎡
(645평), 관리지역, 남서향
● 토목공사 완,
진입로 포장 완, 전기 유
● 현지 보시고 가격상담 절충
011-9797-383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미아삼거리
롯데백화점 뒤
● 평수 : 약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집기류 일체(반지하)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시설비, 보증금 포함
1500만원, 월 25만원
02)999-6659
011-9725-31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구산마을 125-1번지
● 법당 : 건평 60평(다용도실 10평)
● 요사채 : 슬라브 건물 30평
● 창고 및 화장실 18평, 주택 12평
● 총 건평 130평, 대지 605평
● 가액 : 2억 8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2호선) 2번출구
● 평수 : 30평
● 2층 법당,영가단,거실,주지실
공양간,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6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45-506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평수 : 총60평(4층 건물중3층)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설, 옥불 2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절충
시설비 2천만원
● 시설 최상급, 몸만오시면가능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해 급 안내함
011-628-11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고령 경계선
● 대지 400평, 밭 512평
판넬법당 20평
● 짓고있는 대웅전 30평
요사채 22평
● 산세수려
● 가액 : 2억(절충가능)
055)931-7253
011-549-186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 3층 건물 2층 50평
● 법당, 종무소, 공양간 2칸,
스님방, 화장실 ● 삼존불
● 홍송인등(250인 用), 종,
에어컨, 온풍기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추후 절충 가능
● 현재 운영중
010-5550-06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 대지 : 330평
● 법당1, 방4, 창고
● 가액 : 5,500만원
054)733-7225
010-7340-8765
010-7484-6885

사 찰 안 내

● 위치 : 고흥군 도화면 5분거리
● 법당 35평, 11년된 건물
● 산신당11평,종각,요사채2동
● 평수 : 1,000평
● 가액 : 1억 8천만원(가격절충)
061)832-3136

포교당 안 내

● 위치 : 온양 아산 시내 중심가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2층 건물 2층
● 내년 3월부터 서울까지
지하철 운행(교통편리)
● 법당, 상담실, 스님방, 창고, 욕탕 구비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철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즉시법회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사 찰 중 개

●위치 : 경기	●위치 : 동해시
●부지 : 1,000평	●대지 : 90평(200평)
●법당 : 35평 목조	●법당 : 22평
●요사 : 30평	●요사 : 30평
●가액 : 9억	●가액 : 9천(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대지 176평, 밭 790평
● 건물 시골 촌집 폐가
전기수도 차량진입 할 수있음
● 산세 좋고 경관수려
● 가액 : 1억 3천 500만원
011-594-1526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충북 / 충남	혜철스님	043)732-5560 / 011-9422-8453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김해 / 마산 / 거제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광주 / 전남지역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전북지역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 병 수	052)272-0909 / 011-862-5282
경남 남부지사	남해/고성/사천/함양/진주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정 용 길
동국대학교 교수

박수 받는 대통령의 조건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개표가 진행 중이던 12월 19일 밤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명박 당선자는 방명록에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 마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당선자가 품은 초발심(初發心)이다.

사실 이명박 당선자가 2위보다 530여만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고립되었던 이유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국민의 여망에 역행하는 일들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21세기 세계질서는 탈냉전의 과정을 거쳐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실리보다는 이념에 집착하였다. 역사 바로 세우기나 과거사 청산이라는 생산성 없는 각종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잊고 살던 아픈 기억들만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만 하였다. 세계의 시대적 흐름에 함께 편승하지 못하고 과거회귀적 사고에 매몰된 형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코드인사였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자신의 지지자들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또 그들이 좋아할 정책만을 펴다보니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당선자도 2위 후보보다 530여만 표의 차로 압승하였다고는 하나, 과반수 득표에는 실패하였다.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자가 될 수도 있다. 대선이 끝나자 어느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정부도 당선자와 같은 동향출신, 동문출신, 그리고 같은 종교인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코드인사나 논공행상보다는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골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노무현 정부와 차별이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절치 못한 잦은 언행으로 정치적 구설수에 휩싸여 왔다. 이명박 당선자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기간 중 "애를 낳아 보아야 보육을 안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또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정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한국에는 기독교신자도 있지만 불교신자도 있고, 또 타종교신자들도 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다. 이러한 작은 말실수가 자칫 대통령의 인격과 품성에 흠집을 내고 권력의 누수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괴물이다. 그것은 권력자를 변화시키는 마력도 갖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도덕이나 인(仁)을 요구하는 것이다. 권력이 법이나 제도에서 나올 때 그 권력은 제한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무제한으로 사유화되고 포악해질 수 있다. 법은 도덕이나 인(仁)보다 지키기가 쉬운 편이다.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덕이나 인(仁)을 요구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후보는 당선자가 된 후 "두렵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국민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의 앞에는 당장 BBK사건 관련 '이명박 특검'이 기다리고 있고, 그에게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등 산적한 난제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발심만 지킨다면 해결할 수 있다. 초발심만 지킨다면 떠날 때 박수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41. 불교에 바란다 〈끝〉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세상을 껴안고, 국민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 하라

정말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을 대선으로 마감했다. 딱히 마음에 드는 후보도 없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볼 겨를도 없이 기싸움만 구경하다가 투표한 기분이다. 그러다보니 분풀이하듯 '묻지마 투표'를 한 사람도, 찜찜하지만 대안이 없다며 투표한 사람도 상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다며 투표 자체를 외면해 버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시대정신'은 실종되고 '시대상황'이 만들어낸 대통령이란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매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그래 주길 바란다. 특히 "위기에 처한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분열된 우리 사회의 화합과 국민통합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진력과 도덕성 사이를 아찔하게 줄타기했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당선자이기에 반드시 해줘야 할 그의 몫이다. 그동안 공사(公私)의 엄격한 구분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알아차렸을 것이고, 빠른 머리 회전보다 한 숨 거른 신중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감했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당선자의 말대로 자신을 낮춰야 하는데, 종교문제만큼은 낮은 자세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독선적인 기독교와 무책임한 정부를 생각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란다면 지나칠까. 그동안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 봉헌'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종교편향적 언행을 했던 전력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수 기독교계의 '장로대통령 만들기' 움직임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을 감안하면 당선자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닐 수도 있어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불교계는 시대흐름을 차분히 지켜보고 사회와의 관계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여 불교계에 간절히 바란다.

첫째, 교단내부 정리가 시급하다. 교단 내 권력싸움으로 날이 샌다면 불교의 앞날엔 희망이 없다. 배는 기울고 있는데 자기 보따리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교계 안에서는 자리다툼으로 출가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마저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작 사회로부터 오는 부당한 대우나 불의에는 반짝 대응 아니면 관용이니 무애(無碍)니 하며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소위 교계지도자들의 위선은 슬프기까지 하다. 불자들이 위축되어 기를 펴기 어려운 이유다.

둘째, 세상을 껴안으라. 피해의식과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중에 갇혀 있거나 경전 속에 묻혀 있어서도 안 된다. 불교는 사회와 호흡하고 소통하는 연습을 더 해야 한다. 사회의 고통과 구조적 모순은 불교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누군가 나서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노예근성이요 무임승차에 다름 아니다. 특히 불교가 종교인권의 침해와 종교적 차별을 방관해온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정치보살 · 경제보살 · 통일보살 · 인권보살 · 환경보살 · 복지보살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전파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위해서 뿐 아니라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감싸 안아야 하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연기(緣起)의 법칙이고 동체대비요 공업중생(共業衆生)의 가르침 아니겠는가.

셋째, 정치권과 거리를 두라. 종교지도자의 오해받을 행동은 금물이다. '무심'(無心)과 '의식 없음'이 혼동되고 '겸손'과 '비굴'이 구분되지 않으면 지혜롭고 용기 있는 종교지도자가 아니다. 권력의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리며 떳떳치 못한 이익이나 챙기려 든다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인이 찾아오는 것을 품위 있게 물리칠 줄 알아야 하고, 더구나 자청하여 만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 종교입장에서 보면 정치권력은 '꿀'이기보다 '독'이기 십상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 하라. 2007년은 유난히 종교가 사회문제화 된 해였다. 우리 사회의 이념과잉 못지않게 종교과잉이 국민을 피로하게 만든 감이 없지 않다. 강의석씨 사건의 승소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재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사립학교법 공방과 아프간 피랍사건으로 기독교의 오만과 권력화에 분노했고 동국대 신정아 사건과 주지선거와 관련된 돈거래와 패거리문화로 불교계는 국민을 얼마나 실망시켰는가. 불교만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당당할 수 있어 사회적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종교로 세상을 말해 왔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종교를 말해야 할 시대인지도 모른다.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는 '머무르는 바 없이(應無所住) 그 마음을 내(以生其心)', 세상을 껴안는 불교, 국민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하는 불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불자의 눈

악업 성찰하고 행복을 가꾸자

– 또 한해를 보내며 –

한해의 끝에 서 있다. 끝이라는 말에는 새로운 시작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시작도 끝도 없다(無始無終)는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한 해가 끝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그저 인간이 규정해 둔 시간의 분절체가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일 뿐. 그러나 유상(有相)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준다.

2007년 한 해 동안 불교계는 정말 분주했다. 온 나라를 들었다 놓은 신정아 사건이 조계종립 동국대학에서 비롯되었고 그 덕분에 동국대학의 인사채용 시스템이나 각종 검증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거기 개입된 스님들의 권력싸움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스님들의 권력싸움은 제주 관음사의 주지인사로 인한 대치 국면과 마곡사 주지의 비행으로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일반 국민들은 "그게 정말 불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요즘 스님들은 정말 그러하냐?"며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그런 가운데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기리며 자정과 성찰의 다짐도 있었다. 비록 그 다짐이 성실하게 비쳐지진 않았지만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의 눈초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우치고 새로운 승가상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값진 것이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교계의 행보도 분주하고 어수선 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대선 구도에서 크게 중심을 잃지 않았다. 일부 단체가 '줄대기' 행보를 보여주긴 했지만 불자후보가 없는 가운데 치러진 대선에서 불교계는 대체로 제자리 지키기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해를 돌아보면 보람된 일보다 아쉬운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야 발전도 있을 것이다. 불교계의 2007년 한 해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잃은 것이 많은가를 따져 봐야 한다. 탐욕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탐욕이다. 그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정진하는 집단이 불교계라고 본다면 자못 숙연한 마음으로 현실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몇몇 스님의 이름이 모든 뉴스를 도배하는 상황은 분명 헛된 탐욕의 끈을 끊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데 따른 과보였다. 몇 사람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전체의 불자들이 과보를 받는 일은 참으로 황망했다. 한 사람의 학력위조에 줄줄이 엮여 있던 탐욕의 사슬들이 드러나는 동안 참불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오죽했겠는가?

이제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들끓는 욕망을 억제할 이성의 힘을 기르기 위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시간은 흐르는 물이어서 가벼운 것은 둥둥 띄워서 데려가고 무거운 것은 바닥에 가라앉히고 지나간다. 2007년이라는 시간에 떠 있는 것과 가라앉은 모든 것을 조용히 응시하며 탐욕으로 빚어진 악한 인연들을 하나하나 성찰하고 선한 인연의 고리로 환치하는 지혜를 길러보자. 그래야 행복이라는 이름의 내일이 올 것 아닌가?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성 정화교육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이며 조선시대 승병들의 동해안 본부였던 함월산의 전통사찰 골굴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해 제 32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 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를 통한 심성 정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외국인 사범과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로서 주지스님이 직접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을 지도합니다.

※ 언 제 : 2007년 12월~2008년 2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3주, 한달 이상) 매주 일요일 입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1개월씩 4회 이상 수련 시 1단 승단 심사 자격 부여)
※ 대 상 : 초등, 중등 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회비 : 1일 3만원 · 1주일 21만원 · 1한달 7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골굴사)
* 접수 및 문의: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 수련내용:
1. 불교의 아나파나사티 명상 · 선요가 · 선기공 · 선무술 · 불교한문 · 전통문화(판소리, 승마, 다도, 전통춤)
2.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
(이명미 교수님. 무용학)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인성교육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회화를 원어민이 지도합니다.
5. 화랑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느끼는 승마체험.
* 준비물 :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개인 컵
장갑 · 모자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일 과 표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시	기상	10시	오전 선무도 수련	13시	독서와 사색	18시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및 행선	11시	108배 참회기도 · 자아를 향한 서원	14시	전통문화 강습(판소리,다도,승마 등)	19시	저녁 예불
7시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15시	오후 선무도 수련 · 등산	19:30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8:30	불교 강의 · 영어회화	12시	점심 공양	16:30	울력(도량 청소 및 정리)	21시	점호 및 취침

◈매주 1회 성지순례 : 장항사지 · 감은사지 · 문무대왕릉 등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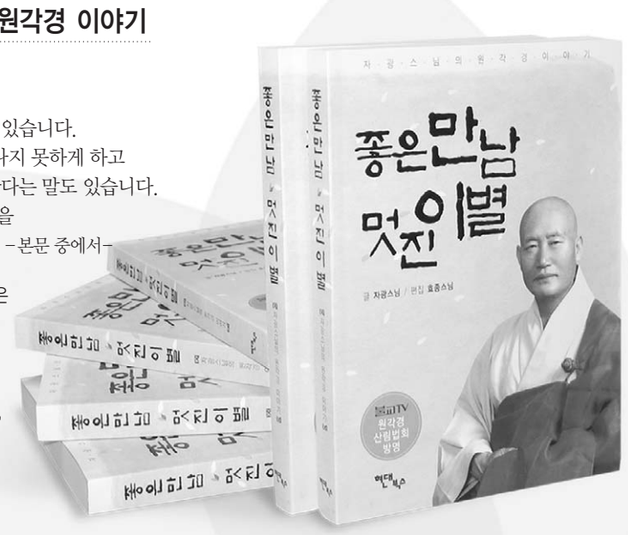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북수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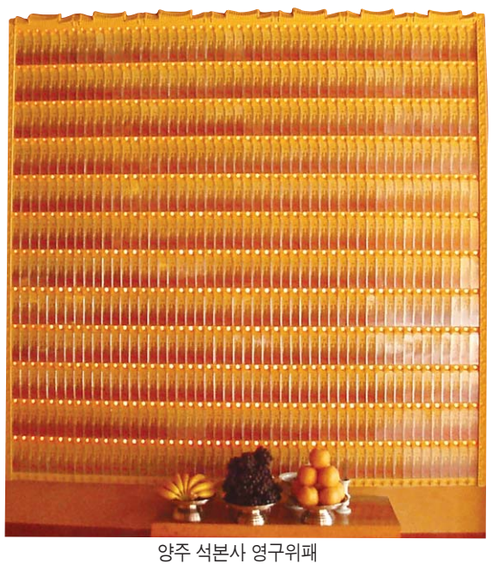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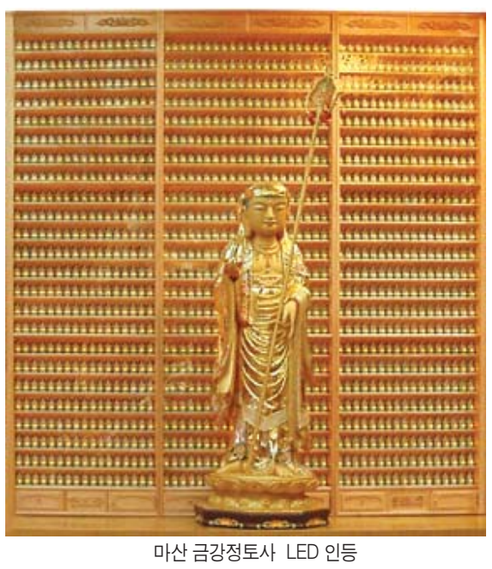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팔각봉축접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연등 작업 현장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자동 승강 장치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 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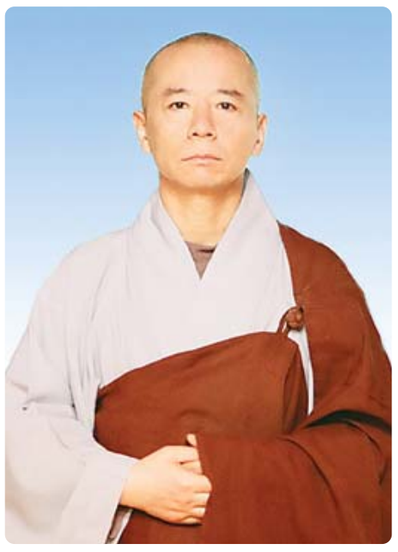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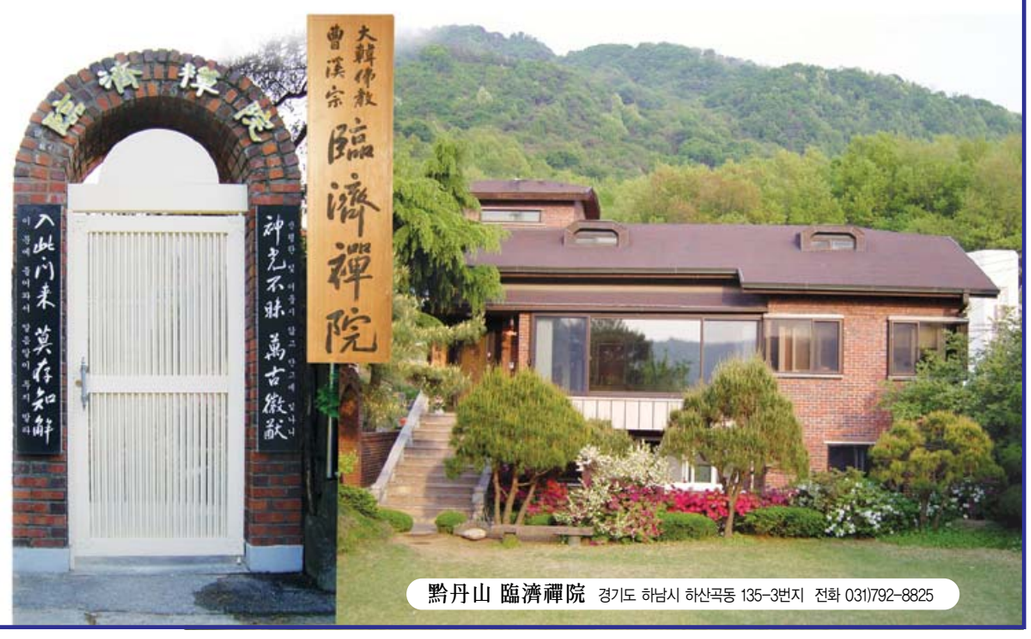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옹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